



2011  
The First  
EAST ASIA  
SUMMER  
SCHOOL





## 世界は今、 大きな転換期を迎えています。

当今世界，正处于发展转型的关键时期。  
세계는 지금,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そして、東アジア地域は、経済的にも文化的にも、世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存在と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状況のもと、未来を担う人材は、自国の歴史や文化、現状を知り、深く理解するのと同じように、近隣諸国の歴史や文化、現状について積極的に知り、理解を深めること。さらに、交流と対話を経て、東アジア地域の一体感を高め、互いの利益につながる施策を生み出し、実現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今後ますます、東アジア地域は成長を続けることが予想される中で、奈良県という日本の国づくりが進められた歴史的な場所に日本・中国・韓国の若者たちが集い、ともに過ごし、ともに学び、ともによりよい未来の東アジアを創る一步を模索する場。それが、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NARASIA未来塾」です。当塾の成果は、3国のみならず、全世界へと発信していきます。





在经济与文化等各个领域，东亚地区已逐步发展成影响整个世界的新生力量。在此背景下，肩负未来的新一代人才不仅需要深刻了解本国的历史、文化、及国情，同时还必须积极掌握近邻各国的历史、文化、及国情，不断加深对他国的认识与理解，并在此基础上增进交流，提升东亚地区的凝聚力，制订并实施符合各国共同利益的方针政策。东亚地区蕴藏着巨大的发展潜力，今后必将谱写更辉煌的篇章。为此，东亚暑期讲习班“NARASIA未来亚洲研讨会”特邀日本、中国、韩国的年轻人，汇聚开启日本治国历史的名城古都—奈良，共同生活，共同学习，共同研讨描绘东亚未来美好蓝图的新举措。相信本研讨会取得的成果，不仅将服务于日中韩三国，同时也将世界指明迈向未来的新方向。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래를 담당할 인제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상황을 알고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류와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감을 고조시키고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이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지역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라현이라는 일본의 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에 일본 중국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며, 더 좋은 미래의 동아시아를 창출하기 위한 함께 그 첫발을 모색하는 장. 그것이 동아시아 서머스쿨 'NARASIA미래학원'입니다. 이 미래학원의 성과는 한·중·일 세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향해 발신해 갈 것입니다.



## 開校の経緯 研究会宗旨 개교 경위

奈良県で2010年に開催した平城遷都1300年祭では、多くの方に奈良の魅力に触れ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た。また、その一方で、APEC観光大臣会議の招致を図るなど、多くの国際会議を開催することで、奈良が広く世界へもアピールできた年となった。中でも2010年10月に開催された第1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では、日本・中国・韓国等の地方政府が一堂に会し、観光振興、教育を含む人材育成や次世代の交流について熱心な議論が行われた。このときの提案を受け、本県では、東アジア諸国間の交流を一層活発化し、将来を担う若い世代の人材育成を目的に、日本・中国・韓国の地方政府職員と学生を対象にした短期集中合宿型のセミナー、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NARASIA未来塾』を開催するに至った。

2010年, 奈良县举办了平城迁都1300周年纪念活动, 让人们充分领略到奈良古朴典雅的魅力。与此同时, 奈良去年还申办亚太经合组织(APEC)旅游部长会议, 并承办多项国际会议, 向世界展现了奈良的风采。其中, 东亚地方政府会议于2010年10月在奈良召开, 来自日本、中国、韩国等的地方政府人士汇聚一堂, 就振兴旅游、扶持教育产业、培养人才、增进年轻一代交流等诸多问题进行了深入探讨。在与会者的倡议下, 奈良县决定邀请日韩三国地方政府职员及学生, 举办短期集训式研讨班—东亚暑期讲习班“NARASIA未来亚洲研讨会”, 以增进东亚各国的对话沟通, 培养肩负未来的新一代人才。

2010년 나라현에서 개최된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제는 많은 분들이 나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한편으로 APEC관광장관회의 유치하는 등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나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해였다. 그 중에서도 2010년10월에 개최된 제1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관광진흥과 교육을 포함한 인재육성, 그리고 차세대 교류에 대한 열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때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나라현은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 지방정부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합숙형 세미나, 동아시아 서머스쿨 “NARASIA미래학원”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ご挨拶

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NARASIA未来塾』開講にあたって、日本、中国、韓国の若い世代がお互いの歴史や文化、社会、経済などを理解しあい、認識し、共に学習する場を持つことは大変意義深いことです。

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NARASIA未来塾』は、それらの意義を踏まえながら、これからの東アジア地域の発展をリードしていく次世代の育成を目的に開催されます。

奈良の地は、日本が国づくりをすすめた6世紀から8世紀に首都「平城京」がおかれた地です。中国や韓半島から様々な技術や文化が伝わり、国づくりのための基礎が創られました。

そのような歴史を持つ奈良県が感謝の気持ちを込めて開催する『NARASIA未来塾』において、東アジアの未来を担う若者であるみなさんが集い、これからの東アジアの未来について大いに議論をおこなうことを歓迎します。

このスクールに参加されたみなさんが、日中韓の相互理解を深めて多くを学ぶとともに、将来に繋がる互いの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東アジア地域をまたいだ新たな時代に向けた地域づくりに寄与できる人材となることを強く期待します。

平成23年7月18日

第79代内閣総理大臣 NARASIA 未来塾名誉塾長 細川護熙

### 致 欢 迎 词

东亚暑期讲习班“NARASIA未来亚洲研讨会”的开办，为日本、中国、韩国的年轻一代提供了在历史、文化、社会、经济等各个领域相互了解、共同学习的机会，具有极其深远的意义。基于这一理念，“NARASIA未来亚洲研讨会”旨在培养引领东亚地区向前迈进的新一代领导人才。奈良是名垂青史的古都，公元6至8世纪，统治者在此兴建都城“平城京”，开户了建国治国的历史新篇章。在此期间，来自中国和朝鲜半岛的各类技术与文化传入日本，为创建富饶的国家奠定了基础。回顾这段历史，奈良县心怀感激，因此决定主办“NARASIA未来亚洲研讨会”，欢迎肩负东亚未来的年轻人汇聚一堂，坦率地进行交流，共同描绘东亚地区的未来蓝图。我深切期待，参与本次研讨会的诸位学员能增进日中韩三国的相互理解，学有所获，在三国之间架起相互连接的桥梁，成为东亚地区亟需的人才，为面向新时代的地区建设贡献力量。

### 환 영 인 사

동아시아 서머스쿨 “NARASIA미래학원” 을 통해 일본, 중국,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등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함께 학습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동아시아 서머스쿨 “NARASIA미래학원”은 이러한 의의를 토대로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선도해 갈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지역은 일본이 국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던 6세기에서 8세기에 수도 ‘헤이조쿄’가 있었던 곳입니다. 중국과 한반도에서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전래돼 국가 조성에 필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지닌 나라현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개최하는 “NARASIA 미래학원”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서머스쿨에 참가하신 여러분이 일본, 중국, 한국 세나라의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많은 것을 학습하길 바라며, 아울러 미래로 이어지는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지역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1年7月18日

第79任日本内閣总理大臣 NARASIA未来亚洲研讨会名誉会长 细川护熙

2011년7월18일

제79대 일본내각총리대신 NARASIA미래학원 명예학원장 호소카와 모리히로



7/18 MON.

ホテル日航奈良  
奈良日航飯店  
호텔 닛코나라



**16:30-18:00**  
**基調講演**  
 アジアの共有文化とその力  
**主题演讲**  
 亚洲共同文化及其力量  
**기조강연**  
 아시아의 문화공유와 그 힘  
 韓国初代文化部長官(大臣)  
 奈良県立大学名誉学長  
 梨花女子大学名誉教授 **李御寧**  
 韓国首任文化部長官  
 奈良県立大学名誉学長  
 梨花女子大学名誉教授 **李御寧**  
 한국 초대 문화부장관  
 나라현립대학 명예학장  
 이화여자대학 명예교수 **이어령**



**18:30-21:00**  
**開校式・ウェルカムダイアログ**  
 开学典礼・欢迎交流会  
 개교식 · 웰컴 다이얼로그

19 TUE.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9:30-12:30**  
**現代日本の漢字文化**  
 现代日本的汉字文化  
 현대 일본의 한자문화  
**京都大学大学院教授**  
 阿辻 哲次  
**京都大学研究生院教授**  
 阿辻哲次  
**교토대학 대학원 교수**  
 아쓰지 데쓰지



**13:30-17:30**  
**オリエンテーション**  
 奈良の生活・観光等の紹介  
**入学指导**  
 介绍奈良的生活及观光等情况  
**오리엔테이션**  
 나라의 생활·관광 등의 소개



20 WED.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9:30-12:30**  
 世界から必要とされる自分となる~新たな価値観を発信せよ  
 如何成为全球需要的人才——开创新价值观念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새로운 가치관을 발신하자  
**デフタ・パートナーズ会長**  
**アライアンス・フォーラム財団 代表理事**  
 原文人  
**德夫塔合伙企业集团执行主席**  
**同盟论坛财团代表理事**  
 原文人  
**데후타 파트너즈 회장,**  
**얼라이언스·포럼재단 대표이사**  
 하라 조지



**13:30-16:30**  
**基本句型から学ぶ中国語**  
 通过基本句型学习中文  
 기본문형으로부터 배우는 중국어  
**京剧俳優・画家・中国語講師**  
 盧思  
**京剧演员・画家・中文讲师**  
 卢思  
**경극배우·화가·중국어강사**  
 루시

21 THU.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9:30-12:30**  
**韓国語の特徴を知り、ハングル文字に親しむ**  
 了解韩语的特征, 爱好韩文  
 한국어의 특징을 알고, 한글 문자를 즐긴다  
**九州産業大学准教授**  
 長谷川由起子  
**九州产业大学 准教授**  
 长谷川由起子  
**규슈산업대학 준교수**  
 하세가와 유키코



**13:30-16:30**  
**奈良発のシルクロード**  
 起自奈良的丝绸之路  
 나라에서 시작된 실크로드  
**北京大学教授**  
**浙江工商大学日本文化研究所所长**  
 王 勇  
**北京大学教授**  
**浙江工商大学日本文化研究所所长**  
 王 勇  
**베이징대학 교수**  
**저장성공상대학 일본문화연구소 소장**  
 왕 용



22 FRI.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9:30-12:30**  
**地球環境と森林海連環学**  
 地球环境与森林城乡海洋连环学  
 지구환경과 심리해연환학  
**京都大学名誉教授**  
**財団法人国際高等研究所チーフリサーチフェロー**  
 田中克  
**京都大学名誉教授**  
**(財団)国際高等研究所主任研究员**  
 田中克  
**교토대학 명예교수**  
**(재)국제고등연구소 주임연구위원**  
 다나카 마사루



**13:30-16:30**  
**グループワーク**  
 集体指导  
**그룹 워크**

**17:00-18:00**  
**集落再生**  
 村落复兴  
 취락재생  
**奈良県立大学 地域創造学部講師**  
 古山周太郎  
**奈良县立大学 地域创造学部讲师**  
 古山周太郎  
**나라현립대학 지역창조학부 강사**  
 고야마 슈타로

23 SAT.

猿沢荘  
猿泽庄  
사루사와소  
 ならまちセンター  
奈良町中心  
나라미치센터  
 ならまち  
奈良町  
나라미치

**9:30-12:30**  
**伝統を未来へつなげる**  
 发扬传统, 开创未来  
 전통을 미래로 연결시킨다  
**慶應義塾大学医学部附属**  
**漢方医学センター診療部長 准教授**  
 渡辺賢治  
**庆应义塾大学附属医院**  
**中医中心诊疗部部长 副教授**  
 渡辺賢治  
**계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  
**한방의학센터 진료부장 준교수**  
 와타나베 겐지



**14:00-17:00**  
**視察研修**  
 奈良市国際交流ボランティア協会  
**参观培训**  
 奈良市国际交流志愿者协会  
**시찰연수**  
 나라시국제교류자원봉사자협회





24 SUN.

西大寺興正殿  
西大寺兴正殿  
사이다이지고소덴



10:00-13:30

歌は心の架け橋  
歌声架起心灵之桥  
노래는 마음의 가교

NPO法人音楽の森理事長  
荒井敦子

非营利组织法人“音乐森林”理事长  
荒井敦子

NPO법인 온가쿠노 모리 이사장  
아라이 아쓰코



25 MON.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9:30-12:30

東アジア中心時代における<文化>理解  
东亚时代的“文化”理解  
동아시아 중심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이해

高麗大学校教授  
崔官

高麗大学教授  
崔官

고려대학교 교수  
최관



13:30-16:30

日中文化の「現在形」  
日中文化的“现在进行式”  
중일 문화의 「현재형」

法政大学教授  
王敏

法政大学教授  
王敏

호세이대학 교수  
왕민



17:00-18:00

持続可能な社会の追求  
追求“可持续发展的社会”  
지속가능한 사회의 추구

奈良県立大学地域創造学部教授  
安村克己

奈良県立大学地域創造学部教授  
安村克己

나라현립대학 지역창조학부 교수  
야스무라 가쓰미

26 TUE.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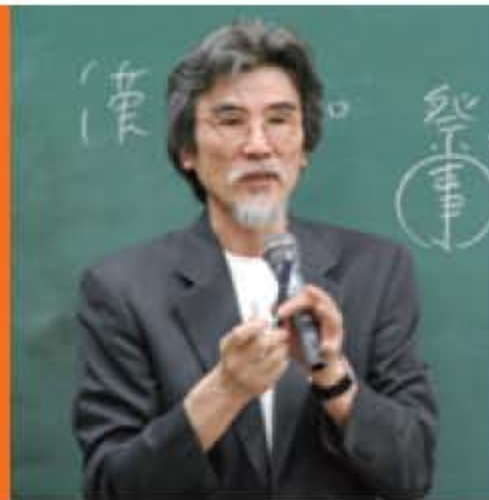
9:30-12:30

日中韓關係の過去と現在  
日中韩关系的过去与现在  
일중한 관계의 과거와 현재

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  
小此木政夫

庆应义塾大学名誉教授  
小此木政夫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13:30-16:30

日本文化史とアジアの関係  
日本文化史与亚洲的关联  
일본문화사와 아시아의 관계

編集工学研究所所長  
松岡正剛

编辑工学研究所所长  
松冈正刚

편집공학연구소 소장  
마쓰오카 세이고

27 WED.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9:30-12:30

東アジア文化交流史  
东亚文化交流史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大手前大学教授  
上垣外憲一

大手前大学教授  
上垣外宪一

오테마에대학 교수  
가미카이도 켄이치



13:30-16:30

東アジアの新しい課題  
东亚新课题  
동아시아의 새로운 과제

奈良県立大学学長  
伊藤忠通

奈良县立大学校长  
伊藤忠通

나라현립대학 학장  
이토 다다미치



28 THU.

猿沢荘  
猿泽庄  
사투사와소



9:30-12:30

科学技術の変遷  
科学技术的变迁  
과학기술의 변천

京都大学総長  
松本 紘

京都大学校长  
松本 紘

교토대학 총장  
마쓰모토 히로시



13:30-16:30

日本7・8世紀の男帝と女帝  
公元七・八世纪的日本男帝与女帝  
일본 7・8세기의 황제와 여제

権原考古学研究所所長  
菅谷文則

権原考古学研究所所长  
菅谷文則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소장  
스가야 후미노리

29 FRI.

猿沢荘  
猿泽庄  
사투사와소

東大寺 唐招提寺  
东大寺 唐招提寺  
도다이지절 도소다이지절

平城宮跡  
平城宫遗址  
헤이조궁터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9:30-10:30

外來の文化と制度の受容  
接受外来文化和制度  
외래문화와 제도의 수용

奈良県知事  
荒井正吾

奈良县知事  
荒井正吾

나라현 지사  
아라이 쇼고



11:00-17:30

視察研修  
参观培训  
시찰연수



18:00-20:00

交流会  
交流会  
교류회





30 SAT.

橿原考古学研究所  
橿原考古学研究所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石舞台古墳  
石舞台古墓  
이시부타이 고분

万葉文化館  
万叶文化館  
만요문화관



8:30-17:00

視察研修  
参观培训  
시찰연수

橿原考古学研究所  
橿原考古学研究所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石舞台古墳  
石舞台古墓  
이시부타이 고분



万葉文化館  
万叶文化館  
만요문화관

31 SUN.



11:00-16:00

文化体験&ホームビジット  
文化体验&家庭访问  
문화체험&가정방문

奈良市国際交流ボランティア協会  
奈良市国际交流志愿者协会  
나라시국제교류자원봉사자협회



8/2 TUE.

十津川村  
十津川村  
도쓰카와무라



7:30-11:00

バス移動(奈良市→十津川村)  
搭乘巴士(奈良市→十津川村)  
버스 이동 (나라시→도쓰카와무라)



11:00-18:00

十津川村フィールドワーク  
十津川村 田野调查  
도쓰카와무라 필드워크  
①歴史民俗資料館視察  
②十津川村施策説明・意見交換会(十津川村役場)  
③農作業体験、共同調理(農家民宿)  
④参观历史民俗资料馆  
⑤十津川村村政与措施的说明·  
意见交流会(十津川村机关)  
⑥农活体验, 共同做饭(住宿于农民家庭)  
⑦역사민속 자료관을 시찰  
⑧도쓰카와무라의 현황과 시책에 대한 설명·  
의견 교환회 (도쓰카와무라 사무소)  
⑨농업체험 공동요리(농가집에 민박)

3 WED.

十津川村  
十津川村  
도쓰카와무라



9:00-18:30

十津川村フィールドワーク  
十津川村 田野调查  
도쓰카와무라 필드워크  
①特別養護老人ホーム「高森の郷」視察  
②「かんのがわHBP」説明・意見交換  
③世界遺産「小辺路」散策  
④共同調理(農家民宿)  
⑤访问了特别养老院“高森之乡”  
⑥“神給川HBP”的介绍·意见交流会  
⑦散步世界遗产「小边路」  
⑧共同做饭(住宿于农民家庭)  
⑨특별양호노인홈「다카모리노의향」을 시찰  
⑩「간노가와 HBP」의 소개·의견 교환회  
⑪세계유산「고헤치」의 산책  
⑫공동요리(농가집에 민박)



4 THU.

十津川村  
十津川村  
도쓰카와무라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7:30-11:00

バス移動(十津川村→奈良駅前)  
搭乘巴士(十津川村→奈良站)  
버스 이동 (도쓰카와무라→나라역)



13:30-18:00

成果発表  
成果报告  
성과발표

5 FRI.

奈良県新公会堂  
奈良县新公会堂  
나라현 신공회당



9:30-12:00

成果発表リハーサル  
成果报告会排练  
성과발표리허설

13:00-16:50

成果発表会、フェアウェルダイアログ  
成果报告会、欢送交流会  
성과발표회, 페어웰 다이얼로그



17:00-19:30

閉校式、フェアウェルレセプション  
闭幕式、欢送招待会  
폐교식, 페어웰 리셉션





2 0 1 1  
The First  
EAST ASIA  
SUMMER  
SCHOOL



2011  
NARASIA 未来塾  
NARASIA 未来塾



開校式/交流会  
开校典礼/交流会  
개교식/ 교류회

# 新しいグローバル社会を 共同开創新型国際化社会 ともに創っていきましょう

새로운 글로벌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2011  
7/18<sup>Mon.</sup>

ホテル日航奈良  
奈良日航飯店  
호텔 닛코니라







**開校にあたり、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NARASIA未来塾』の塾長の荒井正吾奈良県知事があいさつをした。**

「昔、奈良に都があった時代。中国・韓半島から多くのいただきものをおかげでひとつの国を創ることができた。その何万分の一に過ぎないが、お返しをしたいという思いで、今回の塾を開くことにした。短期間ではあるが、各地から来られた方々が仲良く、共通の文化的資質・能力を確かめ合い、それを資本に新しいグローバル社会を創る人材となってほしい。また、ふるさとに帰ってもぜひおつきあいを長く続けていってほしい」と述べた。

続いて、名誉塾長であり、第79代内閣総理大臣の細川護熙氏から「東アジアの未来を担うみなさんが集い、東アジアの未来について大いに議論をおこ

なうことを歓迎します。日中韓の相互理解を深めて多くを学ぶとともに将来に繋がる互いの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東アジア地域をまたいだ新たな時代に向けた地域づくりに寄与できる人材となることを強く期待します」とのメッセージが代読にて披露された。

その後、基調講演、グループ対話（ウェルカムダイアログ）、交流会が行われた。交流会では、金碩基・駐大阪大韓民国総領事、コンドズ・ユスフ・中華人民共和国駐大阪副総領事、伊藤忠通・奈良県立大学学長が歓迎のあいさつをした。

**在开校典礼上, 东亚暑期学校“NARASIA未来研讨会”塾长、奈良县知事荒井正吾致辞说:**

“奈良曾是日本的都城。当时, 日本从中国和朝鲜半岛多有受惠, 国家才初具规模。虽无法报答其万分, 我们创办未来塾的目的, 就是为了知恩图报。学习期间虽然短暂, 我希望来自各地的朋友们能融洽相处, 相互印证彼此之间息息相通的文化特质与能力, 在此基础上成为开创新型国际化社会的栋梁之材。同时我们也希望各位回归家乡后, 也继续保持长期而密切的交往。”

随后, 现场由代读的形式发表了NARASIA未来塾名誉塾长、日本第79任内阁总理大臣细川护熙的致辞。致辞的内容是: “各位肩负着东亚地区的未来。我欣喜地看到, 各位汇集一堂, 共商东亚地区未来大计。我衷心期待, 各位在

这里能深化日中韩之间的相互理解, 多所学习, 与此同时建立起面向未来的人际网络, 成为能活跃于东亚地区面向新时代构建未来型区域合作的有用之材。”

其后, 开校典礼还相继举行了主题演讲、欢迎畅谈、交流会等活动。交流会上, 大韩民国驻大阪总领事金硕基先生、中华人民共和国驻大阪副总领事孔多孜·玉素甫女士以及奈良县立大学校长伊藤忠通先生分别致了欢迎辞。

**개교 인사에 나선 동아시아 서머스쿨 “NARASIA미래학원”의 학원장인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는**

“옛날, 나라(奈良)에 일본의 수도가 있었던 시대에 중국과 한반도에서 많은 문물이 전래되어,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받은 것에 비하면 몇만분의 일에도 지나지 않지만,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나라시아 미래학원을 열게 되었다.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이 좋게 공통의 문화적 자질과 능력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국제사회를 창출하는 인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또, 고향에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명예 학원장인 제79대 수상을 지낸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의 “동아시아의 미래를 담당할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많이 논의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본, 중국, 한국 세나라의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많은 것을 학습하길 바라며, 아울러 미래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아시아지역을 무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지역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대독으로 발표되었다.

그 후 기조강연, 그룹대화, 웰컴 다이얼로그, 교류회가 이어졌다. 교류회에서는 김석기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 윤도즈 유스후 주오사카 중국 부총영사, 이토 다다미치 나라현립대학 학장이 환영인사를 했다.





# アジアの共有文化とその力

亞洲共同文化及其力量 아시아의 문화공유와 그 힘

日中韓の過去には、中華思想、大東亜戦争など、自国を中心にして考え、他の国を従えようとした歴史によるトラウマがある。多くの共有文化を力に、この歴史を超え、本当の意味での新しいアジアの関係を創っ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

日中韓三国には、生活の中で数千年引き継がれてきた共通点が多い。形が違う異質なものを包むことができるふるしき、同じものでも組み合わせによって勝ったり負けたりする巡回性があるジャンケンなどだ。どちらも、西洋近代主義の絶対的な価値観を持つ合理主義とは異なり、異質なものを融合させるハイブリッド型の精神性といってもよい。これからは、西洋の後を追うことは止め、むしろ乗り越えていかないと新しいものは生まれない。中国の陶淵明の詩の世界のように、個別にはなく、宇宙全体を奥ゆかしく包み込むのが、東アジアがすでに共有しているシステムであり、哲学であり、宇宙観であり、環境観であり、これからのアジアを考える文化の基礎になる。

日中韓三国曾经背负着许多历史问题所带来的创伤,他们以本国为中心思考中华思想、大东亚战争等,并试图去统治他国。如今,我们必须借助多种共同文化的力量,超越历史,开创真正意义上的亚洲关系新纪元。

在生活中,日中韓三国有很多传承数千年的共同点。比如,可包裹不同形态各类物品的包袱布,通过不同组合的循环来决定胜负的“石头、剪刀、布”等等。它们都不同于西洋近代主义中绝对价值观下的合理主义,是一种可兼容不同文化的混合型精神。今后,如果我们不停止追逐西洋文化,更甚者是超越西洋文化的话,就不可能产生我们自己的新的东西。正如中国诗人陶渊明诗中的意境一样,不是逐个涵盖,而是将整个宇宙整体包含其中,引人入胜,这正是东亚文化已经共有的一种系统、一种哲学、一种宇宙观、一种环境观,是探讨未来亚洲发展之路的文化基础。

한국, 일본, 중국 세나라에는 중화사상이나 대동아전쟁 등 자국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다른 나라에 추종을 요구했던 과거 역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세나라가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힘으로 삼아 이 트라우마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아시아의 관계를 창출해 가야한다.

한·중·일 세나라에는 생활속에서 수천년 동안 계승되어 온 공통점이 많다. 형태가 다른 이질적인 것을 쌀 수 있는 보자기, 동질적인 것이어도 조합에 따라 이기거나 지는 순회성이 있는 가위 바위 보 등이다. 이 두가지는 모두 서양근대주의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지닌 합리주의와는 달리, 이질적인 것을 융합시키는 하이브리드형 정신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앞으로는 서양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해야 한다는 사고를 갖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시의 세계처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심오하게 감싸안는 것이 동아시아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이자 철학이며, 우주관이자 환경관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아시아를 생각하는 문화의 기초가 된다.

韓國初代文化部長官(大臣) **李 御寧**  
奈良県立大学名誉学長  
梨花女子大学名誉教授

韩国首任文化部长官 **李 御宁**  
奈良县立大学名誉校长  
梨花女子大学名誉教授

한국 초대 문화부장관 **이 어 령**  
나라현립대학 명예학장  
이화여자대학 명예교수

1934年韓国忠清南道生まれ。ソウル大学、同大学院修士、文学博士。韓国の初代文化部長官(大臣)をつとめる。『韓国日報』、『朝鮮日報』論説委員。『中央日報』常任顧問。著書に、個人著作集(30巻)のほか、日本語の著書で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縮み」志向の日本人』、『韓国人の心』、『蛙はなぜ古池に飛び込んだか』、『ふるしき』で読む日韓文化(以上すべて学生社)、『ジャンケン文明論』(新潮社)など。

1934年出生于韩国忠清南道。毕业于首尔大学本科,后进入研究生院深造,获硕士及文学博士学位。韩国首任文化部长官。曾在《韩国日报》、《朝鲜日报》担任社论委员,现为《中央日报》报社常任顾问。著书众多,已出版30卷个人著作集,还写下众多日语著作,包括畅销书《习惯“退缩”的日本人》、《韩国人的心》、《青蛙为何跃入古池》、《从“包袱布”解读日韩文化》(以上均为学生社出版)、《稽拳文明论》(新潮社)等。

1934년, 한국 충청남도 출생. 서울대학교, 동대학원 석사, 문학박사. 한국 초대 문화부장관 역임. 『한국일보』, 『조선일보』 해설위원, 『중앙일보』 상임고문. 저서로는 개인저작집(30권) 이외에 일본어 저서로 베스트셀러가 된 『축소지향의 일본인』, 『한국인의 마음』, 『개구리는 왜 오래된 연못에 뛰어 들어 가는 것인가』, 『보자기로 읽는 한일 문화』(이상 학생사), 『가위 바위 보 문명론』(신조사) 등이 있다.



2011  
7/18  
HOTEL 日航奈良  
HOTEL 日航飯店  
호텔 닛코나라





## 李御寧氏の基調講演を聞いた後、初めてのグループ対話が行われた。

この日のレポートによると、李御寧氏が冒頭に挙げたサルのお話の例え話が印象に残ったとする声が多かった。これは「8匹のサルをひとつの檻の中に入れる。天井にはバナナが下げられ、その横にハシゴがある。あるサルは、ハシゴをのぼって、バナナを取りに行く。ところが、ハシゴの頂点までいくと、檻に水が降ってくるようになっていく。そうすると学習して、誰もハシゴを登っていかなくなる。やがて水が降るといふリスクを経験していないサルもハシゴに登らなくなる。変わりもののサルが登っていきこうとすると、他のサルが攻撃して、止めさせようと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内容だった。「(サルの話は)動物の話だが、実は人類の中で同じことが起こっている」(中国・閻留強)「それぞれの心の中に檻があり、その檻からなかなか脱出できない現状だ」(中国・韓昇良)などの意見があった。

そのほかジャンケン文化、ふろしき文化などについて、「普通に見えることを研究し、自分独自の見方で見る考え方が役に立つ」(中国・黄清清)、「未来を切り開いて

いきたいときは、過去の歴史を理解することの大事さに気づいた」(韓国・ジョンミヨン)など、今後の活動に生かしたいという意欲がうかがえる意見も少なくなかった。さらに、「これからどうやって文化共有していけばよいのかをもっと詳しく知りたい」(韓国・キム ヨンシム)、「日中韓の融合、協力によって生まれたもの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るのか知りたい」(日本・堀部暢一)といった要望もあった。また、第一日目ということで、「ふろしきやジャンケンといったアジアの共有文化について、ほかにも存在すると思うので、ディスカッションを通じ、発見できればと思う」(日本・山本直樹)、「まずはこの未来塾で心を開き、交流を一生懸命することが一番大事」(韓国・ファン ソユン)、「今回の未来塾を通じて個々人の友好を始め、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未来の東アジアの平和と共生の道につながる」(韓国・イム ヨンチョル)など、未来塾へ寄せる期待がうかがえる意見も挙がった。

## 听完李御宁先生的主题演讲后,学员们进行了第一次小组讨论。

从当天的报告来看,很多学员都表示李御宁先生一开始举出的猴子的故事给自己留下了非常深刻的印象。这个故事是说,“将8只猴子关进一个笼子里。笼子顶上吊着一根香蕉,旁边放着梯子。一只猴子爬上梯子去拿香蕉。可笼子的设计是,当猴子爬到梯子顶时,会喷水下来。这样一来,其他猴子见状就不会去爬梯子了。不久之后,没有被水浇过的猴子果然也不去爬梯子了。如果哪只奇怪的猴子想要去爬梯子的话,其他的猴子会一起攻击它,试图阻止它。”有学员认为“(猴子的故事)虽然只是一个动物的故事,但实际上人类的世界里也有同样的现象”(中国・閻留强),还有学员表示“事实上,每个人心中都有一个笼子,我们总是无法从笼子中走出来”(中国・韩昇良)。

此外,对于“石头、剪刀、布”文化、包袱布文化,学员们也各抒己见。有的学员认为“对一些看上去简单的事物提出自己独到的见解,这种研究方式值得借鉴”(中国・黄清清)。“要想开创未来,了解过去的历史也是非常重要的”(韩

国・JEOUNG MI YOUNG),不少学员表示要在将来的研究中学以致用。还有学员“希望详细了解今后要如何共享文化”(韩国・KIM YEON SHIM),并表示“希望具体了解一下由日中韩的兼容合作而产生的东西具体有哪些”(日本・堀部暢一)。

另外,由于是研讨会第一天,很多学员也提出了对未来亚洲研讨会的期望,有学员说“除了包袱布、石头剪刀布等以外,还有很多其他亚洲共同文化,希望能通过讨论来发掘更多”(日本・山本直树),也有学员认为“在此次未来亚洲研讨会上,我们首先是要敞开心扉,尽情交流,这才是最重要的”(韩国・HWANG SO YUN)。“通过此次未来亚洲研讨会架起人与人之间友谊的桥梁并将其发展壮大,这关系到未来东亚的和平与共存”(韩国・LIM YEONG CHEOL)。

## 이어령 선생님의 기조강연을 들은 후 첫번째 그룹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날 리포트에 따르면, 이어령 선생님이 기조강연 모두에서 제시한 원숭이의 예화가 인상적이었다는 감상이 많았다. 이 예화는 한 우리에게 날어진 8마리의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다. '천정에 바나나가 매달려 있고 그 옆에 사다리가 있다. 원숭이 한마리가 그 사다리를 타고 바나나를 가지러 간다. 그런데 사다리의 맨 위까지 올라가면 원숭이 우리에게 물이 뿌려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학습한 원숭이는 아무도 사다리를 타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물이 뿌려진다는 리스크를 경험하지 않은 원숭이도 사다리를 타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원숭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원숭이들이 공격해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숭이 이야기는 동물을 예로 든 것이지만 실은 인간 사회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중국・옌류우창), '각자의 마음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중국・한성량)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장켄(가위 바위 보) 문화, 보자기 문화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을 연구해, 자신의 독자적인 시점에서 고찰하는 사고가 도움이 된다'(중국・황칭칭), '미래를 개척하고자 할 때는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한국・정미영) 등, 앞으로의 활동에 활용하겠다는 의욕을 엿볼 수 있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문화를 공유해 가면 좋을지, 공유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한국・김연심), '한·중·일 세나라의 융합과 협력을 통해 생성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일본・호리베 요이치)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 '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는 보자기나 가위 바위 보 외에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토론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일본・야마모토 나오키), '먼저 이 미래학원에서 마음을 열고 열심히 교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한국・황소윤), '이번 미래학원을 통해 개개인의 우호관계를 시작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의 길로 이어진다'(한국・임영철) 등, 미래학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現代日本の漢字文化  
現代日本的汉字文化  
현대 일본의 한자문화

# パソコン・携帯電話の普及で、

随着电脑与手机的普及，100年后的日语是否会变得面目全非？

# 100年後、日本語は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으로 100년 후 일본어는 변하는가

# 変わってしまうのか。

コンピュータで日本語が表示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漢字は大きく変化した。その変化の中で、人間と文字の関係から、日本における漢字のあり方をもう一度考える。

日本の漢字は、戦後の当用漢字から今の常用漢字まで様々に変遷してきたが、漢字の歴史に最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のはコンピュータによるJIS漢字である。この20余年の間に、パソコンや携帯電話が普及し、コンピュータで日本語が表示されるようになると、常用漢字の3倍もの漢字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同時に、見えないところで新しい字体への変化が生じている。この変化が、100年後の日本語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今こそ、人と文字の関係を深く結び付けながら考えるべきである。

电脑实现日语显示后，汉字发生了很大变化。因此，有必要根据这些变化来重新思考人与文字的关系、以及汉字对日本的意义。

二战结束后至今，日本的汉字经历了多重变迁，从初期的当用汉字体系逐步发展成现今的常用汉字体系。在此变迁过程中，电脑所用的JIS汉字码产生的影响最为深远。近20多年来，随着电脑与手机的普及，日语得以清晰地显示在屏幕上，这使得人们可使用的汉字数量多达常用汉字的3倍。但与此同时，汉字的字体也正在悄然出现新的变化。这种变化会对100年后的日语造成何种影响呢？生活在当下的我们，有必要紧密结合人与文字的关系，认真思考这一问题。

컴퓨터에 일본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되면서 한자가 크게 변화했다. 그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과 문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본에 있어서의 한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한자는 1945년 이후 당용한자에서부터 지금의 상용한자에 이르기까지 변천을 거듭했는데, 한자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컴퓨터에 의한 JIS한자였다. 최근 20여년간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컴퓨터에 일본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상용한자의 3배에 달하는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서체가 등장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변화가 100년 후의 일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인간과 문자의 깊은 관련성을 토대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京都大学大学院教授

**阿辻哲次**

京都大学研究生院教授

**阿辻哲次**

교토대학 대학원 교수

**아쓰지 데쓰지**

1951年大阪市生まれ。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修了。静岡大学、京都産業大学助教授などを経て、現在京都大学大学院人間・環境学研究科教授。文字を中心とする中国文字史を専攻。主に甲骨文字など古代文字学の知見とパソコン・ワープロなどの現代のテクノロジーを媒介として漢字を研究する。文化審議会国語専門部会委員。著書に『漢字のはなし』(岩波書店)、『戦後日本漢字史』(新潮選書)など多数。

1951年出生于大阪市。于京都大学研究生院文学研究科修完博士课程。历任静岡大学、京都产业大学副教授等。现任京都大学研究生院人类・环境学研究所教授。主攻以文字为核心的中国文字史，主要运用甲骨文等古代文字学知识，及以电脑、电子打字机等现代科技为媒介对汉字进行研究。现为文化审议会日语工作部委员。著有《汉字的故事》(岩波书店)、《战后日本汉字史》(新潮选书)等。

1951년, 오사카 시 출생.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시즈오카대학, 교토산업대학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환경학연구과 교수. 전공분야는 문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문자사. 주로 갑골문자 등 고대문자학의 지견과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등 현대 테크놀로지의 매개체로서 한자를 연구. 문화심의회 국어전문부회 위원. 저서로 『한자 이야기』(이와나미쇼텐), 『전후 일본 한자사』(신초선서) 등이 있다.



2011  
7/19<sup>Thu</sup>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 阿辻氏の講義を踏まえて、「印象に残った話は何か」「最もコアなメッセージは何だと思うか」という二つの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まず、皆が一様に感じていたのは、同じ漢字文化の異なる発展である。「三国の漢字は共通点もあるが、各国で便利に変形してきた」(韓国・イム ヨン Chol)、「同じ漢字でもイメージが違うので、それぞれの文化は違った意味を持つ」(中国・劉婷)という感想が挙げられ、そこから「漢字の変化には政治的な思惑も影響し、社会の変化に応じて国の基準は変わるが、その影響は十分に考慮されていない」(日本・若杉真紀子)という意見も出された。しかし、「漢字は文化として東アジアから切り離せない」(日本・辻谷明代)、「国ごとに文化の背景が違うので、新しい物事に直面する時は文化の背景を分析することが重要」(中国・蔡鑫)という前向きな意見も挙げられた。

また、日本の漢字の特異な点として、中国・韓国の参加者から、人名用漢字に関して「人名用漢字が制限され、時代に応じて追加、削減されていることは興味深い」(韓国・ファン ソユン)、「人名に使われる漢字には、生活意識や社会

理念の変化がうかがえる」(中国・宋璐)等の感想が集まった。

さらに、JIS漢字に関して、「第1水準、第2水準があるのはおもしろい」(中国・李鑫)という感想が挙がる一方で、「パソコンや携帯電話の普及に応じて字体の統一も必要だが、国民の知らないままに文字が変化していることは問題である」(日本・森田修平)という問題提起もあった。

そして、三国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という側面からは、「三国が交流する際に便利な漢字を作ってもよいのではないか」(韓国・イ ナムジュ)という意見が出た一方で、「違いがあるからこそ、漢字文化は発展していく。交流のために“同”を求めると同時に“異”も認め、理解し合って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中国・吳欽)という意見が出され、それらを受けた「三国の文化を知るためにも、自国の文化を知る必要がある」(日本・内山怜和)という意見に、三国間の文化交流の重要性を感じる皆の思いが集約されていた。

## 学员们基于阿辻教授的授课内容,分别就“印象最深的部分”及“最核心的观点”两大话题展开了讨论。

学员们感触最深的,首先是汉字文化在不同国家实现了迥然相异的变迁。就此,学员们纷纷发表了自己的感想,“(日中韩)三国使用的汉字虽然有相同的地方,但同时却又各自发展出了更便利的形态”(韩国学员・LIM YEONG CHEOL)、“(在不同的国家,)汉字相同,含义却不同,所以各国的汉字文化都具有独特的意义”(中国学员・刘婷)。同时,也有学员指出,“汉字的变迁也会受政治思潮的影响,国家的标准会随社会的变化而改变,这些影响尚未得到充分认识”。另有学员表示,“汉字文化与东亚密不可分”(日本学员・辻谷明代)、“各国文化背景不同,对于新生的事物,分析其文化背景也至关重要”(中国学员・蔡鑫)。

另外,在讨论日本汉字文化的特点时,中韩两国学员纷纷就日本人名中所用的汉字表示,“人名中使用的汉字受到一定的限制,会随时代的变迁而有所增减,这种现象值得关注”(韩国学员・HWANG SO YUN)、“从人名所用的

汉字中,也可以窥探到生活意识及社会理念的变迁”(中国学员・宋璐)。

在论及JIS汉字码时,有学员表示,“其分为第1水准和第2水准,很有意思”。另有学员指出,“随着电脑及手机的普及,有必要对字体进行统一,文字在民众尚未意识到的情况下悄然发生着变化,这一问题须引起重视”(日本学员・森田修平)。

另一方面,学员们还就日中韩三国之间的交流沟通展开了讨论。有学员提议,“三国可以考虑创造一些便于相互交流的汉字”(韩国学员・LEE NAM JU)。也有学员表示,“正因为存在差异,汉字文化才能不断发展。进行交流时,必须求同存异,达成理解,携手解决问题,这才是最重要的”(中国学员・吳欽)。受此启发,另有学员指出,“为了解日中韩三国文化,首先必须先充分了解本国文化”(日本学员・内山怜和)。学员们都深刻感受到了日中韩三国积极推进文化交流的重要意义。

## 아쓰지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인상적인 이야기는 무엇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라는 두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룹 대화를 나눴다.

먼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느꼈던 것은 같은 한자문화의 이질적인 발전이다. ‘한·중·일 3국의 한자는 공통점도 있지만, 각국에서 환경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되어 왔다.’(한국·임영철), ‘같은 한자라도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중국·류우팅)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한자의 변화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기준도 변하지만 그 영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일본·와카스기 마키코)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자는 문화로서 동아시아에서 분리할 수 없다.’(일본, 쓰지타니 아키코)거나 ‘나라별로 문화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직면할 때는 문화의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중국·차이신)는 적극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일본 한자의 특이한 점으로서, 중국과 한국의 참가자로부터 인명용 한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인명용 한자가 제한돼, 시대에 맞춰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있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한국·황소윤), ‘인명에 사용되는 한자에서

생활의식과 사회이념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중국·송루)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JIS한자와 관련해 ‘제1수준, 제2수준이 있는 것이 흥미롭다.’(중국·리이신)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한편으로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보급에 따른 서체의 통일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가 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일본·모리타 슈헤이)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또, 3국간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라는 측면에서 ‘3국이 교류할 때 편리한 한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한국·이남주)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자 문화는 발전해 간다. 교류를 위해 ‘같은 점(同)’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점(異)’도 인정해, 상호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중국·우친)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에 이어 제시된 ‘세나라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일본·우치야마 레이오)는 의견에는 3국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느낀 참가자들의 일치된 인식을 보였다.



# それぞれのゴールに向かって

朝着各自的目标迈进

각자의 목표를 향하여

未来塾では、最終日にグループでの成果発表を行う。グループ分けや準備の進め方などについてのオリエンテーションがあった。その後、チーフファシリテーター・西村勇也氏がサポートしながら、一人一人が未来塾で達成したいゴールを設定。さらに、それぞれがどんなゴールをイメージしながら過ごしていくのかを全員で共有した。

在学期最后一天，未来塾要举行分组成果发表会。入学指导向学员们介绍了关于分组和准备步骤等情况。随后，在总教导员西村勇也的悉心指导下，每个学员都为自己设定了希望在未来塾达成的目标。不仅如此，学员们还和大家分享了自己的目标，以及如何度过学习生活的设想。

미래학원에서는 마지막날에 그룹별로 성과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룹 분류와 준비 방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그 후 주임 총페실리테이터인 니시무라 유야 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학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각자가 어떤 목표를 이미지하면서 연수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 참가자 전원이 공유했다.

続いて、奈良市国際交流ボランティア協会・佐野純子事務局長から、奈良市内だけでなく、フィールドワークで訪れる十津川村など奈良県全域の魅力について、美しい映像も交えながら説明があった。さらに、日本で生活する上で知っておきたい基本的な情報を教わった。

接下来，奈良市国际交流志愿协会的事务局长佐野纯子边放映风景优美的录像，边为大家介绍了奈良县全境的魅力所在。介绍内容不仅包括奈良市区，还包括进行田野调查的十津川村等地。佐野女士还介绍了日本的一些生活基本常识。

이어서 나라시 국제교류 자원봉사자협회의 사노 준코 사무국장으로부터 나라 시내뿐만 아니라, 필드워크를 위해 방문하는 도쓰카와무라 등 나라현 전역의 매력에 대해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들었다. 나아가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알아 두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학습했다.



2011  
7/19  
Tue.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世界から必要とされる自分となる～新たな価値観を発信せよ  
 如何成为全球亟需的人才——开创全新价值观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새로운 가치관을 발신하자

# 公益資本主義に基づく

基于公益资本主义的全新经营方式从亚洲推广至世界

# 新しい企業経営を

공익자본주의에 의거하는 새로운 기업경영을아시아에서 세계로 확대해 가자

# アジアから世界へ広めよう。

株主の利益追求に偏重する米国を中心とする資本主義には限界がある。中長期的視点を持ち、社員や周囲の人を含む社会への貢献を実現する公益資本主義へのシフトを提案したい。

1985年の創業以来、日米欧にてITなど事業の育成を行い、近年ではアジアのバングラデシュ、アフリカのザンビアなどで事業を起こし現地の自立に向けた活動に取り組んでいる。途上国は今後経済の牽引役になっていく存在だ。途上国をサポートしていくことは、企業自体の利益にもつながる。これからのリーダー役は、柔軟性に富み、公益資本主義の考えに基づく人が適任だ。日本をはじめ東アジアには、これまで欧米主導型だった世界の価値観そのものを変え、安定と平和を実現する力があると考えている。

以美国为中心，偏重于追求股东利益的资本主义正面临发展的瓶颈。从中长期的观点来看，我更愿意倡导兼顾公司职员与周围人群、致力于为整个社会贡献力量的公益资本主义。

自1985年创业以来，在日美欧致力于IT公司的扩大等，近几年我先后在亚洲孟加拉国及非洲赞比亚等国设立公司，并着力于引导当地人的经济独立活动。今后发展中国家将成为拉动全球经济的核心力量，所以支持发展中国家也符合企业自身的利益。今后以能随机应变，具有公益资本主义思想的领导人为最佳人选。我认为以日本为首的东亚地区拥有改变唯欧美独尊的价值观，带领全球实现和平与稳定的力量。

주주의 이익추구에 편중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에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사원과 주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사회에 대한 공헌을 실현하는 공익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제안한다.

1985년 창업 이래 일미구에서 IT등 사업을 육성하고 최근에서는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잠비아 등에서 사업을 일으켜 현지의 자립을 향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앞으로 경제를 견인해갈 존재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기업 자체의 이익으로도 이어진다. 앞으로의 리더로는 유연성을 지닌 공익자본주의의 생각에 의거하는 사람이 적합하다.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는 기존 구미주도형 세계의 가치관을 바꾸고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デフタ・パートナーズ会長  
アライアンス・フォーラム財団 代表理事

## 原文人

德夫塔合伙事业集团执行主席  
同盟论坛财团代表理事

## 原文人

데후타 파트너즈 회장,  
얼라이언스·포럼재단 대표이사

## 하라 쥬지

1952年大阪生まれ、欧米を拠点にする日本人実業家。1984年、デフタ・パートナーズ創業。主に情報通信技術分野でベンチャー企業への出資と経営に携わり、90年代にはポーランド、ピクチャータル、SCO、ユニファイ、トレイデックスなど10数社を会長、社外取締役として成功に導いた。著書に『21世紀の国富論』（平凡社）、『新しい資本主義』（PHP新書）など。

1952年出生于大阪，活跃于欧美市场的日本实业家。1984年创建德夫塔合伙事业集团，主要为信息通信技术领域的风险企业出资并参与经营决策，上世纪90年代曾历任微软竞争对手—Berlan d软件、PictureTel、SCO、UNIFY、及泰得斯等十多家公司的董事长或社外董事，业绩斐然。著有《21世纪国富论》（平凡社）、《新资本主义》（PHP新书）等。

1952년 오사카 출생. 구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실업가. 1984년, 데후타파트너즈 창업. 주로 정보통신 기술분야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폴란드, PictureTel, SCO, 유니파이, 트레이디스 등 십여개사의 회장 및 사외이사로서 성공적으로 경영성과를 도출해 냈다. 저서로 『21세기의 국부론』(헤이문사), 『새로운 자본주의』(PHP신서) 등이 있다.



2011  
7/20  
Wed.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 原氏の講義をふまえ、「新しい価値観を東アジアから世界に向けてどのように展開できるでしょう?」というテーマで対話を行った。

「公益資本主義」という言葉自体を今回初めて知ったという参加者が多く、「公益資本主義という考え方が大きな発見でした」(日本・辻谷明代)、「新しい価値観を得ることができた」(韓国・キム ジウン)、という声が上がった。「公益資本主義という価値観・考え方に魅せられた。先生の熱意がよく伝わってきた」(日本・内山怜和)、「アジアの和を重んじる文化は、金銭至上主義から生まれた貪欲な文化より、平和的に世界が発展していく未来にふさわしい」(中国・呉欽)など高く評価する参加者が多かった一方で、「長期的な研究と実行に移す努力が必要だ」(中国・王容)、というやや懐疑的な意見も出た。今後の自分たちの業務や活動にどう生かすかについて、「中国の孫文の言葉である博愛=人を愛する気持ちで国際交流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中国・劉朴)」、「教員として、学生の成績ばかりを見るのではなく、学生の心身の成長も、ボランティア精神も育てていかなければと思った」(中国・郭旭紅)、

「ボランティア活動に積極的に取り組みたい」(韓国・ジョン ミヨン)、「一つの考え方にとらわれず、新たなアイデアを生み出し、発信していくことが大切だ」(日本・山本直樹)などが挙げられた。また、中国からの参加者から「公益資本主義は中国の社会主義とはどこが違うのか知りたい」(中国・朱海霞)、「中国での公益資本主義の展開の可能性は低いのではないか」(中国・宋璐)という指摘があり、日本の参加者からは、東日本大震災をふまえ「復興の支援の方法としてもマイクロファイナンスの考え方が活用できるのではないか」(日本・若杉真紀子)という意見があった。「原氏の失敗談を聞きたかった」(中国・黄清清)、「公益資本主義の実例を知りたい」(韓国・キム ソンホン)など、今回の講義で知った公益資本主義に可能性を感じ、さらに知識を深めたいという意欲が伝わってきた。

## 学员基于原丈人先生的讲课内容,就“怎样能把全新的价值观,从东亚推广至世界”的课题进行了讨论。

许多学员都表示这是他们第一次接触到“公益资本主义”的概念,大家纷纷称赞道,“公益资本主义的想法让我受益匪浅”(日本学员・辻谷明代)、“了解到一种前所未有的全新价值观”(韩国学员・KIM JI EUN)、“公益资本主义的概念和价值观深深吸引了我,讲师的授课充满激情”(日本学员・内山怜和)、“亚洲文化素来以和为贵,比起金钱至上的贪婪,推动世界和平发展的未来,无疑更符合亚洲文化的特性”(中国学员・呉欽)。但另一方面,也有学员指出,“今后还需开展长期研究,并努力将其付诸行动”(中国学员・王容),从而对授课内容提出了质疑。同时,学员还就如何将课程内容活用于今后的业务及活动各抒己见。有学员指出,“必须秉持孙文所说的‘博爱・大爱’的精神,推动国际交流”(中国学员・劉朴)、“教师不应只关注学生的成绩,更应重视身心发展,培养学生的

奉献精神”(中国学员・郭旭紅)。还有学员表示,“今后会积极参与各类志愿活动”(韩国学员・JEOUNG MI YOUNG)、“不应拘泥于某种概念,而应不断催生全新的创意,这一点至关重要”(日本学员・山本直樹)。另外,学员们还提出了各种问题和建议。中国学员表示,“希望了解公益资本主义与中国社会主义的区别”(中国学员・朱海霞),另有学员指出,“在中国发展公益资本主义的可能性或许微乎其微”(中国学员・宋璐)。日本学员则基于东日本大地震提出,“能否将小额信贷的机制活用于灾后重建”(日本学员・若杉真紀子)。还有学员表示,“想听原丈人老师谈谈自己的失败经历”(中国学员・黄清清)、“希望了解公益资本主义的实际案例”(韩国学员・GIM SEON HONG)等。不少学员都对公益资本主义深感共鸣,显示出希望深入研究的意愿。

## 하라 조지 회장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테마로 대화를 나눴다.

'공익자본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 봤다는 참가자도 많았으며 '공익자본주의라는 사고는 커다란 발견이었다'(일본・쓰지타니 아키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한국・김지은)라는 의견이 있었다. '공익자본주의라는 가치관-사고에 매력을 느꼈으며, 선생님의 열의가 느껴졌다'(일본・우치야마 레이오), '아시아의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는, 금전지상주의에서 생성된 빈약한 문화보다 평화적인 세계가 발전해 가는 미래에 더욱 어울린다'(중국・우친)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강생이 많았다. 그 한편으로 '장기적인 연구와 실행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중국・왕룽), 라는 약간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앞으로 자신들의 업무와 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국의 손문의 말인 박애=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제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중국・류우푸), '교사로서 학생의 성적만을 보지 않고 학생의 심신의 성장과 자원봉사 정신도 육성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중국・

구어쉬훙),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싶다'(한국・정미영), '하나의 사고에 억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일본・야마모토 나오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국에서 참가한 분에게서는 '공익자본주의는 중국의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지를 알고 싶다'(중국・주하이샤), '중국에서 공익자본주의의 전개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중국・송루)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본 수강생으로부터는 동일본 대지진을 생각하면 '복구 지원 방법으로서도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사고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일본・와카스기 마키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라 조지 회장님의 실패담을 듣고 싶었다'(중국・황칭칭), '공익자본주의의 실질적인 사례를 알고 싶다'(한국・김선홍) 등,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공익자본주의에 가능성을 느끼고 지식을 더욱 습득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전해졌다.



基本句型から学ぶ中国語  
 通过基本句型学习中文  
 기본문형으로부터 배우는 중국어

# 中国語は漢字だけの言語。

中文是具有汉字的语言。因此，单词的顺序和发音不同所代表的意义也不同。

# だから、単語の順番や発音で

중국어는 한자만의 언어 그러므로, 단어의 순번이나 발음으로 의미가 바뀐다.

# 意味が変わる。

歴史を背景とした中国語の特徴を理解し、発音の練習を経た後、簡単な単語や文型を見本に基本的な文法を学ぶ、体験的学習を実施した。

中国語は地域や民族で異なる言語を標準化し、画数の多い古い字体を使いやすい簡体字へと変化させてきた歴史がある。また、一文字に一つの音が当てられるが、膨大な漢字が似た発音で混乱しないように、四声(発音の上げ下げ)によって言い分けているのも特徴である。さらに、「て、に、を、は」がなく、一つ一つの文字にしっかりとした意味があるので、言葉の並ぶ順番で文章の意味が形成される。これらのルールに則り、基本文型を見本として、受講者が実際に会話をする形で学習を進めた。

理解中文的历史背景, 经过了发音练习之后, 以简单的单词和句型做为样本, 学习基本文法并实施了体验型学习。

中文在历史上将地域和民族间不同的语言标准化, 将笔画数较多的旧字体变为使用方便的简体字。

同时, 本来是一字发一音, 但为了防止庞大的汉字不因相似的发音而混乱, 通过使用四声(发音的起落)来区别发音也是其特征。

并且, 中文没有助词‘TE, NI, WO, HA (音译)’。因为作为每个文字都有其意义, 由语言的排列顺序形成其文章的意义。遵照这些规则, 以基本句型作为样本, 让听讲生以实际会话的形式, 进行了学习。

역사를 배경으로 한 중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발음의 연습을 경과한 후, 간단한 단어나 문형을 견본으로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고 체험형 학습을 실시.

중국어는 지역이나 민족간에 다른 언어를 표준화하고, 획수가 많은 낡은 글자체를 쓰기 쉬운 간체자에 변화시켜 온 역사가 있다. 또한, 한 문자에 하나의 발음이지만, 방대한 한자가 비슷한 발음으로 혼란하지 않도록, 사성(발음의 오르내림)에 의해 가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게다가, ‘TE, NI, WO, HA (음역)’의 발음이 없고, 하나하나의 문자에 확실한 의미가 있어서, 언어가 늘어서는 순번으로 문장의 의미가 형성된다. 이런 룰에 준하고 기본문형을 견본으로서, 수강자가 실제로 회화를 하는 형으로 학습을 진척시켰다.

京劇俳優・画家・中国語講師

盧思

京劇演員・画家・中文講師

卢思

경극배우·화가·중국어강사

루시

中国北京生まれ。中国戯曲学院京劇演技学科、中国中央美術学院中国花鳥画専科卒業。1997年から東京在住。東京芸術大学大学院日本画修士課程修了。NHK中国語会話で6年にわたりレギュラー出演。現在、日本で中国語を教えるかわら、京劇公演、日本画個展を毎年行うなど幅広く活躍。

中国・北京出生。中国戯曲学院京劇表演专业、中国中央美术学院中国花鸟画专业毕业。从1997年开始居住于东京。东京艺术大学大学院日本画硕士课程毕业。在NHK中文节目里，连续6年正规演出。现任教中文的同时，每年举行京剧公演，日本画个人展等在日本活跃の领域较为广泛。

중국·베이징 출생. 중국戯곡학원 경극연기학과, 중국중앙미술학원 중국화 화조학과 졸업. 1997년부터 동경에 거주.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일본화 석사과정 수료. NHK중국어 회화에서 6년에 걸쳐 레귤러 출연. 현재는 일본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경극공연 일본화 개인전을 매년 행하는 등 폭넓게 활약.

- 講師を交えて、受講生同士で簡単な挨拶や自己紹介を行った。
- 听讲生们之间, 也包括讲师进行了简单的打招呼和自我介绍。
- 감사도 계시고, 수강생들이 간단한 인사나 자기소개를 했다.

- 基本的な文法を学びつつ、単語や基本文型を覚えることを目標として学習した。
- 在学习基本文法的同时, 以背诵单词和基本句型作为目标进行了学习。
-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면서, 단어나 기본문형을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했다.

2011  
7/20  
Wed.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京劇を紹介したテレビ番組を鑑賞し、講師より京劇に関する説明を受けた。

○欣赏了介绍京剧的电视节目, 由讲师讲解了有关京剧的说明。

○경극을 소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감상하고, 강사로부터 경극에 관한 설명을 받았다.

○中国語の特徴を知り、四声の基本的な発音を練習した。

○了解中文的特征, 练习了四声的基本发音。

○중국어의 특징을 알고, 사성의 기본적인 발음을 연습했다.



韓国語の特徴を知り、ハングル文字に親しむ  
了解韩语的特征，亲近韩文  
한국어의 특징을 알고, 한글 문자를 즐긴다

# ハングルは、民衆のために作られた 世界に類を見ない文字である。

韩文是为了民众而制作的文字，是世界上独一无二的文字。

한글은 민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문자다.

韓国語の歴史的背景を理解し、文法、語彙、音韻、社会言語学的な特徴を把握して、ハングルの仕組みを学び、基本的な単語、挨拶などを覚える受講者参加型の授業を展開した。

韓国と中国、日本との関係の歴史的背景から、日本語、中国語との共通点と相違点に着目し、同じような意味、似たような発音の単語を入り口として韓国語に触れる受講生参加型の授業が行われた。また、韓国語の文法は日本語と構造上の共通点が多いが、表記法のハングルは、民衆のために意図的に作られた表音文字という世界的にも珍しい特徴を持っている。そのため、ハングルの仕組みは覚えやすいと言われるので、受講生もこれを理解し、読み、書きを体験しながら学習を行った。

理解韩语的历史背景，把握语法、词汇、音韵、社会语言学的特征，学习韩文的结构，展开了记住基本单词、问候语等听讲生的参加型授课。

从日·中·韩三国关系的历史背景来看，着眼于日语和中文的共同点和不同点，把有同样的意义且发音相似的单词作为入口，进行了能接触到韩语的听讲生参加型授课。

同时，韩语的文法与日语在构造上共同点较多。不过，韩文的标记法，是为了民众而特意制作的称为表音文字的韩语，这一特点在世界上也比较罕见。为此，韩文的结构一般认为容易记。听讲生也理解这点，通过体验读和写来进行学习。

한국어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문법, 어휘, 음운, 사회언어학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한글의 구조를 배우고, 기본적인 단어와 인사 등을 기억하는 수강자 참가형 수업을 전개했다.

한·중·일 3개국과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일본어, 중국어와의 공통점과 상위점에 착안하고, 같은 의미,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입구로서, 한국어를 접촉하는 수강생 참가형의 수업이 행하여졌다. 또한, 한국어의 문법은 일본어와 구조상의 공통점이 많지만, 표기법의 한글은 민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표음문자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진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한글의 구조는 기억하기 쉽다라고 전해지므로, 수강생도 이것을 이해하고, 읽고 쓰기를 체험하면서 학습을 했다.



- 韓国からの受講生も手伝って、それぞれハングルで名前を書くことに挑戦した。
- 来自韩国的听讲生也帮忙，各自挑战于用韩文写名字。
- 한국에서 온 수강생도 돕고, 각자 한글로 이름을 쓰는 것에 도전했다.



- ハングルの仕組みを学び、基本的な発音を学習。皆で挨拶を練習した。
- 学习了韩文的结构与基本发音之后，大家一起练习了打招呼。
- 한글의 구조를 배우고, 기본적인 발음을 학습. 모두와 함께 인사를 연습했다.



九州産業大学准教授

長谷川由起子

九州产业大学 准教授

长谷川由起子

규슈산업대학 준교수

하세가와 유키코

大阪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朝鮮語学科卒業、同大学大学院東アジア語専攻(修士課程)修了。言語・文化学修士。2010年10月から3月、NHKラジオ・ハングル講座講師をつとめる。著書に「韓国語スタート!」(アルク)がある。

大阪外国語大学外语系朝鲜语专业毕业。大阪外国語大学大学院东亚语专业(硕士课程)毕业。语言・文化学硕士。从2010年10月开始到3月，从事于NHK无线电韩文讲座的讲师工作。著作有「开始韩语!」(ALC)。

オサカ外国語大学 外国語学部 朝鮮語学科 准助。オサカ外国語大学 大学院 東アジア語専攻(修士課程) 修士。言語・文化学修士。2010年10월부터 3월까지, NHK라디오·한글 강좌 강사로 근무했다. 저서로는 「한국어 스타트!」(아부쿠)가 있다.



- 韓国と中国、日本との関係から韓国語とはどのような言語なのかを学んだ。
- 由日·中·韩三国的关系，学习了韩语是怎样的语言。
- 한·중·일 3개국과의 관계로부터 한국어는 어떤 언어인지를 배웠다.



- 日本語、中国語と比較しながら、似ている単語を数多く覚えるのがポイント。
- 对日语和中文进行比较的同时，记住大量的相似的单词是关键。
- 일본어, 중국어와 비교하면서, 비슷한 단어를 많이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



奈良発のシルクロード — 八世紀における東アジアのシルク交易

起自奈良的丝绸之路 — 八世纪的东亚地区丝绸贸易

나라에서 시작된 실크로드 ~8세기의 동아시아의 실크 교역

# 東アジア的未來を創造するには、

开创东亚的未来 必须重构基于东亚视野的历史

# 東アジア的視野で歴史を

동아시아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시야로 역사를 재구축 해야 하다.

# 再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シルクロードは西洋の文明観を構築する概念であり、東洋では西洋とは違うシルクの交易が行われていた。国際化する未来に向けて、東洋の歴史を複眼的に捉える必要性を説く。

シルクロードの名称は19世紀にヨーロッパで生まれ、異文化交流の代名詞とされてきた。しかし、それはシルクを輸入に頼った西洋の概念であり、養蚕技術を持っていた東アジアでは、シルクが貨幣として流通していた。日本には、奈良を始発とする「海のシルクロード」を通じ、中国に「調布」を贈り、渤海や新羅ともシルクで交易をした歴史があ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歴史を鏡として、今、東アジア的な未来を求めるならば、我々は常識を打破した東アジア的視野で複眼的に歴史を再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丝绸之路”是构建西方文明观的概念，其实东方曾开展过与西方迥异的丝绸贸易。面向未来的国际化，有必要多角度审视东方的历史。

丝绸之路的名称诞生于19世纪欧洲，其后被视为文化交流的代名词。西方的丝绸依靠从东方进口，因而丝绸之路终究是西方的概念。而在拥有养蚕技术的东亚地区，丝绸曾经作为货币流通。日本通过以奈良为起点的“海上丝绸之路”，向中国送“调布”（以税金上缴的织物），并与渤海及新罗进行丝绸贸易。如果我们以上述历史为鉴，摸索东亚的未来方向，我们就必须打破常识，多角度重构基于东亚视野的历史。

실크로드는 서양의 문명관을 구축하는 개념이며, 동양에서는 서양과는 다른 실크의 교역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국제화하는 미래를 향해 동양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실크로드의 명칭은 19세기에 유럽에서 생겼고, 이문화교류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실크를 수입에 의지한 서양의 개념이며, 양잠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동아시아에서는 실크가 화폐로서 유통하고 있었다. 일본에는 나라를 시발로 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초노후' (調布/조세로 바치는 직물) 를 보내고, 발해나 신라와도 실크로 교역을 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거울로, 지금 동아시아의 미래를 요구하면, 우리들은 상식을 타파한 동아시아적 시야로 복안적으로 역사를 재구축 해야 하다.



2011  
7/21<sup>th</sup>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北京大学教授  
浙江工商大学日本文化研究所所长

## 王 勇

北京大学教授  
浙江工商大学日本文化研究所所长

## 王 勇

베이징대학 교수  
저장성공상대학 일본문화연구소 소장

## 왕 용

1956年中国浙江省平湖市生まれ。北京外国语学院大学院日本文化専攻コース修了。国立総合研究大学院大学より「国際日本研究」博士号を授与。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早稲田大学、国文学研究資料館、米国コロンビア大学などの客員教授を歴任。専門は古代中日文化交流史。「ブクロード」を提唱し、書物を手がかりに東アジア独自の文化交流モデルの構築に力を注ぐ。

1956年出生于中国浙江省平湖市。于北京外国语大学研究生院修完“日本文化”专业课程，获日本国立综合研究大学院大学“国际日本研究”博士。曾于国际日本文化研究中心、早稻田大学、日本国文学研究资料馆及美国哥伦比亚大学等出任客座教授。主攻古代中日文化交流史。提出“书籍之路”的概念。致力于以书籍为线索建构东亚独有的文化交流模式。

1956년 중국 저장성 평호시 출생. 베이징 외국어학원 대학원 일본문화 전공 코스 수료. 국립 종합 연구대학원 대학에서 국제 일본 연구의 박사호를 취득. 국제 일본문화 연구센터, 와세다대학 국문학연구 자료관, 미국 콜롬비아대학 등의 객원교수를 역임. 전문은 고대 중일문화교류사. '북로드'를 제창하고, 서적을 단서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문화교류 모델의 구축에 주력한다.





## 王氏の講義を基に、「シルク交易の新しい可能性から、東アジアの文化と文化交流に対して何を学んだか」という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まず、シルクが中国だけの輸出品ではなかったという歴史を知って、「交流は一方通行ではなく、優劣なく互いに吸収し、融合して循環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中国・華珊)、「シルクが貨幣の代わりに使われていたのは興味深い。三国のつながりを再確認した」(韓国・イ ジョンウォン)など、歴史の認識を新たにしたいという意見が多く挙げられた。その上で、「当然と思うことも見直して、立体的に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黄清清)、「文化は創造するだけではなく、飲み込んで、噛み砕いて、自分のものにして吐き出すことが重要だと知った」(韓国・ジョン ミヨン)など、歴史への向き合い方や文化の捉え方を学んだという意見も出された。また、シルク交易が東アジアの交流を活性化させた点について、「現在のシルクロードとなるべく、シルクに代わるものは何か」(日本・堀部暢一)、「東洋だけが養蚕技術を知っていたことに東アジアのつながりを感じる。このような共通のものを発見できないか」(日本・山本直樹)とい

う問題提起があり、それに対して「現代の国際通貨は文化である」(韓国・キム ジュングォン)、「現代のシルクロードは青少年の交流を活性化させること」(韓国・イム ヨンチョル)などの意見が挙がった。さらに、「民間企業の協力を得られるような、青少年が参加できる使節団の派遣はできないか」(日本・若杉真紀子)という提案もあった。

そして、それらの意見を受け、今後の課題として「少子・高齢化等の共通する社会問題の解決に対して、相互の対策の良い点を自国に受け入れ、独自のものにすることが必要」(韓国・キム ヨンシム)、「複眼的に視野を広げて幅広く問題を見なければならぬ」(中国・劉朴)など、学ぶ姿勢に言及しながら、「多方向からの往来によって交流が形成された伝統を継承し、より広い範囲で交流することが21世紀を担う我々の使命である」(中国・李梅)など、東アジアの交流拡大への期待を込めた強い意志が次々に述べられた。

## 基于王教授的讲座,学员们就以下主题进行了分组讨论:“对于东亚文化与文化交流而言,丝绸贸易蕴含的新的可能性意味着什么?”

首先,了解到丝绸并非中国独有的出口商品,许多学员表示对历史有了新的认识:“我明白了交流并非单向进行,而是取长补短,相互融合循环的过程”(中国・华珊)、“丝绸曾作为货币使用,这一点耐人寻味。从中让人再次认识到三国之间的联系”(韩国・LEE JEONG EON)。在此基础上,很多学员表示他们从中学到了如何对待历史和文化的方法:“必须改变想当然的看法,进行多角度研究”(中国・黄清清)、“我们不仅创造文化,还吸收消化文化,然后将其内化为自身的东西,再传播出去,这也很重要”(韩国・JEOUNG MI YOUNG)。此外,就丝绸贸易促进东亚地区交流的问题,有学员提出问题说:“若重建当代丝绸之路,替代丝绸的应该是什么呢?”(日本・堀部暢一)、“只有东方国家才拥有养蚕技术,令人感受到东亚之间的紧密联系。我们能否发现更多相通之处呢?”(日本・山本直樹)。对此,有意见认为:“现代的国际货币是文化”

(韩国・KIM JUN KWON)、“现代丝绸之路应促进青少年交流”(韩国・LIM YEONG CHEOL)。另外,还有学员提议“我们是否可以与民间企业合作,互派有青少年参加的使团”(日本・若杉真紀子)。

综合以上意见,学员们提出了未来应加以考虑的课题:“三国面临着少子化与老龄化等类似社会问题,为了解决这些问题,各国应相互学习行之有效的措施,并将其发展成自己独有的东西”(韩国・KIM YEON SHIM)、“我们必须扩展视野,多角度看待更广泛的问题”(中国・刘朴)。除了上述提倡相互学习的观点,还有学员表达了扩大东亚地区交流的强烈意愿:“继承多向交流所形成的传统,将交流拓展到更广泛的范围是肩负21世纪的我们这一代的使命”(中国・李梅)。

## 왕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실크 교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문화와 문화교류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테마로 그룹 대화를 나눴다.

우선, 실크가 중국만의 수출품이 아니었다고 하는 역사를 알고, ‘교류는 일방 통행이 아니고, 우열 없이 서로 흡수하고, 융합해서 순환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 (중국·화아산), ‘실크가 화폐의 대신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흥미 깊다. 3국의 관계를 재확인했다’ (한국·이정연) 등, 역사의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재검토하여, 입체적으로 연구 해야 한다’ (중국·황칭칭), ‘문화는 창조할뿐만 아니라, 이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토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정미영) 등, 역사에 마주 향하는 방법이나 문화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실크 교역이 동아시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 점에 대하여, ‘현재의 실크로드가 되기 위해, 실크를 대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호리베 요이치), ‘동양만이 양잠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것에 동아시아의 유대를 느낀다. 이러한 공통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가’ (일본·아마모토 나오키)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그것에 대해 ‘현대의 국제 통화는 문화다’ (한국·김준권), ‘현대의 실크로드가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 (한국·임영철) 등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사절단의 파견은 할 수 없는가’ (일본·와카스기 마키코)라는 제안도 있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과제로서 ‘소자·고령화 등이 공통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상호의 대책면에서 좋은 점을 자국에 받아들여 독자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 (한국·김연심), ‘복안적으로 시야를 넓혀 폭넓게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류우푸) 등, 배우는 자세를 언급하면서, ‘다방향면의 왕래에 의해 교류가 형성된 전통을 계승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교류하는 것이 21세기를 짊어지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중국·리이메이) 등, 동아시아의 교류 확대에의 기대를 담은 강한 의지가 잇달아 발표 되었다.



地球環境と森里海連環学～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を見据えて  
 地球环境与森林城乡海洋连环学——展望东日本大地震的重建复兴  
 지구환경과 삼리해연환학～동일본 대지진에서 부흥을 향하여

# アジアから“つながり”の

向世界推广发源于亚洲的“关联型”价值观，携手打造可持续发展的21世纪。

# 価値観を世界へ伝え、

아시아로부터 '이어짐'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고 지속적인 21세기 가치관을 구축한다.

# 持続的な21世紀を構築する。

地球を構成する陸域と海域の関連を科学的に解明し、本来のつながりを再生して環境問題を解決する「森里海連環学」を理解し、東日本大震災の復興のモデルとして提案した。

世界が抱える食料、エネルギー、環境等の問題はすべて複雑につながっており、個別の解決ではなく、同時に解決する方法を考えなければ根本的な解決にはならない。そこで、本質的な問題として、地球の循環器系と言える水循環の側面から地球環境を研究する「森里海連環学」が提唱された。この考え方によって陸域と海域のつながりを科学的に捉え、開発の下に断たれた本来のつながりを再生することが、東日本大震災の復興への貢献となり、持続的な21世紀を築くベースになることを学んだ。

本课程以科学的方式阐明地球的两大组成部分——陆地与海洋的关联，让学员了解旨在通过重建海陆关联来解决环境问题的“森林城乡海洋连环学”，并由此论及东日本大地震的重建模式。

全世界共同面临的食物、能源、及环境问题环环相扣，复杂地纠缠在一起。因此，我们不能拘泥于单个问题，必须思考一举击破的办法，否则就不可能从根本上解决问题。正因为此，“森林城乡海洋连环学”应运而生，这门新学科着眼于问题的核心——地球水循环系统，并由此研究地球环境问题。根据森林城乡海洋连环学的理念，人们应科学地认识陆地与海洋的关联，并重建因开发而切断的联系，这不仅能为东日本大地震的重建贡献力量，还将为构筑可持续发展的21世纪奠定基础。

지구를 구성하는 육역과 해역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해 본래의 연관성을 재생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삼리해연환학'을 이해하고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모델로서 제안했다.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식료,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는 모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개별적인 해결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로서 지구의 순환기계라고 할 수 있는 물순환 측면에서 지구환경을 연구하는 '삼리해연환학'이 제창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토대로 육역과 해역의 연관성을 과학적인 견지에서 개발에 의해 단절된 본래의 연관성을 재생하는 것이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에 공헌하는 것이 되며 지속적인 21세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京都大学名誉教授  
 財国際高等研究所チーフリサーチフェロー

## 田中 克

京都大学名誉教授  
 (財)国際高等研究所主任研究员

## 田中 克

교토대학 명예교수  
 (재)국제고등연구소 주임연구위원

## 다나카 마사루

1943년滋賀県大津市生まれ。1971年京都大学農学博士課程修了。京大農学研究科教授などを経て、2010年より財国際高等研究所フェローに就任。NPO法人ものづくり生命文明機構理事。NPO法人森は海の恋人理事。40年間、海の魚の子供の生態や生理に関する研究に携わり、2003年に「森里海連環学」を提唱。現在、森と海のつながりより、有明海の再生と気仙沼唐桑地区の復興に取り組む。

1943年出生于滋贺县大津市。1971年于京都大学修完农学博士课程。其后，历任京都大学农学研究科教授等，2010年起就任(财团)国际高等研究所主任研究员，并兼任非营利组织法人“制造业生命文明机构”理事、非营利组织法人“森林是海之恋人”理事。40多年来，潜心研究海洋幼鱼的生理及生态体系，并于2003年提出“森林城乡海洋连环学”理念。目前正运用森林与海洋之间的联系，致力于重建“有明海”的生态系统，并积极参与宫城县气仙沼市唐桑地区的复兴活动。

1943년 시가현 오쓰 시 출생. 1971년 교토대학 농학박사과정 수료. 교토대학 농학연구과 교수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재)국제고등연구소 주임연구위원. NPO법인 모노쓰쿠리 생명문명기구 이사. NPO법인 모리의 우미노 고이비토(法人森は海の恋人) 이사. 40여년간에 걸쳐 바다 물고기 새끼의 생태와 생리에 관해 연구해 2003년 '삼리해연환학(森里海連環学)' 제창. 현재, 삼림과 바다의 연결을 통해 아리아케해의 재생과 개센누미 가라쿠와지구의 재건을 도모한다.







**田中氏の講義を踏まえ、「人と自然のつながりについて、何に関心を持ったか」「東アジアから“つながり”の価値観を伝えるために、どのようなアイデアがあるか」という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まず、「森里海連環学」について、多くの受講生が「地球は一つの生命体であること」に共感し、「熱帯雨林はホモ・サピエンスの故郷であり、自然破壊にもっと関心を寄せ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キム スヒョン）、「人と自然のためと想っていたことが実は自然を破壊していたことに気づいた」（韓国・キム ソンホン）などの感想を述べた。そして、「人口問題と環境問題は密接につながっている」（中国・濮兆桂）、「森里海で最も重要なのは里＝人間の生活空間であり、それが自然環境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中国・閻留強）等、問題の本質に言及した。

それに対して、「人間は自然を破壊したが、自然を再生できるのも人間。持続的発展のためにも、森里海のような循環をつくる必要がある」（日本・王磊）、「森は海の恋人運動は新鮮なアイデアである」（韓国・イ カンヨル）など、問題解決の方向性が示されたが、その一方、「資源開発は必要なので、経済発展との

調和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張瑜）という問題提起があり、「自然保護は大切だが、そのために経済発展を止めることも難しい」（日本・堀部暢一）、「自然環境保全と生産活動を両立させる方法が必要」（中国・王容）等の意見が交わされた。

そこで、問題解決に向けては、「環境問題を全人類の問題として重視する」（中国・毛玉珩）、「日中韓三国の連携は不可欠なので、国民の環境意識の醸成が必要」（日本・趙冰）など、国を超えた連携の必要性が挙げられ、具体的な取り組みとしては、「地球が循環系であることを若い人たちに教える」（中国・郭旭紅）、「環境保全は子どもの頃から教育が必要」（中国・劉朴）、「東アジアから“つながり”の価値観を伝えるには、共通認識を持つことが大切なので、東アジアのリーダーが集まる場で議論し、互いに理解を深める」（韓国・ジョンミヨン）等、意識を高める教育や場の必要性が挙げられた。

**学员们基于田中讲师的授课内容, 分别就“人与自然的关联中最感兴趣的问题”及“应如何推广源自东亚的‘关联型’价值观”两大话题展开了讨论。**

许多学员都对森林城乡海洋连环学中“地球也是一个生命体”的理念产生共鸣, 并纷纷表达了自己的感想。有学员表示, “热带雨林是智人的故乡, 我们必须对自然所遭受的破坏予以更多的关注” (韩国学员·KIM SOO HYEON), “这让我意识到, 过去我以为都是为了人和自然所做的事情, 事实上却是在破坏大自然” (韩国学员·GIM SEON HONG)。另有学员一针见血地指出, “人口问题与环境问题息息相关, 密不可分” (中国学员·濮兆桂), “在森林城乡海洋连环学中, 最须引以为重的就是城乡, 因为这是人类生活的地方, 对自然环境的影响也最大” (中国学员·阎留强)。

另外, 有学员就解决问题的途径指出, “虽然人类破坏了自然, 但能够拯救自然的也只有人类。为了实现可持续发展, 确实有必要建立起森林、城乡、及海洋的循环” (日本学员·王磊), “森林是海之恋人”的活动很有创意” (韩国学员·LEE KANG LYUL)。但同时, 也有学员表示, “资源开发必不可少, 所以必须考虑如何与

经济发展取得平衡” (中国学员·张瑜), 从而提出了今后有待解决的课题。另有学员指出, “保护自然确实意义重大, 但要停止经济发展恐怕也很难” (日本学员·堀部暢一), “必须摸索出既能保护自然又不妨碍生产活动的解决办法” (中国学员·王容)。

为了解决这一棘手的课题, 学员们提及了跨国合作的重要性。有学员表示, “必须将环境问题看作是全人类共同面临的问题加以重视” (中国学员·毛玉珩), “日中韩三国必须通力合作, 努力提高民众的环保意识” (日本学员·赵冰)。作为具体的解决对策, 学员们提出了通过教育提高环保意识、以及创造研讨机会等应对办法。有学员表示, “应该让年轻一代认识到地球是一个循环系统” (中国学员·郭旭红), “必须从小开展环保教育” (中国学员·刘朴), “为了将‘关联型’价值观从东亚推广到全世界, 东亚各国应先就这一理念达成共识, 各国领导人有必要聚在一起磋商研讨, 加深相互之间的理解” (韩国学员·JEOUNG MI YOUNG)。

**다나카 교수의 강의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에 관련해 어떤 점에 관심을 가졌는가’, ‘동아시아에서 ‘연결성’의 가치관을 발신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라는 테마로 그룹대화를 가졌다.**

우선, ‘삼리해연환학’에 대하여 많은 수강생이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에 공감했으며, ‘열대우림은 호모사피엔스의 고향이므로 자연파괴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한국·김수현), ‘인간과 자연을 위한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한국·김선홍)는 등의 감상이 있었다. 그리고 ‘인구문제와 환경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중국·푸자우구이), ‘삼림과 취락과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락=인간의 생활공간이며, 그것이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중국·옌류우창)는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간은 자연을 파괴했지만 자연을 재생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삼림·취락·바다의 순환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일본·왕레이), ‘삼림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운동은 신선한 발상이다.’(한국·이강열)라고 하는 등 문제해결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지만, 한편 ‘자원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발전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중국·장위)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자연보호는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경제발전을 멈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일본·호리베 요이치), ‘자연환경보전과 생산활동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중국·왕룽)등의 의견도 나왔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전 인류의 문제로서 중시한다.’(중국·마오위형), ‘일정한 3국의 연대는 불가결하기 때문에 국민의 환경의식 함양이 필요하다.’(일본·조우빙)등, 국가를 초월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구체적인 대응으로서 ‘지구가 순환계라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중국·구어쉬홍), ‘환경보전은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중국·류우푸), ‘동아시아에서 ‘연관성’의 가치관을 발신하기 위해서는 공통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아시아의 리더가 모이는 곳에서 논의하고 상호이해를 돈독히 해야 한다.’(한국·정미영)는 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集落再生～人とのつながりと農的な営みの継続  
村落复兴——人与人的牵绊与农业的继承  
취락재생 ~인간과의 연계성과 농적생활의 지속

# 共に立ち上がる

借助当地人共同奋进的力量，实现“中山间地区”的复兴。

# 人の力が、

함께 일떠서는 인간의 힘이 준산간지역의 재생을 지원한다.

# 中山間地域の

# 再生を支援する。

東日本大震災の復興の一つの方向として、中山間地域の振興を支援する集落支援員制度の取り組みが注目されている。コミュニティ再生から生まれたこの制度の可能性を考える。

今、日本では、過疎化による消滅の危機に瀕する中山間地域に人を配置し、持続的な暮らしを支援する集落支援員制度の試みが行われている。これは中越地震の復興から生まれた制度で、ヒューマンな側面からの支援のために、支援員が仮設住宅の生活の中でコミュニティや働く場としての農園の再生等を推進した。その経験を基に、支援員は被災者が集落に戻る際に共に入り、地域振興を支援している。中山間地域の再生と共に、東日本大震災の復興でも期待されるこの人的支援について学んだ。

最近,协助“中山间地区”复兴的村落协助员制度,作为东日本大地震的重建方式之一备受瞩目。本课程从社区重建的角度出发,探讨这一制度的潜力。

近年来,日本正在尝试推广村落协助员制度,向人口严重流失、濒临荒废的“中山间地区”输送人员,协助当地人过上安定的生活。这项制度诞生于中越地震后的重建工作,为向灾民提供更加人性化的援助,协助员会帮助居住在临时住宅内的灾民重建社区,并鼓励他们建造农园,以农业为生。在积累一定经验后,协助员会随灾民一起重返村落,帮助他们实现地区的复兴。通过本课程让学员学习这项人员援助制度,此制度不仅有助于“中山间地区”的复兴,同时也将为东日本大地震的重建工作指明方向。

동일본 대지진 재건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준산간지역의 재건을 지원하는 취락지원인제도가 주목되고 있다. 커뮤니티 재건을 통해 탄생한 이 제도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과소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준산간지역에 사람을 배치해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취락지원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주에쓰지진 복구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서, 지원인이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커뮤니티와 직장으로서의 농원의 재생 등을 지원한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원인은 이재민이 취락으로 돌아갈 때, 함께 마을에 들어가 지역 재건을 지원하고 있다. 준산간지역의 재생과 함께,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서도 기대되고 있는 이 인적지원에 대해 배웠다.

奈良県立大学 地域創造学部講師

## 古山周太郎

奈良県立大学 地域創造学部講師

## 古山周太郎

나라현립대학 지역창조학부 강사

## 고야마 슈타로

2003年東京工業大学大学院情報理工学研究科博士課程卒業。2008年より現職。専門分野は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2007年より東洋大学福祉社会開発研究センター「中山間地域の振興に関する調査研究-中越地震の被災地・長岡市山古志地区の復興計画」の客員研究員として、震災復興プロセスにおける人的支援について調査研究を行う。2009年より奈良県曽爾村の定住促進事業で集落構想づくりに取り組む。

2003年于东京工业大学研究生院信息理工学研究科修完博士课程。于2008年进入奈良县立大学地域创造学部担任讲师。主攻社区规划。2007年成为东洋大学福祉社会开发研究中心“中间及山间农业地区(指城市及耕地以外的地区)振兴调查研究—中越地震灾区长冈市山古志地区重建计划”项目客座研究员。就地震重建过程中的人力援助方式展开调研。2009年起,参与奈良县曾尔村定居推进项目,与当地居民共同描绘村落蓝图。

2003년 도쿄공업대학 대학원 정보이공학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2008년부터 현직 전문분야는 커뮤니티 디자인. 2007년부터 도쿄대학 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 「산간지역의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주에쓰지진의 피해지·나가오카 시 야마코시 지구의 부흥계획」의 객원연구원으로 재해부흥과정의 인적지원 방법에 대해 조사·연구. 2009년부터 나라현 소니무라의 정주촉진사업에 참가해 취락구상에 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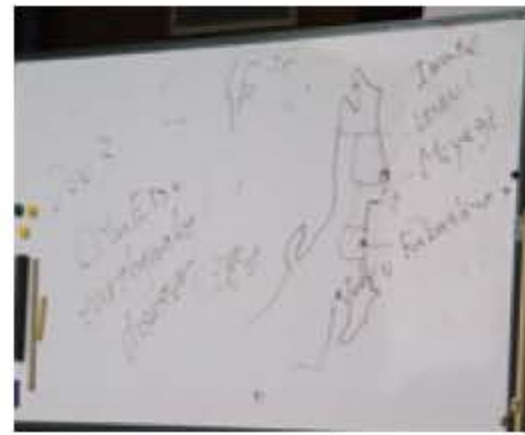


2011  
7/22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 受講生レポート

古山氏の講義を踏まえた受講者のレポートによると、まず、震災復興支援について、「仮設住宅を建設するだけでなく、心の支援も重要だとわかった」(中国・吉明)、「交流する場所も必要であることを知った」(韓国・ファン ソユン)、「再生には経済支援の上に文化を含めた全体的なサポートが必要だと思った」(日本・リュウ ソンウク)など、ソフト面での支援の重要性を改めて認識したという感想が多く寄せられた。同時に、「仮設住宅は復興すると存在価値がなくなるが、リサイクルできるのか」(中国・華珊)、「仮設住宅が被災者に配慮してつくられているのは興味深い。使い続けられるとよいと思う」(中国・朱海霞)など、復興後の仮設住宅の処分にに対する意見も挙げられた。

そこから展開される中山間地域への支援についても、「中山間地域の集落が消滅するという問題に対して、ハード面だけではなく、人的な集落支援員の育成等にも投資が必要だと知った」(日本・森田修平)、「人と人のつながりや故郷への思いを尊重した支援の必要性を感じた」(日本・若杉真紀子)、「長期

的な視点で、復興後は被災前より良い地域運営をすることを考慮に入れながら支援することが必要だとわかった」(日本・辻谷明代)などの意見が出され、「中国も農村過疎化の問題に直面しており、過疎化防止に地域創造の知識を活かしたい」(中国・宋璐)という感想も述べられた。

さらに、「地域支援は政府だけではなく、全国民の責任。都市と農村部の交流の場をつくり、農村部の発展を活発にすることが必要」(中国・張瑜)、「問題解決には各方面から情報を集めて知恵を絞ら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蔡鑫)、「集落再生は人と自然が調和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調和すれば人は幸せになる」(韓国・イ カンヨル)という意見や、「復興のノウハウを外国と共有しているのか」(日本・山本直樹)、「人間だけではなく、動物や植物への対応も知りたい」(韓国・キム ジウン)などの疑問・質問も挙げられた。そして、「復興の路はまだ長いと思うが、瓦礫の除去や原発危機が一日でも早く解決できるよう期待している」(中国・韓昇良)という願いが添えられた。

## 学员報告

学员们基于古山讲师的授课内容,各自提交了一份小报告。在报告中,学员们就地震后对重建复兴工作的支持问题指出,“不仅要建造临时住宅,更应该帮助灾民走出心理阴影”(中国学员·吉明)，“这让我意识到,灾民也需要交流沟通的场所”(韩国学员·HWANG SO YUN)，“我认为,重建不仅需要经济援助,更需要兼顾文化等各个方面的全方位支援”(日本学员·柳成煜)。许多学员都从课程中重新认识到了软件援助的重要意义。同时,还有学员就临时住宅的收尾问题表示,“重建复兴走上正轨后,临时住宅也就失去了存在的价值,不知能否设法加以再利用呢”(中国学员·华珊)，“临时住宅的建设充分照顾到了灾民的需求,这一点令我印象深刻,如果这种住宅也能继续使用,那就更好了”(中国学员·朱海霞)。

对于由此引申出的“中山间地区”援助的问题,学员们纷纷表示,“通过课程我认识到,在即将荒废的“中山间地区”,村落既需要硬件援助,也需要村落协助员等人才培养方面的投资”(日本学员·森田修平)，“我感触最深的就是,援助活动必须尊重当地人与人的情感联系和对故乡的眷恋之情,

我们迫切需要这样的援助”(日本学员·若杉真纪子)，“我觉得,援助必须从长远的观点出发,兼顾灾区重建之后的发展,协助当地人将其建设得比受灾之前更美好”(日本学员·辻谷明代)。也有学员表示,“中国也面临着农村人口严重流失的问题,希望今后能将上学学到的恢复地区生机、防止人口流失的知识活用到中国”(中国学员·宋璐)。

另外,还有学员表示,“地区援助不仅是政府的工作,同时也是所有民众的责任,有必要在城市与农村之间创造相互交流的机会,从而推动农村的发展”(中国学员·张瑜)，“要解决这一问题,就必须掌握各类信息,集思广益”(中国学员·蔡鑫)，“村落重建需要人与自然和谐共处,如果能实现这一目标,村民也就能过上幸福的生活”(韩国学员·LEE KANG LYUL)。同时,也有学员提出,“日本是否与其他国家共享重建经验”(日本学员·山本直树)，“除了人以外,希望了解有关动植物的重建对策”(韩国学员·KIM JI EUN)。另有学员表示,“日本重建的道路依然非常漫长,希望日方能早日清除废墟,并妥善完成核电站事故的善后工作”(中国学员·韩昇良)。

## 수강생 리포트

고야마 선생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 수강자의 리포트에 따르면, 우선, 지진 복구지원에 대해 '가설주택을 건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중국·지밍), '교류하는 장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한국·황소윤), '재건에는 경제지원과 함께 문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일본·류성욱)등, 소프트 면에서의 지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감상이 많았다. 동시에 '가설주택은 복구되면 존재가치가 사라지는데 재활용은 가능한가?'(중국·화아산), '가설주택이 피해자를 배려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계속해서 사용되면 좋겠다.'(중국·주하이샤)등 재건 후의 가설주택 처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준산간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준산간지역의 취약이 소멸되는 문제와 관련해 물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인적인 측면에서 취약지원인의 육성 등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일본·모리타 슈헤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과 고향에 대한 마음을 존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일본·와카스기 마키코), '장기적인 시점에서, 복구 후에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보다

더 좋은 지역운명을 고려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일본·쓰티타니 아키요)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중국도 농촌 과소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과소화 방지에 지역창조의 지식을 활용하고 싶다.'(중국·송루)라는 감상도 나왔다.

또한 '지역지원은 정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책임이다. 도시와 농촌부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농촌부의 발전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중국·장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중국·차이신), '취락지 재생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필요하며,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인간은 행복하게 된다.'(한국·이강열)라는 의견과 '복구의 노하우를 외국과 공유하고 있는가?'(일본·야마모토 나오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 대한 대응도 알고 싶다.'(한국·김지은)등의 의문과 질문이 나왔다. 그리고 '복구의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하지만, 무너진 건물더미의 제거와 원전 위기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중국·한성량)는 염원이 담긴 의견도 제시되었다.



伝統を未来へつなげる～医療の立場から  
 发扬传统, 开创未来——从医疗的角度出发  
 전통을 미래로 연결시킨다—의료의 입장에서부터

# 伝統医学の

传统医学持续发展的关键在于国际合作。国际合作的第一步就是要相互了解。

# 存続を握るのは国際協力。

전통의학의 존속을 끌어주는 것은 국제협력, 그것은 서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 それは、互いを知ることから始まる。

中国発祥の伝統医学がグローバル化し、生薬の需要が高まる中、漢方薬は資源枯渇の危機に瀕している。その存続の問題を多方面から検証し、三国が抱える課題に焦点を当てた。

韓国・日本には古代に中国から伝わった伝統医学があるが、これまで世界の主流は西洋医学で、伝統医学は地域の医療とされてきた。それが近年、身体全体のバランスを診る医療として見直され、グローバル化している。そのため、生薬の需要が高まっているが、産地である中国では無計画な採取等で生薬が減少し、漢方薬は消滅の危機に瀕している。背景にある中国の経済発展や投機マネー、知的財産権の問題等に対し、伝統医学の持続的発展のために、今、日中韓が何をすべきかを考えた。

随着发源于中国的传统医学逐步走向全球化, 以及对草药需求的不断增长, 汉方药物正濒临资源枯竭的危机。从多个角度来考察汉方药物的可持续发展, 已成为日中韩三国共同瞩目的课题。

韩国、日本虽然有从古代中国流传的传统医学, 但一直以来世界主流医学是西医, 传统医学只是一种本土医学。近几年, 人们对传统医学的定位发生了改变, 它正成为一种全面调节身体机能的医疗手段, 并逐步走向全球化。因此, 人们对草药的需要不断增长。但是, 由于在原产地中国对草药的无节制性采摘等, 草药不断减少, 汉方药物正濒临灭绝的危机。面对这一问题背后的中国经济发展、投机资金、知识产权等各种问题, 日中韩三国该如何才能让传统医学持续发展, 对此, 我进行了一些研究。

중국에서 발상된 전통의학이 국제화 되어, 생약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방약은 자원 고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존속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3국이 안고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과 일본에는 물론 고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전통의학이 있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주류는 서양의학이며, 전통의학은 지역의 의료로 여겨져 왔다. 그것이 최근, 신체 전체의 밸런스를 진찰하는 의료로서 다시 평가되어, 국제화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생약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산지인 중국에서는 무계획한 채취 등으로 생약이 감소되고, 한방약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배경에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이나 투기적머니, 지적재산권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전통의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금 일중韓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慶應義塾大学医学部附属  
漢方医学センター診療部長・准教授

## 渡辺賢治

庆应义塾大学 附属医院  
中医中心诊疗部部长 副教授

## 渡边贤治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 부속  
한의학센터 진료부장 준교수

## 와타나베 겐지

1984年慶應義塾大学医学部卒業。米国スタンフォード大学遺傳学教室ポスドクトラルフェローなどを経て、2001年慶應義塾大学医学部東洋医学講座・准教授に就任。日本内科学会内科専門医、米国内科学会上級会員、日本東洋医学会専門医・指導医、日本東洋医学会理事、和漢医薬学会理事、日本統合医療学会理事、財団法人漢方医学研究所評議員、日本医学教育学会評議員、WHO temporary advisor

1984年毕业于庆应义塾大学医学部, 历任美国斯坦福大学遗传学专业博士后研究员等, 2001年出任庆应义塾大学医学部东洋医学讲座、副教授。兼任日本内科学会认证内科医生、美国内科学会高级会员、日本东洋医学会认证医生・指导医师、日本东洋医学会・理事、日汉医药学会理事、日本综合医疗学会理事、(財团)日本中医研究所评议员、日本医学教育学会评议员及世界卫生组织临时顾问。

1984년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 졸업. 미국 스탠포드대학 유전학 교실 박사후 연구생 펠로우 등을 거쳐, 2001년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 동양의학 강좌·준교수에 취임. 일본 내과학회 내과전문의, 미국 내과학회 상급회원, 일본 동양의학회 전문·지도의사, 일본 동양의학회 이사, 일한 의학학회 이사, 일본 통합의료학회 이사, (재) 일본 한방의학 연구소 평의원, 일본 의학교육학회 평의원, WHO temporary advisor



2011  
7/23 Sat  
猿沢荘  
猿泽庄  
사투사와소







**渡辺氏の講義を踏まえて、「グローバル化と地域社会の関係について関心を持ったこと」、「東アジア共通の伝統を次世代に継承するためにどのようなアイデアがあるか」という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まず、漢方薬の効用について、受講生の多くが「急性感染症には効果がないというのは誤解であると知った」(中国・濮兆桂)、「中医学の方が根本的に病気を治せると思うが、西洋医学と融合して、それぞれの良いところを利用することが大切だとわかった」(中国・李梅)など、認識を新たにした旨の感想を述べた。その上で、「中国や韓国では漢方医学と西洋医学が別に存在し、人々は症状に応じて使い分けしていると知った」(日本・内山怜和)、「漢方医学の中韓日の伝統的治療法の差異を知りたい」(韓国・キム ジュングォン)など、日中韓における違いにも注目している。

また、伝統医学が直面する問題については、「東洋医学は、人材不足、生薬資源の枯渇、政策、三国の情報や認識の面で問題に直面していると知り、これを人々に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感じた」(日本・趙氷)、「中国が甘草を輸出しな

いのは余裕がないためであり、これからは計画的な生産、栽培につい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毛玉珩)という意見が出され、具体的には「従事者を増やすためには、国がもっと伝統産業を重視し、物質的奨励、給料など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王容)、「医学も含めて文化や伝統を伝承するには計画的な教育や支援が必要」(韓国・キム ヨンシム)などの提案があった。さらに、日中韓の連携という観点から、「政府の方針、生薬の制限、医師の認識不足などの問題があるので、日中韓が共に研究する必要があると感じた」(韓国・イ ナムジュ)、「日本の技術、韓国の商販、中国の人口や市場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基本的な問題意識になる」(日本・王磊)、「伝統医学を未来につなげるには東アジアの国が相互理解を深め、連携して解決する必要がある」(中国・呉欽)など、協力体制への期待が述べられた。

**学员们基于渡边先生的授课内容,围绕“对全球化和地区社会的关系所关心的问题”、“如何让东亚共同传统延续到下一代”两个课题展开了小组讨论。**

首先,对于汉方药物的功用,大部分学员表示“认为汉方药物对急性感染性疾病没有效果,这是对汉方药物的误解”(中国・濮兆桂)，“中医虽能治本,但与西医结合起来,发挥各自的功效才是最重要的”(中国・李梅),大家对汉方药物有了一个新的认识。此外,学员们还对日中韩三国的差异很感兴趣,有学员认识到“中国、韩国分别有汉方医学和西医,人们根据自己的情况来对症下药”(日本・内山怜和),还有学员表示“想进一步了解汉方医学在中韩日传统疗法中的差异”(韩国・KIM JUN KWON)。

此外,对传统医学所面临的问题,大家各抒己见,有学员提出“东洋医学正面临人才匮乏、草药资源枯竭、政策制约、三国信息及认识差异等各种问题,我们必须让更多的人了解到这些问题”(日本・赵冰),也有学员建议“中国不出口甘草,是因为本国已供不应求,今后要考虑如何有计划地生产和栽

培”(中国・毛玉珩),还有学员具体建议说“要增加从事传统医学的人才,国家必须提高对传统产业的重视程度,并给予物质上的奖励,提高工资待遇”(中国・王容)，“要持续发展医学等文化和传统,有计划的教育方案和援助措施也要跟上”(韩国・KIM YEON SHIM)。

另外,对于日中韩三国的合作,学员们也分别表达了对合作体制的期待,有学员表示“面对政府方针、草药数量有限、医生的认识程度不够等各种问题,日中韩三国有必要共同研究对策”(韩国・LEE NAM JU),也有学员认为“将日本的技术、韩国的销售、中国的人口等三国市场结合起来,这已成为一种基本意识”(日本・王磊)，“引领传统医学走向未来,需要东亚各国加深相互了解,共同解决”(中国・呉欽)。

**와타나베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국제화와 지역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일’、‘동아시아의 공통적인 전통을 차세대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것 인가’라는 테마로 그룹 대화를 나눴다.**

우선, 한방약의 효용에 대하여 많은 수강생이 ‘급성감염증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것을 알았다’ (중국푸자우구이),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중의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양의학과 융합하여 각자의 좋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리이메이) 등, 인식을 새롭게 한 취지의 감상을 말했다. 이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이 다른 존재이고, 사람들은 증상에 따라서 가려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일본우치야마 레이오), ‘한방의학의 중한일의 전통적 치료법의 차이를 알고 싶다’ (한국김준권) 등, 일중한의 차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전통의학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양의학은 인재부족, 생약자원의 고갈, 정책, 3국의 정보나 인식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꼈다’ (일본조우빙), ‘중국이 감초를 수출하지 않는 것은 여유가 없기 때문이며, 이제부터는

계획적인 생산, 재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마오위형) 라는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전통산업을 중시하고, 물질적장려, 급료 등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왕룽), ‘의학도 포함하여 문화나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 (한국김연심)하다는 등의 제안이 있었다.

또한, 일중한의 연계의 관점에서 ‘정부의 방침, 생약의 제한, 의사의 인식 부족 등 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중일한이 함께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한국이남주), ‘일본의 기술, 한국의 상업, 중국의 인구나 시장을 조합시켜서 제휴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된다’ (일본왕레이), ‘전통의학을 미래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나라가 상호 이해를 깊이 하고, 연계하여 해결 할 필요가 있다’ (중국우친) 등, 협력 체제에 대한 기대에 대해 언급했다.



視察研修 ならまちセンター「ORIGAMIプラザ」／ならまち散策

参观培训 奈良町中心的“折纸广场”/漫步奈良町

시찰연수 나라마치센터 'ORIGAMI플라자' /나라마치 산책

# 折り紙体験と

体验折纸和奈良名胜漫步

# 奈良の人気エリアを散策

종이접기 체험과 나라의 인기 에리어 산책

平城遷都とともに飛鳥から移された元興寺の旧境内地を中心に広がるならまち。江戸時代ごろからの古い町並みが残り、最近では町家を使った店舗が増え、人気の観光エリアのひとつでもある。ならまちの一角にある「ならまちセンター」で奈良市国際交流ボランティア協会による「ORIGAMIプラザ」に参加し、日本の伝統的な遊びのひとつ、折り紙に挑戦した。

その後は、ならまち界隈を散策。古い建物の風情と、現代のセンスとがほどよく混じり合った雰囲気を楽しんだ。

平城迁都时，元兴寺从飞鸟搬迁而来，成为奈良町的中心。目前，奈良町依旧保留着从江户时代开始的旧貌。近年，人们将町内的一些民居辟为各类店铺，使这里成为颇具人气的观光景点。在奈良市国际交流志愿协会引领下，学员们参观了位于奈良町一隅的“折纸广场”，亲自尝试了“折纸”这一日本传统游戏方式。

其后，大家在奈良町内自由漫步，领略古代建筑与现代感觉融洽交汇的气氛。

헤이조 천도와 함께 아스카에서 옮겨진 간고지 절의 구 경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나라마치'. 에도 시대경부터의 거리 풍경이 남아있고, 최근에는 옛 상가 건물을 사용한 점포가 늘어나 인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나라마치의 일각에 있는 나라마치 센터에서 나라시 국제교류 자원봉사 협회의 안내로 'ORIGAMI플라자'를 참가하여, 일본의 전통 놀이의 하나인 종이접기를 체험했다.

그 후에는 나라지역을 산책했다. 오래된 건축물의 풍경과 현대적인 감각이 적묘하게 혼합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분위기를 체험했다.

2011  
7/23 Sat.

ならまち  
奈良町  
나라마치









交流プログラム・歌は心の架け橋  
 交流項目・歌声架起心灵之桥  
 교류 프로그램 노래는 마음의 가교

# 音楽の第一歩は、 歌うことから始まる。

音乐的的第一步, 始于歌唱

음악의 첫 걸음은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NPO法人音楽の森理事長  
 まつぼっくり少年少女合唱団主宰

## 荒井敦子

非营利组织法人“音乐森林”理事长  
 松塔少年少女合唱团主办人

## 荒井敦子

NPO법인 온가쿠노모리 이사장  
 마쓰보꾸리 소년소녀합창단 주재

## 아라이 아쓰코

大阪音楽大学声乐科卒。放送・教育方面での職歴や国民キ  
 ャンプ、障害者施設での豊富な経験を生かし、多彩な音楽活  
 動を展開。子どもたちの歌声を通して国際交流を深め、自らも  
 世界各地へ音楽の旅をしている。わらべうたの普及にも努める。  
 1993年度に「サントリー地域文化賞」「文部大臣賞」受賞。

荒井女士毕业于大阪音乐大学声乐系。她曾从事广播电视与教  
 育工作，并具有在难民营和残障人士社会设施内工作的丰富经  
 验。她凭借经验，开展着丰富多彩的音乐活动。她希望孩子们  
 的歌声能起到深化国际交流的作用。在世界各地展开了音乐之  
 旅。她还致力于童谣的普及工作。1993年度，荒井女士荣获“三  
 得利地域文化奖”以及“文部大臣奖”。

오사카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방송·교육, 난민캠프, 장애자시설  
 등에서 활약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다채로운 음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가성을 통해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자신도 세계 각지를 방문하며 음악여행을 하고 있다.  
 외라베우타의 보급에도 진력하고 있다. 1993년도에「산토리  
 지역문화상」과 「문부대신상」을 수상했다.

「各国に伝わる歌には、目には見えない文化財ともいべき歴史や思いがか  
 くされている」というお話のあと、まつぼっくり少年少女合唱団(23人)ととも  
 に、まずは、日本の「奈良の大仏さん」をはじめ日中韓それぞれの国でおなじ  
 みの歌を歌った。歌を通じて、3か国間の相違点について話し合った。  
 また、フェアウェルレセプションで発表する歌の練習も行った。

荒井女士说“各国流传的歌谣，可以说是无形的文化财产，其中蕴藏着历史  
 和人们的内心世界”。随后，她和松塔少年少女合唱团(23人)一起为大家  
 奉献了美妙的歌曲。首先演唱的是日本歌曲“奈良大佛”，然后演唱了在日中  
 韩三国广为流传的多首歌曲。聆听歌曲后，学员们相互交流了有关三国歌曲  
 异同的看法。

另外，学员们还计划练习了将在欢送招待会上演唱的歌曲。

‘각국에 전해지고 있는 노래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문화재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와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설명이 있는 후, 마쓰보꾸리  
 소년소녀합창단(23명)과 함께 ‘나라의 다이부쓰상’을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통해, 세나라의 님은 점과  
 반대로 다른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 페어웰 리셉션에서 발표할 노래 연습도 했다.

2011  
 7/24  
 SUN.  
 西大寺興正殿  
 西大寺兴正殿  
 사이디자인 고소덴







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が  
お世話になった皆様へ。  
まつばりリハビリテーション専門学校一同



韓国、中国、日本の青年の福祉に  
音楽の架け橋を架け、和と  
とび、100%の力で、まじり  
国際交流の心を育む。 芸術科

まつばりリハビリテーション専門学校  
2018年7月





東アジア中心時代における<文化>理解

东亚时代的“文化”理解

동아시아 중심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이해

# 東アジア地域が花開くための

东亚地区喜结硕果的条件已成熟 未来的关键取决于“文化”

## 基盤はできており、

동아시아 지역이 꽃피기 위한 기반은 마련되어 있고, 그 근간으로 되는 것이 <문화>다

## その根幹となるのが

## <文化>である



高麗大学校教授  
**崔官**

高麗大学教授  
**崔官**

고려대학교 교수  
**최관**

高麗大学卒業、東京大学大学院比較文学比較文化専攻卒業(学術博士)、日本大学国文科客員教授、南開大学日本研究院客員教授、京都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外国人研究員など。専攻は日本近世文学、韓日比較文学比較文化、東アジア学。現在、韓国日本学会会長、高麗大学校日語日文学科教授、日本研究センター所長、人文韓国(HK)海外地域研究事業団長など。主な著書は「文禄・慶長の役(壬辰・丁酉倭亂)」(講談社メチエ選書)など。

毕业于高麗大学，之后进入东京大学研究生院比较文学比较文化专业深造，获学术博士学位。曾出任日本大学国文科客座教授、南开大学日本研究院客座教授、京都国际日本文化研究中心外籍研究员等。主攻日本近世文学、韩日比较文学比较文化及东亚学。现任韩国日本学会会长、高麗大学校日語日文学系教授、日本研究中心所长、人文韩国(HK)海外地区研究事业团团长等职位。主要著作有《文禄·庆长之战(壬辰·丁酉倭战)》(讲谈社文艺选书)等。

고려대학 졸업, 도쿄대학 대학원 비교문학 비교문화 전공 졸업(학술박사), 일본대학 국문과 객원교수, 난카이대학 일본연구원 객원교수, 교토 국제일본문화연구원 외국인 연구원 등. 전공은 일본근대문학, 한일 비교문학 비교문화, 동아시아학. 현재 한국 일본학 회장, 고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연구센터 소장, 인문 한국지원(HK) 해외지역연구사업의 단장 등 겸무하고 계신다. 주된 저서는 '분로쿠 케이초(慶長文祿)의 역(役)(임진정유제란)'(고단샤 섀서 메티에) 등이 있다.

2011  
7/25 Mon.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グローバル化によって世界は大きな転換期を迎えている。世界の中心軸が東アジアに移りつつある今こそ、韓中日三国が共通のビジョンを構築し、東アジアにおける持続的な文化を創出すべきではないか。

そのためには、他国の文化を理解し、自国の文化を客観的かつ多角的に見つめ直す必要がある。例えば、日本の寿司が世界中で食されているように、一つの文化が伝播されることで経済効果を生む時代である。歴史や政治面での葛藤はどの時代にも存在するということを認識した上で、三国が知恵を出し合い、得意分野で協力し合うことで、普遍性を持つ文化を世界で通用する文化に育て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単なる文化交流にとどまらない、文化融合のためのシステム構築が求められている。

随着全球化的步伐不断推进，世界正面临着-场前所未有的转折。如今，世界的轴心正逐步向东亚地区偏移，面对这一机遇，韩中日三国理应共享对未来的愿景，为东亚创造可持续发展的文化。

为达成这一目标，各国必须了解他国文化，并从多元化的角度客观审视本国文化。近年来，日本寿司风靡世界，备受各国消费者的青睐。可见，在当今时代，文化的传播也能催生出令人惊叹的经济效应。韩中日三国必须认识到，无论在哪个时代，国与国之间无可避免地会存在历史与政治上的摩擦。如果三国集思广益，在各自擅长的领域携手合作，必能将具有普世价值的东亚文化推广至全世界。我们不能仅停留于单纯的文化交流，而应构建起能将三国文化合为一体的新体系。

국제화에 의해 세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일·한3국이 공통 비전을 구축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문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를 객관적 동시에 다각적으로 다시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초밥이 온세계에서 인기 있듯이, 한문화가 전파되는 것으로 경제효과가 생기는 시대다. 역사나 정치면의 갈등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후, 3국이 함께 지혜를 짜아, 선진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보편성을 가지는 문화를 세계에서 통용하는 문화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문화교류에 머무르지 않는 문화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崔氏の講義を踏まえ、「東アジアに共通のビジョンをつくるために活かせる考え方、知恵、具体的な一歩は?」という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民間レベルの国際交流をもっと盛んに推し進めていく必要がある」(中国・呉欽)という意見が出され、交流の際には「お互いに尊敬して交流することが大事」(中国・黄清清)であり、相手国の文化を尊重し、自国の文化に誇りを持った上での協力が重要であるとの共通認識が示された。具体的なアイデアとしては、「姉妹都市関係にある市町村から国際交流イベントを行ってはどうか」(中国・劉朴)、「多くの留学生を派遣したほうが良い。子どもの頃から他国に関心を持つことは、将来、東アジア共同体に役立つと思う」(中国・朱海霞)、「若者は将来の希望である。大学生に東アジアの在り方、東アジアの文化について教えたい」(中国・郭旭紅)といった声が挙がった。

また、「これまでは二カ国中心の交流だったが、これからは三カ国が一緒に交流し合い、理解を深め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気付いた」(韓国・ジョン ミヨン)、「東アジア地域について理解している政治家が将来誕生するように、二国間ではなく三国間で交流を深めていけるような取り組みが必要だ」(日本・山本直樹)、「三

カ国の文化を知るには、現地へ行き、体験するのが一番である。ビザをなくすことで三国間の行き来がさらに活発になり、文化の共有、理解の深まり、友好関係の深まりにつながるのではないかと(日本・堀部暢一)などの意見も出た。さらに、「三カ国が一緒に参加できるプロジェクトを設定すれば効果があるのでは?」(中国・韓昇良)、「交流するきっかけが欲しい。第二回 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の開催を希望する」(中国・李鑫)という意見が出た一方で、「東アジアという概念において、日中韓三カ国だけで進めて良いのか? 欧米のシステムと違う方法をアジアで進め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 また、どのように進めるのか?」(日本・辻谷明代)、「東アジアの共同は難しいと思う。どうすればできるのか?」(中国・劉婷)という疑問も提示された。これに対して、「共同体と共通体は違う。東アジア共同体は無理だろうが、共通体は深い交流によって作れそうだ」(中国・蔡鑫)との声もあった。

## 学员们基于崔官教授的授课内容,就“推动东亚共享未来愿景的理念、智慧、及具体行动”展开了讨论。

学员们一致认为,开展国际交流时应尊重对方的文化,在以本国文化为荣的同时增进交流合作。学员们指出,“有必要进一步推动民间层面的国际交流”(中国学员·吴钦)、“(交流时)必须互敬互重”(中国学员·黄清清)。同时,学员们还就具体的交流方式提议称,“是否可以考虑结为姊妹城市的地方应发挥表率作用,积极开展各种国际交流活动?”(中国学员·刘朴)、“可以考虑扩充留学规模,让孩子们从小关注其他国家,这也有助于构建东亚共同体”(中国学员·朱海霞)、“年轻人是未来的希望,如有机会,我很想为大学生讲解东亚地区的体制及文化”(中国学员·郭旭红)。

同时,还有学员表示,“通过这节课我认识到,迄今为止的活动以双边交流居多,今后应多多开展三边交流,加深相互之间的了解与认同”(韩国学员·JEOUNG MI YOUNG)、“为培养出真正了解东亚地区的政治家,必须改变只注重双边交流的现状,建立起三边交流的体制”(日本学员·山本直树)。

“要想了解日中韩三国文化,最有效的办法就是亲自前往当地,体验该国文化。所以,如果三国能互相实施免签证措施,那么人员往来必定会日趋频繁,最终达成共享文化、加深理解、及巩固友好关系的目标”(日本学员·堀部暢一)。另外,还有学员提出,“如能启动三国共同参与的项目,效果是否会更加显著?”(中国学员·韩升良)、“我们需要交流的机会,希望未来亚洲研讨会能继续举办第二届”(中国学员·李鑫)。但另一方面,也有学员质疑说,“这事关整个东亚地区,但却只有日中韩三国参与,这样做是否妥当?亚洲真的能采用与欧美截然不同的方式向前发展吗?如果可以,到底应该如何行动呢?”(日本学员·辻谷明代)、“要让东亚各国完全同步恐怕非常困难,如何才能实现这一目标呢?”(中国学员·刘婷)。对此,有学员提出,“‘共同’与‘共通’是截然不同的两个概念。虽然构建东亚‘共同体’希望渺茫,但创建‘共通体’来加深交流还是有望实现的”(中国学员·蔡鑫)。

## 최관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 공통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 지혜, 구체적인 한 걸음은?’를 테마로 그룹 대화를 나눴다.

“민간 수준의 국제교류를 더욱 열심히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중국우친)라는 의견이 있었고, ‘교류 할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중국황칭칭),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국의 문화에 자랑을 가진 기초상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발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서는, ‘자매도시 관계인 시읍면에서 국제교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중국·류우핑),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는 편이 좋다. 어렸을 때부터 타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중국·주하이사), ‘젊은이는 장래의 희망이다. 대학생에게 동아시아의 본연의 자세,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하여 가르치고 싶다’(중국·구어쉬홍)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2개국 중심의 교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3개국이 함께 서로 교류하여,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한국·정미영),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이해가 가고 있는 정치가가 장래 탄생하도록, 2개국간이 아니고 3국간에서 교류를 깊게 해 갈 수 있는 대치가 필요하다’(일본·야마모토 나오키), ‘3개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제일이다. 비자를 없애는 것으로 3국간의 왕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문화의 공유가 실현되며, 이해가 깊어지고, 우호관계가 깊어지는데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일본·호리베 요이치) 등 의견도 제시되었다.

게다가, ‘3개국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정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중국·한성량), ‘교류하는 계기를 원한다. 제2회 동아시아서머스쿨의 개최를 희망한다’(중국·리아신) 라는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개념에 있어서, 동일한 3개국만으로 진행해도 좋은 것인가? 구미의 시스템과 다른 방법을 아시아에서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진행시키는 것인지?’(일본·쓰지타니 아키요), ‘동아시아의 공동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중국·류우팅)라는 의문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공동체와 공통체는 다르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렵지만, 공통체는 깊은 교류에 의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중국·차이신)는 의견도 있었다.



日中文化の「現代形」～相互理解への鍵～  
 日中文化的“现在进行式”——达成理解的钥匙  
 중일 문화의 「현재형」～상호이해에의 열쇠～

# 異文化理解を通じて

通过异文化交流理解彼此的价值观，共同创建东亚地区的美好未来。

# 互いの価値観を再認識し、

이문화 이해를 통해 서로간의 가치관을 재인식하고, 함께 동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자

# ともに東アジアの

# 未来を作ろう。

古来、中国で狐は、ずる賢い悪玉として様々な物語に描かれてきた。日本では古くは五穀豊穡の神とされ、京都市の伏見稲荷大社をはじめ約3万の神社に祭られている。

児童文学には子どもの友達として登場し、日常生活ではいなり寿司やきつねうどんとして親しまれている。同じ古典を由来とする狐が地域によって独自にアレンジされているように、文化とは変容するものである。また日本人の表現方法はユニークで、奥ゆかしさ、空気を読むなど感性的なものが強く、中韓は論理的な部分が多い。どちらが良い悪いではなく、その個性こそ互いに関心を持ち学び合うべき部分だ。グローバル時代の今、欧米標準に合わせる必要はあるものの、東アジアの独自性を活かすことが東アジアの平和的繁栄の構築につながるのではない。

中国自古流传着许多关于狐狸的故事，将其看作狡猾奸诈的象征。但在日本，从古至今狐狸都被奉为保佑五谷丰登的神明。包括京都市伏见稻荷大社在内，日本各地约有3万座神社都尊狐狸为镇社之神。

不仅如此，日本的儿童文学作品也常将狐狸描绘成孩子们的好伙伴，而与日常生活息息相关的传统美食“稻荷寿司”及“狐狸乌冬面”更是与狐狸有着深厚的渊源。日中两国的狐狸形象本源自同一文化传统，但在不同的国家被赋予截然不同的文化内涵，这恰恰印证了文化取决于人们如何接纳、如何诠释。另一方面，日本人的表达方式也独具特色，如“奥ゆかしさ”、“空気を読む”等语汇所显示的，其诉诸感性的部分较多。相较之下，中韩两国则更偏重理性。这种差异并无优劣高下之分，异文化独具个性的一面也正是我们必须给予关注、并学习的地方。在步入全球化时代的当下，我们一方面需要去适应欧美的标准，但另一方面更应发扬东亚独特的个性，惟有这样，才有可能实现东亚地区的和平与昌盛。

예로부터 중국에서 여우는 교활한 악인으로 많은 이야기에 그려져 왔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에는 오곡풍요의 신으로, 교토의 후시미이나리따이샤를 비롯해 약3만 이상의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아동문학에서는 어린이의 친구로서 등장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네트지스나 기쁘네 우동으로서 친숙되어 있다. 같은 고전을 유래로 하는 여우가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어레인지되고 있는 듯이, 문화는 변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인의 표현 방법은 독특해서, 은근함, 분위기를 읽는 등 감성이 강하고, 중한은 논리적인 부분이 강하다. 어느쪽이 올바르고 틀린 것이 아니고, 그 개성이야말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워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시대의 지금, 구미 표준에 맞출 필요는 있지만, 동아시아의 독자성을 살리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구축에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法政大学教授

**王敏**

法政大学教授

**王敏**

호세이대학 교수

**왕민**

文化大革命後、中国全土の大学教員から選出した国費留學生として、1982年宮城教育大学に留学。2000年、お茶の水女子大学で人文科学博士号取得。東京成徳大学教授を経て、法政大学教授、日中関係史学会評議員、東アジア文化交流学会評議員、中華日本学研究会副会長、中国日本学研究会理事、文化外交を推進する総理懇談会委員などを歴任。日中文化関係中心の比較文化、宮沢賢治を切り口にした日本研究に動んでいる。

中国文革结束后，1982年从各地大学教师中脱颖而出，入选日本国费留学生，进入宫城教育大学深造。2000年，获御茶水女子大学人文科学博士学位。曾出任东京成徳大学教授，后任法政大学教授、日中关系史学会评议员、东亚文化交流学会评议员、中华日本学研究会副会长、中国日本学研究会理事，并曾担任日本首相文化外交推动恳谈会委员等职务。主要从事以日中文化关系为核心的比较文化研究，及以宫泽贤治为主的日本研究等。

문화대혁명후 중국 전국의 대학교수가운데서 선출한 국비 유학생으로서, 1982년 미야기 교육대학에 유학. 2000년,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인문과학 박사호를 취득. 도쿄 세이토쿠대학 교수를 거쳐, 호세이대학 교수, 중일관계사학회 평의원, 동아시아 문화교섭학회 평의원, 중국 일본학연구협회 부회장, 중국 일본문학연구회 이사, 문화외교를 추진하는 총리간담회 위원 등을 역임. 중일 문화관계 중심의 비교문화, 미야자와 겐지를 시작으로 한 일본 연구에 힘쓰고 있다.



2011  
7/25<sup>Mon.</sup>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王氏の講義を踏まえ、「三国間の文化・伝統について、相違点・共通点を感じた体験は?」、  
「若者の三国間の異文化理解のためにできる具体的な取り組みは?」という二つの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料理やドラマなど身近な例を挙げて日中文化を比較した講義はわかりやすかったようで、「共通の文化は色々あるが、それぞれの国で解釈が異なっていて面白かった。風呂の入り方や食事の作法など、似たような道具があっても使い方が異なるというのは興味深い」(日本・森田修平)、「九尾狐と八咫鳥の話をさらに詳しく知りたい。伏見稲荷大社に行ってみよう」(中国・郭旭紅)などの感想が出された。その一方で、「いろんな例を通じて、中国、日本の認識の差はわかったが、韓国の場合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が足りないと思う」(韓国・キム ヨンシム)、「中日文化の理解は詳しく説明して下さったが、韓国文化のことはまだまだです。自分でもっと詳しく調べたい」(中国・華珊)という声が挙がり、「韓国について文化比較がなく、少し残念。機会があれば詳しく聞きたい」(日本・リュウ ソンウク)と感じている参加者が少なくなかった。

また、日本人からは、「異文化を理解するには、話すことや体験することが重要だ。中国や韓国の人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っていくためには、もっと積極的にな

る必要がある」(日本・山本直樹)、「日本人は言葉が少ないとの指摘は、自分にとって意外で驚いた。確かに多くを語らないことは美德であるという感覚はあるが、中国の方から日本のドラマはわかりにくい、日本人は表現欲が少ないのではという指摘を受け、日本文化をこの視点から見つめ直したいと思った。同時に、『暗黙の了解』や『前と同じ』で仕事を進めず、言葉に出すことを恐れずに臨もうと思う」(日本・若杉真紀子)などの感想が出た。

具体的な取り組みとして、「三ヶ国の若者たちの異文化理解力を高めるため、共同行事や交流プロジェクト、テレビ番組などを作る可能性を模索したい」(中国・宋璐)、「青少年交流を進める上で、事前にオリエンテーションを行い、その国の文化をある程度理解してもらってから派遣したい」(韓国・ジョン ミヨン)などの意見が出されたほか、「いかにして三国文化をそれぞれの特徴に基づいて上手く融合させるかが次世代の課題である」(日本・趙氷)という声もあった。

学员们基于王敏教授的授课内容,分别就“有关日中韩三国文化传统异同点的自身体验”及  
“促进三国年轻人相互达成理解的具体对策”这两大话题展开了讨论。

课程通过饮食及电视剧等贴近生活的事例来比较日中文化,深入浅出,简明易懂,激起了学员的兴趣。许多学员都表示,“虽然文化方面存在不少相通之处,但对于同一事物的看法,各国却各有所异,这一点很有意思。在入浴和烹饪等许多领域,不同的国家虽然有着相似的工具,但其用法却截然不同,这让我很感兴趣”(日本学员・森田修平)、“我很想知道有关九尾狐和八咫鸟的完整故事,有机会也想去伏见稻荷大社参观一番”(中国学员・郭旭红)。但另一方面,也有不少学员指出,“课程通过各种具体事例列举了中国和日本之间的文化差异,但关于韩国的内容明显不足”(韩国学员・KIM YEON SHIM)、“讲师非常详尽地讲解了日中文化之间的异同,但涉及韩国文化的内容却非常少,我准备自己去查阅考证一番”(中国学员・华珊)、“没能听到关于韩国的文化比较,略感遗憾,有机会,我很想了解这方面的差异”(日本学员・柳成煜)。

另外,日本学员还纷纷发表感想认为,“为了理解不同的文化,交流与体验

至关重要。在与中国人和韩国人沟通时,日本人必须更加积极主动”(日本学员・山本直树)、“有人说日本人沉默寡言,我听后觉得十分惊讶,虽然日本人确实认为,不多言是一种美德。还有中国朋友指出,日本的电视剧很难懂,日本人缺乏自我表现的欲望,我考虑从这个视角来重新审视日本文化。而且,今后在工作中,我会尽可能地避免使用‘默认’或‘和以前相同’等言辞,尽量大胆而清晰地表达自己的观点”(日本学员・若杉真纪子)。

其后,在论及增进异文化理解的具体对策时,学员们表示,“为了提高日中韩三国年轻人理解异文化的能力,我希望三国能尝试开展各种活动,增加交流项目,并可以考虑联合摄制电视节目等”(中国学员・宋璐)、“在开展青少年跨国交流活动时,我觉得应该提前进行一些培训,让他们在一定程度上理解对方的文化,然后再将他们送出去”(韩国学员・JEOUNG MI YOUNG)。另外,还有学员指出,“如何基于日中韩三国文化的特征,将其巧妙地融合在一起,将成为下一代所面临的课题”(日本学员・赵冰)。

왕민 교수님의 강의를 토대로 ‘3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하여 상위점과 공통점을 느낀 체험은?’과,  
‘젊은이가 3국의 이문화 이해를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는?’를 테마로 그룹 대화를 나눴다.

요리나 드라마 등 가까운 예를 들어 중일문화를 비교한 강의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서, ‘공통 문화는 많지만, 나라에 따라 해석이 달라서 재미있었다. 목욕하는 방법이나 식사 예절 등, 비슷한 도구가 있어도 사용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흥미 깊다’ (일본・모리타 슈헤이), ‘큐우피의 기쁘네(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여우)와 야다 가라스(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까마귀)의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 후시미이나리 타이샤에 가 보고 싶다’ (중국・구어쉬홍) 등 감상이 있었다. 한편, ‘여러 예를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인식의 차이는 알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궁금하다’ (한국・김연심), ‘중일문화의 이해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한국 문화는 아직이다. 스스로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고 싶다’ (중국・화아산)의 의견에 이어, ‘한국에 대한 문화비교가 없어, 조금 유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듣고 싶다’ (일본・류성욱)고 느끼는 수강생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수강생은 ‘이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이나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분이나 한국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아마모토 나오키), ‘일본분은 말이 적다라는 지적은, 자신에 있어서 의외여서 놀랐다. 확실히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미덕이라고 하는 감각은 있지만, 중국분에 대하여 일본의 드라마는 이해하기 힘들고, 일본인은 표현 의식이 적을지 모른다는 지적을 받고, 일본문화를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고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암묵적인 이해’나 ‘앞과 같다’에서 일을 진척시키지 않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하자고 생각한다’ (일본・와카스기 마키코) 등 의견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대처로서 ‘3개국의 젊은이들의 이문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행사나 교류 프로젝트,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다’ (중국・송루), ‘청소년 류를 진척시키는 동시에,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한 뒤 파견하고 싶다’ (한국・정미영) 등의 의견이 있는 이외에, ‘어떻게 3국 문화를 서로 다른 특징에 의해 능숙하게 융합시킬지가 차세대의 과제다’ (일본・조우빙)라는 의견도 있었다.



持続可能な社会の追求～日本の観光まちづくり～  
 追求“可持续发展的社会”——日本旅游城乡开发  
 지속가능한 사회의 추구～일본 관광지역 만들기～

# 「持続可能な観光」

何为“可持续发展的旅游业”与“旅游城乡开发”？向奋斗在日本极限村落的村民学习地区振兴对策

(注：极限村落，指半数以上居民超过65岁而难以维系的村落)

# 「観光まちづくり」とは？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지역 만들기’란? 일본의 한계 촌락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지역 진흥책

# 日本の限界集落で

# 頑張る人々に学ぶ地域振興策

日本が経済発展と引き換えに失った物は多く、自然破壊をはじめ様々な問題を生んだ。その社会的背景と現状を知り、地域振興にもつながる「観光まちづくり」について考える。

経済的な豊かさとは心の豊かさは必ずしも比例しない。日本経済の発展は、日本人に「幸福感の喪失」「自然・生態系の破壊」「社会関係の切断」をもたらした。超高齢化社会、過疎、環境破壊、ニート、引きこもり、いじめ、児童虐待といった問題は、今後、韓国や中国でも起こり得る問題である。しかし、日本の限界集落と言われる村や町の中には、住民が地元の資源を活かして「観光まちづくり」に取り組み、成功している例がある。地域の自然や文化を守りながら地域経済を潤す「持続可能な観光」について学び、参考にして欲しい。

在经济飞速发展的背后，日本失去了许多宝贵的财富，伴生出自然遭到破坏等诸多棘手的课题。本课程重点介绍了引发问题的社会背景及问题的现状，探讨有望振兴地区经济的“旅游城乡开发”的理念。

物质上的富裕与心灵丰富未必会成正比。伴随着经济的迅猛发展，日本人面临着“丧失幸福感”、“自然生态遭到破坏”、及“社会关系的疏离”等诸多难题。社会严重老龄化、人口流失、环境污染、尼特族青年无所事事、自闭症患者增加、校园欺凌事件升级、虐待儿童，这些困扰日本的问题今后也可能出现在韩国或中国。但另一方面，在一部分被称为“极限村落”的村镇，居民们积极利用当地资源，致力于“旅游城乡开发”工作，并最终取得了成功。本课程重点讲解兼顾地区自然文化与经济效益的“可持续发展的旅游业”，希望对学员们有所启发。

일본은 경제발전의 대가로 잃은 것이 많아, 자연파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 사회적 배경과 현상을 알고, 지역진흥에도 연결되는 ‘관광지역 만들기’에 대해 생각한다.

경제적인 발전과 마음의 충실함은 반드시 비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 발전은 일본인들에게 ‘행복감의 상실’ ‘자연·생태계의 파괴’ ‘사회관계의 절단’을 초래했다. 초고령화 사회, 과소, 환경 파괴, 니트, 왕따, 집단괴롭힘과 같은 문제는 이후,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일본의 한계촌락이라고 불리는 마을이나 시가지에는 주민이 그 고장의 자원을 살려서 ‘관광지역 만들기’에 대처하여 성공한 예도 있다.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를 지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배우고 참고로 하기 바란다.

奈良県立大学地域創造学部教授

**安村克己**

奈良県立大学地域創造学部教授

**安村克己**

나라 현립대학 지역창조학부 교수

**야스무라 가쓰미**

1954年神奈川県生まれ。立教大学社会学部産業関係学科卒業。同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課程退学。博士(観光学)。立教大学社会学部助手、産能短期大学能率科助教授、北海学園北見大学商学部教授、鈴鹿国際大学国際学部教授を経て、01年より現職。著書に「観光—新しい時代をつくる社会現象」(学文社)、「新・産業観光論」(すばる舎)、「観光まちづくりの力学」(学文社)がある。

1954年出生于神奈川县，毕业于立教大学社会学部产业关系专业，后升入立教大学研究生院社会学研究科攻读博士课程并中途退学。获旅游学博士学位。曾历任立教大学社会学部助教授、产能短期大学能率科助教授、北海学園北见大学商学部教授、铃鹿国际大学国际学部教授。2001年就任奈良县立大学地域创造学部教授。著有《旅游——创造新时代的社会现象》(学文社)、《新·产业观光论》(SUBARU舎)、《旅游城乡开发的力学》(学文社)。

1954년 가나가와현 출생. 릿쿄대학 사회학부 산업관계학과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관광학) 석학. 릿쿄대학 사회학부 조수, 산노단기대학 능률과 조교수, 홋카이대학 키타이대학 상학부 교수, 스즈카국제대학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1년부터 현직에 취임. 저서는 「관광-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사회현상」(학문사), 「산 산업관광론」(스바루샤), 「관광지역 만들기 역학」(학문사)가 있다.



2011  
7/25<sup>THUR</sup>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安村氏の講義後、(1)「この講義で得られた発見は?」、(2)「自らの仕事に活用できる点は?」、(3)「さらに詳しく知りたいことは?」の三問に答える形でレポートを提出した。**

(1)の回答では、「日本が経験した経済成長の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がよくわかった」(中国・宋璐)、「高度経済成長を全く知らない(大学生の)私にも、資本主義の持つ問題点に共感できる部分があった」(日本・辻谷明代)、「韓国でも高齢化や社会関係の切断は社会問題になっているので、とても共感できた(韓国・イ ジョンウォン)」といった感想が見られ、講義を通して、日本が抱える様々な社会問題とその社会的背景がよく理解できたようである。

また、「韓国と日本の田舎にあまり違いがなく、色々な共通点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韓国・キム ジウン)、「日本の限界集落の厳しさを感じた。おそらく中国も同じ状況になるだろう。集落がなくなる可能性もあると聞きショックだった」(中国・黄清清)、「幸せとは何かという原点に帰ってまちづくりについて検討し、持続可能な地域を目指すというアプローチに感心した」(日本・内山怜和)という声から、テーマへの関心の高さがうかがえた。

(2)の回答では、「中国では、今、都市と農村の格差、自然環境などの問題がある。日本の観光まちづくりの経験を学び、中国での問題を解決する方法を身

につけたい」(中国・華珊)、「文化遺産の共有と共存で三国は一緒に発展して行けると思う。共存共栄していきたい」(日本・リュウ ソンウク)、「今後、中国の国内外の観光は、ますます多様化していく。地域の個性を観光の魅力とする観光まちづくりの考え方を中国も見習って欲しい」(中国・郭旭紅)といった意見が挙げられた。

(3)については、具体的な事例をもっと紹介して欲しかったという意見が多かった。限界集落に暮らす人々が、人とのつながりを大切に、互いに助け合い、生きがいを持って生活をしていることはよくわかったが、60分間の講義では、観光まちづくりの実例を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点が残念だったようである。「観光まちづくりの成功事例を数多く検証することで、それらをどこかの地域で活用できないか探りたい」(日本・内山怜和)という意見からも、受講生の積極的な姿勢や学習意欲が感じられた。

なお、受講生は、8月2日~4日まで、十津川村において2泊3日の視察研修を行った。

**学员们基于安村教授的授课内容,提交了一份小报告,回答了以下3个问题:(1)“从本课程中得到了何种启示?”(2)“你认为课程的哪些内容可活用于今后的工作?”(3)“还希望深入了解哪方面内容?”**

在回答问题(1)时,学员们纷纷表示,“这节课让我了解到了经济发展带给日本的利与弊”(中国学员·宋璐)、“尽管(身为大学生的)我对日本经济高速发展的历史全然不知,但对课上提及的部分资本主义的隐患却依然深感共鸣”(日本学员·辻谷明代)、“人口老龄化与社会关系疏离也已成为韩国面临的社会问题,所以我对课程的内容深有同感”(韩国学员·LEE JEONG EON)。这显示出,学员们通过本次课程深刻理解了日本所面临的各种社会问题及其背景原因。

另外,学员们都对课程的主题显示出了浓厚的兴趣,他们表示,“我发现,韩国农村的情况与日本如出一辙,两者之间存在许多相通之处”(韩国学员·KIM JI EUN)、“我感到,日本极限村落面临的问题非常严峻。中国恐怕也会出现同样的状况。当我听说整个村落都有可能就此消失时,真的非常震惊”(中国学员·黄清清)、“从追问幸福的含义出发,在此基础上商讨旅游城乡的开发方案,力争实现本地区的可持续发展,这种做法令人钦佩”(日本学员·内山怜和)。

针对问题(2),学员们在报告中回答称,“目前,中国城市与农村贫富差距悬殊,

同时还面临着自然环境遭到破坏等各种问题。我希望能学习日本旅游城乡开发的经验,为中国摸索出解决问题的途径”(中国学员·华珊)、“我认为,在文化遗产的共享与共存方面,日中韩三国可以共同发展,共同繁荣”(日本学员·柳成煜)、“今后,中国的国内与国际旅游业会日趋多样化,所以希望中国也能学习旅游城乡开发的理念,通过发挥个性来增添地区魅力”(中国学员·郭旭红)。

在回答问题(3)时,许多学员都表示希望讲师能介绍更多的具体案例。学员们通过本次课程了解到,极限村落的村民都非常重视人际关系,互帮互助,互相扶持,努力在生活中实现自身价值。但由于60分钟的课程时间有限,无法详细介绍旅游城乡开发的具体案例,许多学员都对此感到非常遗憾。有学员表示,“今后会多多查阅旅游城乡开发的成功案例,并试着在部分地区推广这些经验”(日本学员·内山怜和),从中可以感受到学员们求知与学习的强烈欲望。

另外,学员们从8月2日至4日前往十津川村进行了2天3宿的参观培训。

**야스무라 교수님의 강의후, (1) '강의에서 얻은 발견은?', (2) '자신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은?', (3)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은?'의 3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리포트를 제출했다.**

(1)의 회답에서는, '일본이 경험한 경제성장의 메리트와 결점을 잘 알았다' (중국·송루) '고도의 경제성장을 전혀 모르는 대학생인 나도, 자본주의의 문제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일본·쓰지타니 아키요), '한국에서도 고령화나 사회관계의 절단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매우 공감할 수 있었다' (한국·이정연)라는 감상을 발표하였으며, 강의를 통해, 일본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그 사회적 배경에 잘 이해가 간 것 같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시골에 그다지 차이가 없고,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한국·김지은), '일본의 한계촌락의 엄격함을 느꼈다. 아마 중국도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촌락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들어 충격적이었다' (중국·황칭칭),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원점에 돌아가서 지역만들기 대해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목표로 하는 어프로치에 감탄했다' (일본·우치야마 레이오)라는 발언으로부터 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엿볼 수 있었다.

(2)의 회답에서는, '중국에서는 지금 도시와 농촌의 격차, 자연 환경 등의 문제가 있다. 일본의 관광지역 만들기에 관한 경험을 배우고, 중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중국·화아산), '문화 유산의 공유와 공존면에서 3국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존공영 해 가고 싶다' (일본·류성욱), '이후, 중국의 국내외의 관광은 점점 다양해 간다. 지역의 개성을 관광의 매력으로 하는 관광지역 만들기에 관한 사고방식을 중국도 배웠으면 한다' (중국·구어쉬홍)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3)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더욱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계촌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서로 돕고, 보람 있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잘 알았지만, 60분간의 강의로는 관광지역 만들기에 관한 실례를 자세하게 알 수 없었던 점이 유감스러웠던 것 같다. '관광지역 만들기에 관한 성공 사례를 많이 검증하여 어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없을지 살피고 싶다' (일본·우치야마 레이오)라는 의견으로부터도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자세나 학습 의욕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수강생들은 8월2일~4일까지 도쓰카와무라에서 2박3일의 시찰연수를 실시했다.



日中韓關係の過去と現在  
日中韓关系的过去与现在  
일중한 관계의 과거와 현재

# 政治学からみた

从政治学角度审视日本历史与日中韓关系三国未来应构筑何种关系?

# 日本の歴史と日中韓の關係論

정치학으로부터 본 일본의 역사와 일중한의 관계론앞으로 3국은 어떤 관계를 쌓아야 할까

# 今後、三国はどのような

# 關係を築くべきか

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と、日中韓の關係は非常に重要である。今後、三国はどのような關係を築くのが望ましいのか、日本の平和的發展の歴史を紐解きながら考える。

古来、日中韓の關係は、中国を中心とした同心円的な關係にあり、韓国はその優等生的存在であった。日本は大陸から離れていたため、近代以降、いち早く欧米の文明を受け入れ、經濟發展を遂げる。それは軍國主義の失敗を省みた平和的發展であり、アジア諸国のモデルとなった。韓国、中国も日本の後を追って經濟的に發展し、2010年には中国が日本を追い抜き、GDP世界2位の座に躍り出た。そして今、産業界でのハイブリッド化(異種混合)を通して、三国は新しい關係を築きつつある。中国の大国化、朝鮮半島の緊張など、様々な問題はあるが、EUのように東アジア共同体を作り、平和的共存の道を探るべきである。

对于东亚的未来而言,日中韩关系占据着极为重要的地位。三国未来建立何种关系才是较为理想的呢?我希望在追溯日本和平发展历史的角度考虑这个问题。自古以来,日中韩关系是以中国为中心的同心圆结构,韩国是其中的优等生。日本由于和大陆相隔较远,近代以来最早接受欧美文明,并实现经济腾飞。日本的和平发展基于对军国主义失策的反省,从而成为亚洲各国的模范。韩国与中国也紧随其后,发展自身经济,中国终于在2010年超越日本,GDP跃居世界第二。如今,产业界正通过分工重整,日益建构起三国之间的新型合作关系。本地区虽面临着中国的大国化,朝鲜半岛紧张持续等诸多问题,但我们应该建立犹如欧盟的东亚共同体,探索和平共存之路。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일중한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3국은 어떤 관계를 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일본의 평화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한다.

예로부터, 일중한의 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인 관계에 있었고, 한국은 그 우등생적 존재이었다. 일본은 대륙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대 이후 재빨리 구미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경제발전을 이룩한다. 그것은 군국주의의 실패를 뒤돌아 본 평화적 발전이며 아시아제국의 모델로 되었다. 한국과 중국도 일본의 뒤를 따라서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GDP세계 2위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 산업계에서의 하이브리드화(이종혼합)을 통해, 3국은 새로운 관계를 쌓고 있다. 중국의 대국화, 한반도의 긴장 등, 여러가지 문제는 있지만, EU와 같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평화적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

## 小此木政夫

庆应义塾大学名誉教授

## 小此木政夫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 오코노기 마사오

慶應義塾大学地域研究センター所長、日韓共同研究フォーラム日本側座長、日韓文化交流会日本側座長、現代韓国朝鮮学会会長、小泉総理・対外関係タスクフォース委員、福田総理・外交政策勉強会委員、日韓新時代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日本側委員長などを歴任。専攻は国際政治論、韓国・朝鮮現代政治論。主な著書・編著に『東アジア地域秩序と共同体構想』・『危機の朝鮮半島』(どちらも慶應義塾大学出版会)など。

庆应义塾大学地域研究中心所長, 历任日韓共同研究论坛日方主席、日韓文化交流会日方副主席、現代韓国朝鮮学会会长、小泉純一郎首相对外关系机动小组委員、福田康夫首相外交政策学习会委員、日韓新時代共同研究项目日方委員長等。主攻国际政治論、韓国・朝鮮現代政治論。主要著作・編著有:《东亚地区秩序与共同体構想》、《陷入危机的朝鮮半島》(均为庆应义塾大学出版会出版)等。

게이오기주쿠대학 지역연구센터 소장, 일한 공동연구포럼 일본 측 단장, 일한 문화교류회의 일본 측 부단장, 현대 한국조선학회 회장, 고이즈미총리대외관계 태스크포스 위원, 후쿠다 총리·외교정책 학습회 위원,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본 측 위원장 등을 역임. 전공은 국제 정치론, 한국·조선 현대 정치론, 주된 저서·편저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공동체 구상』·『위기의 한반도』(어느쪽도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 등.



2011  
7/26  
Tue.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小此木氏の講義を踏まえ、「日中韓関係において関心を持ったことと、それに対する個人の考え」、「将来の日中韓関係に対してどのような取り組みができるか」という二つの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三国の関係の変化について、「東アジアの文化、経済の流れは、この150年で大きく変わってきた。三国は同じ成功と失敗を共有する可能性が高く、互いに参考にできると思う」（日本・リュウ ソンウク）、「中国中心か、アメリカ中心か、日本中心かではなく、お互いが協力し合って強くなるという時代が出現してきたと感じた」（中国・李鑫）という声が聞かれた。三国の関係は、それぞれの国にとっても大きな問題であり、今後、各国が平和的に発展していくためには、互いの協力が不可欠であるとの認識を新たにした受講者が多かったようである。その思いは、「東アジアの未来は、相互を認めながら、一に協力、二に協力、三にも協力が重要だ。三国が協力すれば、世界の平和は近いと信じている」（韓国・イ ナムジュ）という意見に集約されていた。

東アジア共同体の形成に対しては、「同じ政治体制を持たない状態で、東アジア共同体を提唱するのは難しい。米国の立場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中

国・閻留強）、「ヨーロッパのような統合の仕方は難しいと思う。今後、お互いのことを知り合い、共通部分で理解することが重要だ」（韓国・ジョン ミヨン）といった懐疑的な意見が出された一方で、「遠い将来を見据えるのは悪くない」（日本・内山 怜和）、「経済の発展に従って、残っている問題を解決できるかもしれない」（中国・蔡鑫）といった前向きな意見も出された。

また、東アジアを考える上で、北朝鮮という国の存在を無視することは不可能だが、対話を通して、「北朝鮮について色々な人の意見が聞けた」（韓国・キム ジウン）という感想が挙げられた。このほか、中国の脅威や日中韓の領土問題については、「中国脅威論をなくすため、自分の仕事を通して自国の平和政策と国民の真心を伝え、謙虚な態度で外国の方と付き合いたい」（中国・宋璐）、「領土問題は悪く言えば争いだが、国家間の歴史を認識する良いチャンスでもある」（日本・堀部暢一）という意見が出された。

**基于小此木教授的讲座,学员们就如下两个主题开展了分组讨论:**

**一是“对于日中韩关系的兴趣点以及个人看法”,二是“面向未来,日中韩关系能有何作为?”**

就三国关系的变化,学员们有意见说“东亚地区的文化与经济大势,在过去150年间发生了巨大变化。三国共享成功经验和失败教训的可能性很高,可以互为参考”(日本・柳成煜)、“我感觉,不是中国中心,或者美国中心,还是日本中心的问题,而是相互合作,互惠互强的时代已经出现了”(中国・李鑫)。许多学员再次认识到,三国关系对于每个国家都具有重大意义,为了各国未来的和平发展,相互合作不可或缺。这种意见可以总结为以下观点“东亚的未来应在相互认可的基础上,一要合作,二要合作,三还要合作。相信世界和平并不遥远”(韩国・LEE NAM JU)。

对于东亚共同体的构建问题,一些学员持怀疑态度:“在政治体制不同的情况下,提倡东亚共同体十分困难。我们还需考虑美国立场”(中国・闫留

强)、“我认为类似欧洲的整合方式较为困难。今后相互了解对方,增加对相通部分的理解至关重要”(韩国・JEOUNG MI YOUNG)。与此同时,也有对此显示积极态度的意见:“放眼未来并不是坏事”(日本・内山 怜和)、“伴随着经济发展,遗留问题或许可以解决”(中国・蔡鑫)。

此外,考虑东亚地区的问题,不可忽视朝鲜的存在。就此,有学员谈了自己的感想“通过对话,我了解到人们对朝鲜的各种意见”(韩国・KIN JI EUN)。此外,就中国的威胁和日中韩领土问题,学员们有意见认为:“为了打消中国威胁论,应通过自己的工作,传达中国的和平政策和民众的真心诚意,以谦虚的态度和外国人交往”(中国・宋璐)、“领土问题往坏处讲是纷争,但同时也是认识国家间历史的良好契机”(日本・堀部暢一)。

**오코노기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일중한관계에 관심을 가진 것과 그에 대한 개인의 생각’, ‘장래의 일중한관계에 대하여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 테마로 그룹 대화를 나눴다.**

3국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문화, 경제의 흐름은 이 150년에 크게 바뀌었다. 3국은 같은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는 가능성이 높고, 서로 참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일본・류성욱), ‘중국 중심인가, 미국 중심인가, 일본 중심인가가 아니고, 서로가 협력해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시대가 왔다고 느꼈다’(중국・리이신) 라는 발언이 있었다. 3국의 관계는 각 나라에 있어서도 큰 문제이며, 앞으로 각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라는 인식을 새롭게 한 수강자가 많았던 것 같다. 그 소원은 ‘동아시아의 미래는 상호를 인정하면서, 첫번째 협력, 두번째도 협력, 세번째도 역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3국이 협력하면 세계의 평화는 가깝다고 믿고 있다’(한국・이남주)라는 의견에 집약되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는 ‘같은 정치체제를 가지지 않는 상태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창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중국・옌류우창), ‘유럽과 같은 통합 방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서로를 더 잘 알고, 공통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정미영)라고 한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먼 장래를 눈여겨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일본・우치야마 레이오), ‘경제의 발전을 따라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중국・차이신)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를 생각하는 동시에 북한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한국・김지은)라는 감상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외에 중국의 위협이나 일중한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위협론을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일을 통해 자국의 평화 정책과 국민의 진심을 전하고, 겸허한 태도로 외국 분과 사귀고 싶다’(중국・송루), ‘영토문제는 나쁘게 말하면 싸움이지만, 국가간의 역사를 인식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다’(일본・호리베 요이치)라는 의견이 있었다.



日本文化史とアジアの関係  
日本文化史与亚洲的关系  
일본문화사와 아시아의 관계

# 日本の稲作文化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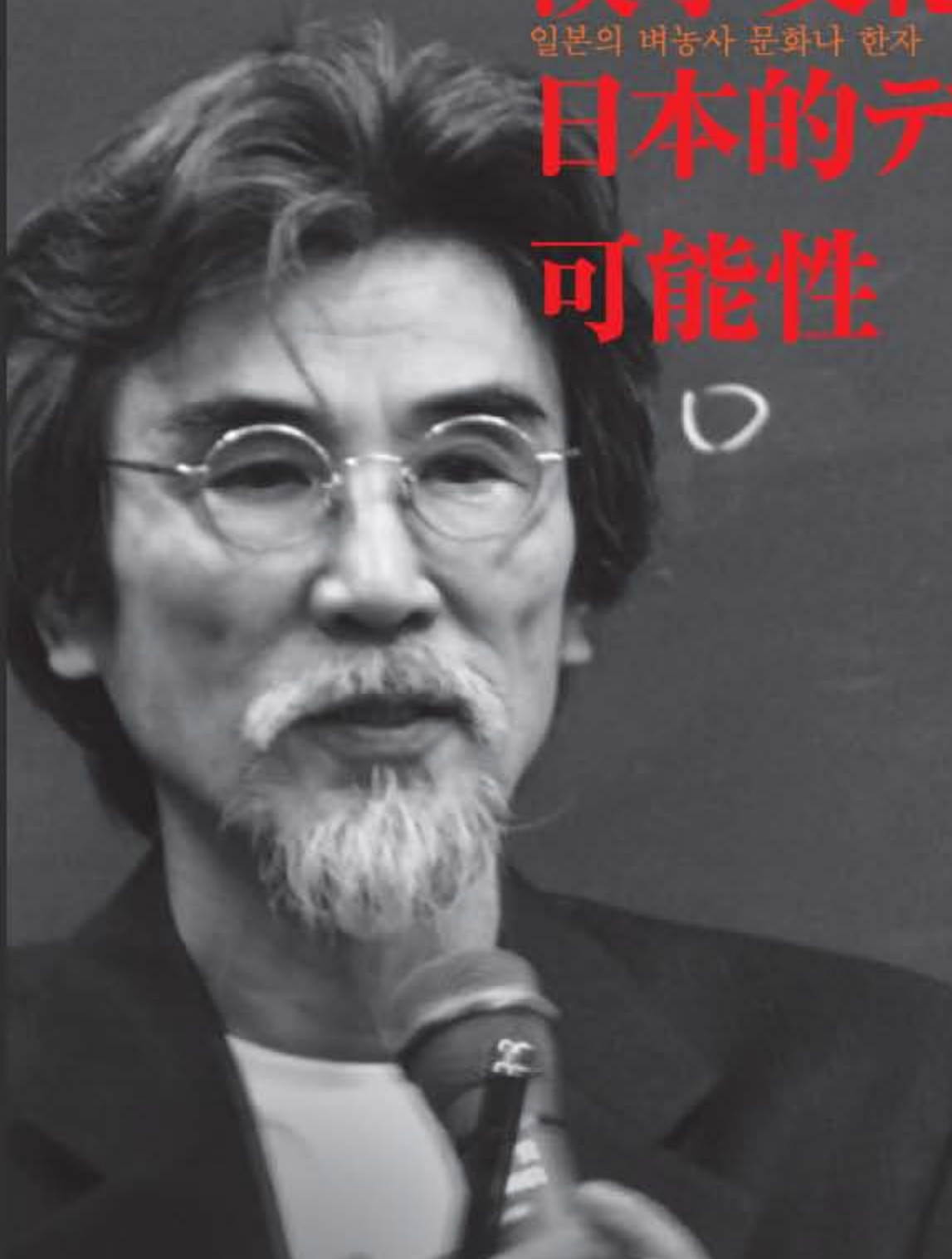
学习日本稻作与汉字文化探索“日本式双重标准”的无限潜力

# 漢字文化に学ぶ

일본의 벼농사 문화나 한자 문화로부터 배우는 일본의 듀얼 스탠다드의 가능성

# 日本的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の

# 可能性



編集工学研究所所長

**松岡正剛**

编辑工学研究所所长

**松岡正剛**

편집공학연구소 소장

**마쓰오카 세이코**

日本の編集者、著述家、日本文化研究者、編集工学を提唱。京都府出身。東京大学客員教授、帝塚山学院大学教授を歴任。現在、松岡正剛事務所代表、編集工学研究所所長、ISIS編集学校校長、連志連衆會理事、日本と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委員会幹事長。

日本知名编辑、著述家、日本文化研究者、倡导编辑工学。出生于京都。曾历任东京大学客座教授、帝塚山学院大学教授。现任松岡正剛事務所代表、编辑工学研究所所长、ISIS编辑学校校长、连志连众会理事、日本与东亚未来研讨委员会干事长。

일본의 편집자, 저술가, 일본문화 연구자. 편집공학을 제창. 교토 부 출신. 도쿄대학 객원교수, 테크야마학원대학 교수를 역임. 현재, 마쓰오카 세이코 사무소 대표, 편집공학연구소 소장, 이시스ISIS편집학교 교장, 연꽃 연중회 이사, 일본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원회 간사장.



2011  
7/26<sup>日</sup>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日本は日本海の陥没によってアジアと切り離されたが、様々なものが海を越えて大陸から伝わった。中でも革命的だったのが、稲、鉄、漢字である。

日本人はこれらをそのままの形で受け入れたのではない。日本国内で伝播する過程で、もとの形や仕組みに日本風の工夫を加え、漢風と和風が融合した独自の文化を構築した。この日本人が持つ多様性を、私は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二重標準)と呼んでいる。しかし、現代の日本はアメリカの影響を強く受け、安易に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偏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東アジアの中でどうい見識を持つかが問われている時代だ。漢字学者・白川静の座右の銘、「志あるを要す、恒あるを要す、識あるを要す」を胸に、大きな見識を持つよう努力して欲しい。

地质运动形成日本海后,日本便脱离亚洲大陆,与之隔海相望。但尽管如此,各种事物却依然远渡重洋,从亚洲大陆传播到了日本。其中,最具革命意义的当属水稻、铁器、及汉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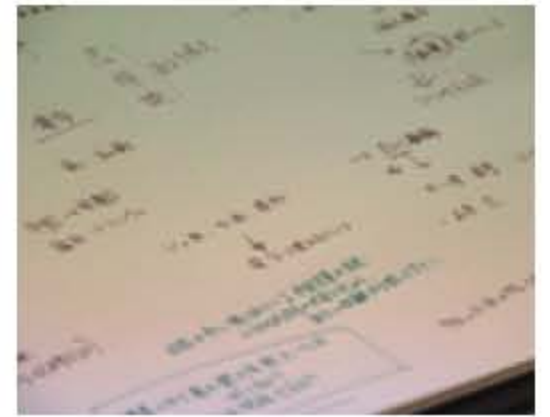
对于这些外来事物,日本人并没有囫圇吞枣,而是在传播至各地的过程中,为其融入日本特色,最终构筑起中日合璧的独特文化。我将这种日本人特有的融会贯通的多样性称为“双重标准”。但令人遗憾的是,现代日本却受美国的强烈影响,不假思索地一味追随全球化浪潮。如今正是考验东亚各国才学远见的时刻,希望诸位学员时刻铭记著名汉学家白川静的座右铭“须有志、须有恒、须有识”,努力拓宽眼界,学会高瞻远瞩。

일본은 일본해의 함몰에 의해 아시아의 일부로 되었지만, 많은 것이 바다를 넘어서 대륙으로부터 전해졌다. 그 중에서도 혁명적이었던 것이 벼, 철, 한자다.

일본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일본국내에서 전파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형태나 구조에 일본식의 연구를 가하고, 중국식과 일본식이 융합한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했다. 일본인이 가진 다양성을 나는 듀얼 스탠다드(이중표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안이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동아시아에서 어떤 견식을 가지고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시대다. 한자학자·시라카와 시즈카씨의 좌우명, '뜻이 있는것, 견지성이 있는 것, 지식이 가진 것을 요한다(의역)'를 가슴에 묻고 큰 견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松岡氏の講義を踏まえ、「最も関心を持ったことは何か、またその理由は」、  
「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によって日本はどのような文化の特徴を持ち、  
それが日中韓交流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ているか」という二つの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まず、日本の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について関心を持った参加者が多かったようである。「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という言葉は初めて聞いた」(韓国・キム ヨンシム)(日本・若杉真紀子)という参加者がいる一方、「普段意識することはないが、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が、文化、生活の根底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確信することができた」(日本・辻谷明代)と感じている参加者もいた。このほか、「日本が外来の文化を受け入れ、日本風にアレンジし、自国のものとするのは、中国や韓国から見て凄いことだと思われていることが新鮮だった」(日本・森田修平)、「日本文化と日本人の考え方をもっと知りたい」(中国・呉欽)、「日本の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についてさらに詳しく知りたい」(中国・郭旭紅)という意見が出された。

次に、三国の共通文化である漢字への関心も強く、「中国古文字、甲骨文字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文字の意味と構造などを考え続けたい」(中国・郭旭紅)、「白川静先生が発見した漢字の成り立ちを紹介してもらえてよかつた。もっと詳しく知りたい」(日本・内山怜和)、「韓国で中国漢字を学んだが、今回は日本の観点で漢字を学べて面白かった」(韓国・イ ジョンウォン)という感想が出た。漢字文化圏の国として、漢字の成り立ちや意味を知ることが大事だと感じたようである。ただ、講義は、日本史、特に古代史をベースとして、日本に稲作や漢字が伝わり、どう変化していったかについて解説されており、話題が多岐にわたっていたため、「内容が難しく理解できなかった。もっとやさしい説明が欲しかった」(韓国・イ カンヨル)、「ちょっと難しかったが面白かった」(中国・毛玉珩)という声も挙がった。

「何か新しいことを受け入れるとき、その長所と自分の持つ文化の長所を比べて、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の観点で融合させたい」(日本・リュウ ソンウク)、「日本は中国と韓国の間に入って、三国の連携を深めていく役割を担う可能性があると感じた」(日本・山本直樹)といった意見に代表されるように、日本の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の可能性を感じた講義であった。

「何か新しいことを受け入れるとき、その長所と自分の持つ文化の長所を比べて、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の観点で融合させたい」(日本・リュウ ソンウク)、「日本は中国と韓国の間に入って、三国の連携を深めていく役割を担う可能性があると感じた」(日本・山本直樹)といった意見に代表されるように、日本のデュアルスタンダードの可能性を感じた講義であった。

学员们基于松冈所长的授课内容,分别就“最感兴趣的事物及理由”、  
“‘双重标准’为日本带来何种文化特征,其对日中韩交流会造成何种影响”这两大话题展开了讨论。

“双重标准”的概念引起了学员们的浓厚兴趣,有学员表示,“这是我第一次听到‘双重标准’这个词”(韩国学员·KIM YEON SHIM),(日本学员·若杉真纪子);也有学员坦言,“虽然平时并没有意识到,但我可以肯定,双重标准确实渗透到了日本的文化及日常生活当中”(日本学员·辻谷明代)。另有学员表示,“日本接受外来文化时,会对其进行日本式的改进,最终使其成为本国文化的一部分,这一点在中韩两国的人看来很值得敬佩,这让我感到非常意外”(日本学员·森田修平)、“希望能深入了解日本文化及日本人的思维方式”(中国学员·吴钦)、“想知道更多关于日本双重标准的东西”(中国学员·郭旭红)。

另外,学员们对流传于日中韩三国的汉字也给予了极大的关注,他们表示,“这节课让我对中国的古文字—甲骨文产生了兴趣,希望能进一步研究文字的含义和结构等”(中国学员·郭旭红)、“课程介绍了白川静先生提出的汉字源流系统,非常有

意义,我很想深入了解这方面的知识”(日本学员·内山怜和)、“虽然我在韩国也学过汉字,但这堂课却让我从日本的视角重新学了一次汉字,很有意思”(韩国学员·LEE JEONG EON)。学员们都深切感受到,作为汉字文化圈的一员,了解汉字的字源及含义具有重要意义。但另一方面,由于课程以日本史,尤其是古代史为主线,讲解了日本稻耕及汉字文化传播、演变的过程,内容涉猎甚广,因而也有学员指出,“课程内容太深,跟不上,希望能讲解得更简明易懂一些”(韩国学员·LEE KANG LYUL)、“虽然有点难,不过很有趣”(中国学员·毛玉珩)。

另有学员表示,“在接受新事物时,应该就其长处与本国文化的长处进行对比,而后从双重标准的观点出发,将它们结合在一起”(日本学员·柳成煜)、“我觉得,日本完全可以充当中介人的角色,促使日中韩三国增进交流与合作”(日本学员·山本直树)。学员们都通过这一课程感受到了日本式双重标准的巨大潜力。

마쓰오카 세이고 소장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또한 그 이유는’, ‘듀얼 스탠다드에 의해 일본은 어떤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일중한국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가’를 테마로 그룹 대화를 나눴다.

우선, 일본의 듀얼 스탠다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참가자가 많았던 것 같다. ‘듀얼 스탠다드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 (한국·김연심) (일본·와카스기 마키코) 등 참가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의식 할 일은 없지만, 듀얼 스탠다드가 문화, 생활의 근저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일본·쓰지타니 아키요)라고 느끼고 있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 외에, ‘일본이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식으로 어레인지하여, 자국의 물건으로 하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보면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 신선했다’ (일본·모리타 슈헤이), ‘일본문화와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더욱 알고 싶다’ (중국·우친), ‘일본의 듀얼 스탠다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 (중국·구어쉬훙)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다음, 3국의 공통 문화인 한자에의 관심도 깊어지고 ‘중국 고대 문자, 갑골 문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자의 의미와 구조 등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싶다’ (중국·구어쉬훙), ‘시라카와 시즈카 선생님이 발견한 한자의 성립을 소개해 주셔서 좋았다.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일본·우치야마 레이오), ‘

한국에서 중국 한자를 배웠지만, 이번은 일본의 관점에서 한자를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한국·이정언)라는 감상도 있었다. 한자문화권의 나라로서, 한자의 성립과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다. 다만, 강의는 일본사, 특히 고대사를 베이스로 일본에 벵농사나 한자가 전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해설되고 있어, 화제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더욱 쉬운 설명을 원했다’ (한국·이강열), ‘조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중국·마오위형)라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장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장점을 비교하여, 듀얼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융합시키고 싶다’ (일본·류성욱),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중간에 개입하여, 3국의 연계를 깊게 해 가는 역할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 (일본·야마모토 나오키)라는 의견이 대표되는 듯이, 일본의 듀얼 스탠다드의 가능성을 느낀 강의이었다.



東アジア文化交流史  
东亚文化交流史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 一支国を中心に見る

彌生日本古国——一支国回顾弥生时代的东亚交流

# 弥生時代の東アジア交流

이키고쿠를 중심으로 보는 야요이 시대의 동아시아 교류



大手前大学教授

## 上垣外憲一

大手前大学教授

## 上垣外宪一

오테마에대학 교수

## 가미카이도 켄이치



1948年長野県松本市生まれ。1972年東京大学大学院文学比較文化課程修了。1987年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助教授、1990年「雨森芳洲」でサントリー学芸賞(社会・風俗部門)を受賞。1994年東京大学学術博士、1997年帝塚山学院大学教授、2009年より大手前大学総合文化学部教授。著書に、「ある明治人の朝鮮観」、「日本文化交流小史」、「謎の四世紀」などがある。

1948年出生于长野县松本市，1972年于东京大学研究生院修完文学比较文化课程。1987年出任国际日本文化研究中心副教授，1990年以《雨森芳洲》一书荣获三得利学艺奖(社会·风俗领域)。1994年获东京大学学术博士学位，1997年任帝塚山学院大学教授，2009年就任大手前大学综合文化学部教授。著有《某位明治人的朝鲜观》、《日本文化交流小史》、《谜一般的公元四世纪》等。

1948년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출생. 1972년 도쿄대학 대학원 문학 비교문화과정 수료. 1987년 국제 일본문화 연구센터 조교수, 1990년 '이에노모리 호슈(雨森芳洲)' 산토리 학예상(사회·풍속부문)을 수상. 1994년 도쿄대학 학사박사, 1997년 데즈카야마학원대학 교수, 2009년부터 오테마에대학 종합 문화학부 교수에 취임. 저서는 '어떤 메이지인의 조선관', '일본 문화교류 소사', '수수께끼의 4세기' 등이 있다.

2011  
7/27  
wed.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稲作は弥生時代に中国から朝鮮半島を通過して日本へ伝わった。また、日本は韓国から鉄や鉄製品を輸入し、韓国、中国へ銅を輸出していた。貿易の拠点となったのが、九州と対馬の間に位置する長崎県壱岐島だ。

「魏志倭人伝」などの史書に「一大国(一支国)」と記されている島国は壱岐島だったとされ、古来、朝鮮半島と九州を結ぶ海上交通の中継点だった。日中韓三国間には領土問題や政治的問題が今なお残されているが、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ためには、悪い歴史を反省し、繰り返さないことが大切である。戦争の歴史より平和の歴史が、政治の歴史より文化の歴史が、積み重なり厚みを増すよう我々は努力すべきだ。そのためには、こうした文化交流の歴史を学ぶことも必要である。

在日本弥生时代，水稻耕种技术从中国经由朝鲜半岛传至日本。与此同时，日本从韩国进口铁及铁器，又向中韩两国出口铜。当时，地处九州与对马之间的长崎县壱岐岛充当着日本对外贸易的窗口。

据信，《魏志倭人传》等史书中记载的“一大国(一支国)”便是当时的岛国——壱岐岛。自古以来，该岛一直是连接朝鲜半岛与日本九州的海上枢纽。时至现代，虽然日中韩三国仍存在领土纠纷及政治摩擦，但为创建东亚地区的美好未来，三国必须反省历史过错，避免重蹈覆辙。为促进和平的历史胜于战争的历史、文化的历史优于政治的历史，我们都应不懈努力，让交流与友谊聚沙成塔。为实现这一目标，学习文化交流史具有举足轻重的意义。

벼농사는 야요이 시대에 중국에서 한반도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서 철이나 철제품을 수입하고, 한국, 중국에 동을 수출하고 있었다. 무역의 거점으로 된 것은 규슈와 쓰시마섬(대마도)의 중간에 위치하는 나가사키현 이키섬이었다.

‘위진왜인전’ 등의 사서에 이키고쿠(一大国)이라고 적혀 있는 섬나라는 이키섬이었다고, 예로부터 한반도와 규슈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계점이었다. 일중한 3국간에는 영토문제나 정치적 문제가 지금도 남겨져 있지만,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역사는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의 역사보다 평화의 역사, 정치의 역사보다 문화의 역사를 쌓아 가도록 우리들은 노력해야 한다. 그 때문에, 이러한 문화교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上垣外氏の講義を踏まえ、「地方の歴史をそれぞれの発展にどう活かしていけるか」、  
「地方の歴史を活かして、三国間にどんな交流が考えられるか」という二つの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歴史と観光を結び付ける参加者が多く、「地方を映画とドラマの舞台にし、町の歴史を海外にアピールする。人は特別な料理を食べたいという気持ちを持って旅行するので、歴史遺跡と料理を中心に地方の観光産業を発展させる」(中国・華珊)、「歴史というテーマで町を活性化させるには、偉人や料理というキーワードが出た。歴史は色々なアプローチがあると思うが、多くの人に受け入れられやすい視点でPRしていくことが大切だと感じた」(日本・山本直樹)、「科学技術でよく言われている産学共同を観光に取り入れ、歴史学や考古学の研究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観光プラン開発の可能性や成功例があるのかを調べてみたい」(日本・若杉真紀子)、「慶州には観光資源化されている遺跡がたくさんあるが、まだ私たちが知らない所もあると思う。帰国したら、身近な所から関心を持って取り組みたい」(韓国・ジョン ミヨン)、「三国は歴史的に深い関係があるので、例えば、稲の伝播のみち(ライスロード)を巡るツアーなどを開発すると、三国の相互理解が深まると思う。もちろん、その前に学者たちの研究と交流が必要だと思

う」(韓国・キム ヨンシム)などの意見が出た。

このほか、「文化は政治という壁を乗り越えて、東アジアは一つのかたまりで考え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った」(韓国・ファン ソユン)という感想や、「昔の日本は、翡翠や銅などの資源をたくさん持っていたことに驚いた。観光のために遺跡を活かすのは非常に重要だ。小学生は本で歴史や文化を勉強するだけでなく、博物館などで実物を見学しながら勉強すれば意欲が高まると思う。楽しく歴史、文化を勉強することが大事だ」(中国・劉朴)などの意見があった。

また、「古代中国の長江下流域稲作遺跡をさらに詳しく紹介して欲しい。稲作伝播経路の一つ、楊家園の話も知りたい」(中国・郭旭紅)、「弥生時代以降の中韓日の文化交流の成果を知りたい」(韓国・キム ジュンゴン)、「弥生時代だけでなく、日本の別の時代のことも知りたい」(中国・吉明)など、さらに知識を深めたいという意欲的な声もあった。

**学员们基于上垣外教授的授课内容,分别就“如何活用地方史为地区注入活力”、及“可通过地方史开展什么样的日中韩三边交流”这两个话题展开了讨论。**

许多学员都将历史与旅游相结合,他们纷纷表示,“可以拍摄与本地区相关的电影或电视剧,向全世界展示地区的历史底蕴。通常人们旅游时都希望品尝地方特色菜,所以可以考虑以历史遗迹和特色餐饮为核心,全力发展旅游业”(中国学员·华珊)。“如何依靠地方史搞活地区经济的问题,让我联想到名人和餐饮这两大关键词。对于历史,我们可以从各种角度做出不同的诠释,所以我觉得,找到能获得多数人认同的亮点并展开宣传攻势才是最重要的”(日本学员·山本直树)。“科技领域所倡导的‘产学研’也同样适用于旅游业,可以考虑参考历史及考古学者的意见设计旅游线路,我打算研究这一想法的可行性,并查找相关的成功案例”(日本学员·若杉真纪子)。“虽然庆州的许多历史遗迹已被开发成旅游景点,但我相信肯定还有一些被人们遗忘或忽略的遗址。回国后,我打算从居住地附近的地区开始,尝试寻找这些有待发掘的宝库”(韩国学员·JEOUNG MI YOUNG)。“韩中日三国存在着千丝万缕的历史牵绊,举例来说,如果设计出有关水稻传播之路(‘水稻之路’)的旅游线路,那就能促使三国相互加深理解。当

然,在实施这一计划前,必须先由三国学者进行充分的交流与研究”(韩国学员·KIM YEON SHIM)。

同时,还有学员表示,“我认为,文化必须超越政治这道屏障,我们必须将东亚看作密不可分的整体”(韩国学员·HWANG SO YUN)。“古代日本储藏着翡翠和铜矿等丰富的资源,这让我非常惊讶。在发展旅游业时,充分发掘历史遗迹的魅力具有深远的意义。另外,我觉得小学生不应该只通过书本学习历史和文化,如果能让他们前往博物馆等地参观真实的历史文物,相信一定有助于激发孩子们的学习欲望。历史与文化教育应该做到寓教于乐”(中国学员·刘朴)。

另外,学员们都显示出了旺盛的求知欲,希望了解更多的相关知识,他们表示,“希望讲师能详细介绍中国古代长江下游地区稻田遗址的情况,特别是位于水稻传播之路上的杨家圈遗址”(中国学员·郭旭红)。“很想知道弥生时代之后中韩日三国文化交流的成果”(韩国学员·KIM JUN KWON)。“除弥生时代之外,还想了解其他时代的东亚交流史”(中国学员·吉明)。

**가미가이토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지방 역사를 각자의 발전에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 ‘지방 역사를 활용하여 3국간에 어떤 교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테마로 그룹 대화를 나눴다.**

역사와 관광을 결부시키는 참가자가 많아, ‘지방을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로 하고, 도시의 역사를 해외에 어필한다. 사람은 특별한 요리를 먹고 싶다는 기분을 가지고 여행하므로, 역사유적과 요리를 중심으로 지방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다’ (중국·화아산), ‘역사라는 테마로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위인이나 요리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역사는 여러가지 어프로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시점에서 PR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일본·야마모토 나오키), ‘과학기술 영역에서 자주 말하는 산학공동을 관광에 도입하여,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연구자의 시점을 도입한 관광 플랜 개발의 가능성이나 성공 예가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 보고 싶다’ (일본·와카스기 마키코), ‘경주에는 관광자원화 되어 있는 유적이 많지만, 아직 모르는 곳도 있다고 생각한다. 귀국하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싶다’ (한국·정미영), ‘3국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벼의 전파방법 (ライス 로드) 순환 투어 등을 개발하면 3국의 상호 이해가 깊어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전에 학자들의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김연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 ‘문화는 정치의 벽을 극복하고, 동아시아는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황소윤)이라는 감상이나, ‘옛날 일본은 비취나 동 등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놀랐다. 관광을 위해 유적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초등학생은 책으로 역사나 문화를 공부할뿐만 아니라, 박물관 등에서 실물을 견학하면서 공부하면 의욕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즐겁게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류우푸)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고대 중국의 장강 하류 유역 벼농사 유적을 더욱 자세하게 소개해주었으면 싶다. 벼농사 전파 경로의 하나인 양자첸 (楊家園) 유적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중국·구어쉬홍), ‘야요이 시대 이후의 중한일의 문화교류의 성과를 알고 싶다’ (한국·김준권), ‘야요이 시대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시대도 알고 싶다’ (중국·지밍) 등, 지식을 더욱 넓히고 싶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東アジアの新しい課題～高齢化、過疎化、地域活性化～

东亚新课题——社会老龄化、人口流失与地区活性化

동아시아의 새로운 과제～고령화, 과소화, 지역활성화～

# 急速に進む

了解日益严峻的老龄化与人口流失情况，思考人口流失地区的挽救对策

# 高齢化と過疎化の現状を知り、

급속한 고령화와 과소화의 현상을 알고, 과소지역의 활성화에 대하여 생각한다.

# 過疎地域の

# 活性化について考える

三国の中でいち早く高齢化社会を迎えた日本の後を追うように、韓国・中国でも急速に高齢化が進む。中国の人口は日本の約10倍で、アジアの人口は世界の約60%を占める。高齢化がいかに深刻な問題を含んでいるかが想像できる。

農村部から都市部への人口移動もまた、経済・文化・情報の過疎化や所得分配の不平等をはじめとした様々な問題を生んでいる。地域の活性化には、知恵、知識、技術、心、創造性が不可欠である。フィールドワークで訪れる予定である奈良県十津川村では、「心と体を健康にする村づくり」を目指して地域再生に取り組んでいる。これらを参考に、風土を活かして地域を輝かせる個性豊かな地域づくりについて考えたい。

在日中韩三国中，日本最先进入老龄化社会，但如今中韩两国也在步日本的后尘，老龄化问题日益严峻。中国的人口约为日本的10倍，而亚洲的人口约占全世界的六成。可以想见，社会老龄化必将在亚洲引发一系列棘手的课题。

另一方面，农村人口大量涌入城市也在对经济与文化造成深重的影响，带来了信息不足、所得分配不公等各种难题。所以，为搞活地区经济，智慧、知识、技术、决心、创造力，缺一不可。本次野外实习的地点——奈良县十津川村以“创建身心健康的自然村庄”为目标，启动了地区重建活动。本课程参考这一案例，探讨了如何因地制宜、发挥地区个性、创建丰饶的村镇。

3국 가운데서 재빨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뒤를 따라, 한국·중국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인구는 일본의 약10배이고, 아시아의 인구는 세계의 약60%을 차지한다.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함유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농촌부에서 도시부에서의 인구 이동도 경제·문화·정보의 과소화나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역의 활성화에는 지혜, 지식, 기술, 마음, 창조성이 불가결하다. 필드워크로 방문할 예정인 나라현 도쓰카와무라에서는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재생에 힘쓰고 있다. 이것을 참고로, 풍토를 살려서 지역을 빛내는 개성 풍부한 지역만들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다.



2011  
7/27  
Wed.  
奈良県立大学  
奈良县立大学  
나라현립대학



奈良県立大学学長

## 伊藤忠通

奈良县立大学校长

## 伊藤忠通

나라현립대학 학장

## 이토 타다미치

1953年生まれ。関西学院大学経済学部卒業。関西大学大学院経済学研究科博士課程後期課程修了。沖繩国際大学助教授、奈良県立商科大学教授、奈良県立大学地域創造学部教授、英国ウェールズ大学客員研究員などを経て、2010年4月より現職。専門分野は財政学。著書に「準公共財の財政論」（共著、多賀出版、1984年）、「日本型税制改革」（共著、有斐閣、1987年）、「現代税制の課題」（共著、見洋書房、1998年）などがある。

出生于1953年。毕业于关西学院大学经济学部，后进入关西大学大学院经济学研究科修完博士课程。曾出任冲绳国际大学副教授、奈良县立商科大学教授、奈良县立大学地域创造学部教授、英国威尔士大学客座研究员等。2010年4月，就任奈良县立大学校长。主攻财政学。著有《准公共财产的财政论》（合著，多贺出版，1984年）、《日本型税制改革》（合著，有斐阁，1987年）、《现代税制的课题》（合著，见洋书房，1998年）等。

1953년 출생. 간사이 학원대학 경제학부 졸업, 간사이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박사 후기 과정 수료. 오키나와 국제대학 조교수, 나라 현립상과대학 교수, 나라 현립 대학 지역창조학부 교수, 영국 웨일즈대학 객원연구원 등을 거쳐, 2010년4월부터 나라현립대학 학장으로 취임. 전문분야는 재정학. 저서는 '준공공재산의 재정론' (공저, 다카출판, 1984년), '일본형 세제개혁' (공저, 유히가쿠, 1987년), '현대 세제의 과제' (공저, 고오모 쇼보, 1998년) 등이 있다.





## 伊藤氏の講義を踏まえ、「地元の地方にどんな課題があるか。また、その解決の取り組みは」、「地方が発展していくために、三国間の協力を通じてどのような取り組みが考えられるか」という二つのテーマでグループ対話を行った。

中国からの参加者は、日本が抱える過疎化、少子高齢化問題はこれから自分たちが直面する問題だと真摯に受け止め、「中国国内では、まだこの問題を解決する重要性に気付いていないと強く感じた」（日本・王磊）、「早く対策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少子高齢化対策の具体例を知りたい」（中国・吉明）、「日本の対策を中国の実情に合わせながら、少しでも役立てたい」（中国・李鑫）、「少子高齢化問題だけでなく、いろんな分野で協力しながら解決すべき」（中国・王容）などの意見が出された。

三国間の協力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地域で解決できていない問題を、どう三ヵ国で協力できるのか」（韓国・ファン ソユン）、「知識や現状の共有は図るべきだが、後はそれぞれの国で対策に取り組むべきであろう」（日本・森田修平）といった懐疑的な意見が出た一方で、「対話で納得のいく答えは出せなかったが、三国が共通の課題を抱えている状況を考えると、協力して問題解決にあたることは有意義なことだと思う。国としての連携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が、似た状況の

地域都市と協力して問題が解決できないか考えてみたい」（日本・若杉真紀子）という前向きな意見も出た。

このほか、少子高齢化対策については、「より多くの方が国際交流で他国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れば、国際結婚もできるし、一つの対策になるのでは」（中国・劉朴）、「国際結婚をすればいいと思う」（中国・華珊）などが、地域活性化については、「大学と村をつなぐ連結者の役割を担いたい」（韓国・イ カンヨル）、「農村体験プログラムの開発が必要だと思う」（韓国・イム ヨンチョル）などの具体的なアイデアが出された。

さらには、「伊藤先生の地域マネジメントという考え方に興味がある。もっと知りたい」（中国・毛玉珩）、「奈良県立大学は一つの学部しかないのに、就職率がほぼ100%だと聞いて驚いた。それだけ多くの需要があるということだ。帰国後、地域創造学部について、大学に提案したい」（中国・黄清清）などの声も挙がっていた。

## 学员们基于伊藤校长的授课内容，分别就“所在地区的课题与解决办法”、及“如何通过日中韩三国合作促进地区发展”这两个话题展开了讨论。

中国籍学员普遍对困扰日本的人口流失及少子老龄化问题给予了莫大的关注，认为这也是中国所面临的课题。他们纷纷表示，“我强烈感到，中国国内尚未意识到这两大问题的严重性和解决问题的紧迫性”（日本学员・王磊），“必须尽快摸索对策，我很想了解日本针对少子老龄化采取的具体措施”（中国学员・吉明），“应该基于中国的国情活用日本的对策，希望我能为解决这两大问题尽一份力”（中国学员・李鑫），“不仅是少子老龄化问题，我们还应该在各个领域加强合作，携手解决问题”（中国学员・王容）。

还有学员就日中韩三国之间的协作提出质疑说，“如何才能通过三国合作来解决这些各地区无法独立应对的问题呢？”（韩国学员・HWANG SO YUN），“三国确实应该共享面临的课题与解决方法，但其后各国必须独自采取相应的对策”（日本学员・森田修平）。但同时，也有学员认为，“虽然单纯的交流确实无法得出令人满意的答案，但我认为，面临着相同课题的日中韩三国尝试互相协作、共同解决问题依然具有非常重要的意义。或许国家层面的合作存在一定障碍，但境遇相

似的城市或地区可以通过合作来摸索解决之道，我准备研究一下这种协作方式的可行性”（日本学员・若杉真纪子）。

另外，还有不少学员就少子老龄化对策提出了自己的设想，他们表示，“如果有更多人通过参与国际交流对其他国家产生兴趣，那就有可能促进国际联姻，这也不失为一种对策”（中国学员・刘朴），“我觉得可以考虑跨国通婚”（中国学员・华珊）。还有学员就搞活地区经济的方法表示，“我要努力成为连接大学与村庄的中介人”（韩国学员・LEE KANG LYUL），“有必要进一步开发农家乐体验活动”（韩国学员・LIM YEONG CHEOL）。

另一方面，也有学员表示，“对伊藤校长提出的‘地区经营’的概念很感兴趣，希望能深入了解相关的知识”（中国学员・毛玉珩），“我听说奈良县立大学只有一个学部，但就业率却将近100%，实在令人惊叹。这恰恰说明社会急需这方面的人才。回国后，我准备提请我所在的大学开设地域创造学部”（中国学员・黄清清）。

## 이토 학장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출신 지역에는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인가? 또한, 그 해결 대처는’, ‘지방이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3국간이 협력하는 어떤 시책이 있을 것인가’라는 두 테마로 그룹 대화를 나눴다.

중국의 참가자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과소화, 출생률 감소, 고령화 과제는 이제부터 자신들이 직면하는 과제라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중국 국내에서는 아직 이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성에 깨닫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느꼈다’ (일본・왕레이), ‘빨리 대책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출생률 감소, 고령화 대책의 구체예를 알고 싶다’ (중국・지밍), ‘일본의 대책을 중국의 실정에 맞추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 (중국・리이신), ‘출생률 감소, 고령화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중국・왕룽) 등 의견이 있었다.

3국간의 협력에 대하여 ‘각 지역에서 해결 되어있지 않은 과제를 어떻게 3 개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황소윤), ‘자식이나 현상의 공유는 도모해야 하지만, 이후는 각 나라에서 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모리타 슈헤이)이라고 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한편, ‘대화로 납득이 가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3국이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니, 협력하여 과제해결에 나서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차원에서의

연계는 어려울 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의 지역도시와 협력해서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생각해 보고 싶다’ (일본・와카스기 마키코)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 외에, 출생률 감소, 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교류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국제 결혼도 할 수 있고, 하나의 대책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중국・류우푸), ‘국제 결혼을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중국・화아산) 등 지역활성화에 대하여, ‘대학과 마을을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짊어지고 싶다’ (한국・이강열),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임영철)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위에, ‘이토 선생님의 지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흥미가 있다. 더욱 알고 싶다’ (중국・마오위형), ‘나라 현립대학은 한개 학부밖에 없는데도, 취업률이 거의 100%이라고 듣고 놀랐다.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귀국후, 지역창조학부에 대하여 대학에 제안하고 싶다’ (중국・황정칭) 등 의견도 있었다.



科学技術の発達  
科学技術的変化  
과학기술의 변천

# 人類が100年後も

让人类延续下一个百年，以科技开创美好的未来。

# 生き残るために、

인류가 100년후도 살아 남기 위하여, 과학기술로 미래를 연다.

# 科学技術で未来を切り開く。

科学の発達是人々の生活を豊かにしたが、現代文明は資源・エネルギー不足の危機に瀕している。この危機を回避し、次世代に未来をつなぐため、今、何をなすべきかを学んだ。

人々が100年前に想像した未来は科学の発達によってその多くが実現し、生活は豊かになった。しかし、人類はより良く進化したのか。近い将来、人口爆発による水や食糧の不足、原油枯渇の危機が予測され、現代文明が見直しを必要とされる今、人類は生き残りをかけて、宇宙空間まで広がる科学技術でその危機を乗り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同時に、それまでに人類が滅亡の危機に陥らないよう、意識改革も含めて、今、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次世代へ向けたメッセージが伝えられた。

科学的发展让人类的生活更便捷更丰富，但与此同时，现代文明也面临着资源与能源匮乏的危机。为避免危机进一步升级，为给下一代创造一个美好的未来，本课程着重研讨了生活在当下的人们所应采取的行动。

得益于科学的进步，人类100年前梦想的未来世界，如今几乎都已成为现实，人们的生活越发丰富多彩。然而，经过漫长的岁月，人类真的在朝着正确的方向进化吗？据预测，在不久的将来，人口爆炸将直接导致水资源及粮食短缺、原油枯竭。如今，现代文明正面临着反省自身的重要关口。为延续人类这一物种，我们必须依靠已将人类带入宇宙空间的先进科技度过眼下这道难关。同时，为使人类免于灭亡的厄运，我们必须改变固有观念，积极行动起来。本课程与学员探讨了行动的具体内容，并传达了面向下一代的紧迫信息。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했지만, 현대문명은 자원과 에너지 부족의 위기에 절박해 있다. 이 위기를 회피하고 차세대에 미래를 연결하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웠다.

사람들이 100년전에 상상한 미래는 과학의 발달에 의해 그 많은 것을 실현하고 생활은 풍부해졌다. 그러나, 인류는 보다 좋게 진화한 것인가? 가까운 장래, 인구폭발에 의한 물이나 식량의 부족, 원유고갈의 위기가 예측되고 현대문명이 재검토가 필요로 되는 지금, 인류는 생존을 걸고 우주공간까지 넓어지는 과학기술로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그때까지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의식 개혁도 포함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차세대에 향한 메시지가 전해졌다.

京都大学総長

**松本 紘**

京都大学校长

**松本 紘**

교토대학 총장

**마쓰모토 히로시**

1942年生まれ、奈良県出身。京都大学宇宙電波科学研究所長、京都大学生存圏研究所所長などを経て、2008年京都大学総長に就任。専門分野は宇宙プラズマ物理学、宇宙電波工学、宇宙エネルギー工学、Gagarin Medal、紫綬褒章、Booker Gold Medalなどを受章。主な著書に「宇宙開拓とコンピュータ」(共立出版)、「京の宇宙学」(近代科学社)などがある。

1942年出生于奈良县。曾出任京都大学宇宙电波科学研究中心所长、及京都大学生存圏研究所所長等职务。2008年就任京都大学校长。主攻宇宙等离子物理学、宇宙电波工学、宇宙能源工学。曾获Gagarin奖、紫綬褒章、及Booker金奖等荣誉。主要著作有：《电脑与宇宙开发》(共立出版，1996年)、《万万亿的宇宙学》(近代科学社，2009年)等。

1942년, 나라현 출생, 교토대학 공중 공전과 과학 연구센터 센터장, 교토대학 생존 권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2008년 교토대학 총장에게 취임. 전문분야는 우주 플라즈마 물리학, 우주전파공학, 우주 에너지 공학, Gagarin Medal, 자수포장, Booker Gold Medal 등을 수상. 주된 저서으로는 '우주개척과 컴퓨터' (공립 출판), '교토의 우주학' (근대과학사) 등이 있다.



2011  
7/28

猿沢荘  
猿澤庄  
사루사와소

2011年の未来予想

1. 地球温暖化防止	17. 宇宙空間での生活
2. 地球温暖化防止	18. 宇宙空間での生活
3. 地球温暖化防止	19. 宇宙空間での生活
4. 地球温暖化防止	20. 宇宙空間での生活
5. 地球温暖化防止	21. 宇宙空間での生活
6. 地球温暖化防止	22. 宇宙空間での生活
7. 地球温暖化防止	23. 宇宙空間での生活
8. 地球温暖化防止	24. 宇宙空間での生活
9. 地球温暖化防止	25. 宇宙空間での生活
10. 地球温暖化防止	26. 宇宙空間での生活
11. 地球温暖化防止	27. 宇宙空間での生活
12. 地球温暖化防止	28. 宇宙空間での生活
13. 地球温暖化防止	29. 宇宙空間での生活
14. 地球温暖化防止	30. 宇宙空間での生活
15. 地球温暖化防止	31. 宇宙空間での生活
16. 地球温暖化防止	32. 宇宙空間での生活





## 松本氏の講義を踏まえ、「国を運営し、人を救うという観点で100年後の社会に対して何をを目指すか」というテーマで対話を行った。

講義の中で、まず、受講生たちが驚いたのは地球に残された資源の少なさであり、「資源の枯渇の実態を知り、持続可能な社会ではなく、生存可能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実感した」(韓国・ジョン ミヨン)などの意見が述べられた。同時に、「科学技術の発展と環境保護、経済発展と資源保護の課題は我々とつながっている」(中国・黄清清)など、科学技術との関係に焦点が当てられ、「科学技術は利益になるが、油断すると大変なことになる」(韓国・キム スヒョン)とを感じる反面、「人類の生存をめざし、科学と技術を活かす時だと感じた」(中国・郭旭紅)、「100年後の未来を想像しながら科学技術が発展したように、問題の解決に向けて科学の歴史を学ぶことは重要」(韓国・イ ジョンウォン)など、未来に向けた科学技術の重要性も挙げられた。

特に、エネルギー資源の枯渇に対して「宇宙太陽発電とエネルギーの無線送信の研究が進んでいることは興味深い」(韓国・キム ヨンシム)な

ど、宇宙に資源を求める可能性に期待が寄せられ、それに向けては「発展と維持の問題は人類文明最大の難関。科学技術だけでなく、社会の支持と理解が必要」(中国・張瑜)、「人々が環境意識を持ち、食糧増産、新エネルギーなどの研究活動を支援する」(中国・王容)など、支援の必要性が挙げられた。同時に、「科学技術を持つ国が他国と共有できるか否かによって人類の共存は決まると思う」(日本・リュウ ソンウク)、「新エネルギー技術が産業化すれば、日中韓の提携の可能性も高まるのではないか」(日本・王磊)など、国際協力への期待が述べられた。

一方では、科学の発展と並行して「世界的な問題を解決するには各国が省エネや環境保護に注意するようになることが望ましい」(中国・朱海霞)、「数十億人の一人一人が行動を変えることで人類の寿命は伸びる。世界中で環境問題や生存学の教育が必要」(日本・山本直樹)など、人類の危機に対する人々の意識改革を求める声も多く挙げられた。

## 学员们基于松本校长的授课内容,就“从治国救人的角度出发,设想百年后的未来社会”这一话题展开了讨论。

课上,学员们都对地球资源的匮乏感到十分震惊,不少学员表示,“了解到地球资源枯竭的现状后,我觉得我们无需再讨论可持续发展,而应研讨可持续生存的问题”(韩国学员・JEOUNG MI YOUNG)。也有学员就人类与科技的关系指出,“科技发展与环境保护、以及经济发展与资源保护的课题都与我们自身息息相关”(中国学员・黄清清)。同时,学员们还纷纷表达了不同的观点,有学员指出,“科学技术对人类有益,但如果掉以轻心,则有可能酿成大祸”(韩国学员・KIM SOO HYEON);也有学员认为,“为了让人类延续下去,必须充分发挥科技的力量”(中国学员・郭旭红)。另有学员表示,“科学技术以人类梦想的百年未来为蓝图发展到了今天,现在,为了解决问题,追溯研习科学发展史至关重要”(韩国学员・LEE JEONG EON),从而强调了科技面向未来的重要意义。

另外,学员们还重点探讨了能源枯竭的问题。有学员表示,“科学家正在研究宇宙太阳能发电及能源的无线传输,我对此很感兴趣”(韩国学员・KIM

YEON SHIM),从而对开发宇宙资源表示了期待。也有学员就社会合作的必要性指出,“发展与持续是人类文明所面临的最大难关,这不仅要靠科技的发展,还必须征得社会的理解与支持”(中国学员・张瑜)，“人们都应该提高环保意识,积极促进粮食增产,并为探索新能源等的科研活动提供协助”(中国学员・王容)。在此基础上,有学员就开展国际合作表示,“我认为,科技发达的国家是否愿意与他国共享科技成果将直接决定人类的命运”(日本学员・柳成煜)，“如果新一代能源技术能实现产业化,那么日中韩三国也将有望携手合作”(日本学员・王磊)。

另一方面,也有许多学员指出了人类改变观念、应对危机的必要性,他们表示,“为解决这些全球性课题,世界各国都必须对节能和环保给予应有的重视”(中国学员・朱海霞)，“全球有数十亿人口,如果每个人都能行动起来,人类也就有望生存下去。所以,必须在全世界开展环保和生存学教育”(日本学员・山本直树)。

## 마쓰모토 총장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100년후의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테마로 대화를 나눴다.

강의에서 우선, 수강생들이 놀란 것은 지구에 남겨진 자원의 적음이며, ‘자원의 고갈의 실태를 알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닌, 생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실감했다’ (한국·정미영) 등 의견이 있었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보호, 경제발전과 자원보호의 과제는 우리들과 연결된다’ (중국·황칭칭) 등, 과학기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은 이익이 되지만, 방심하면 큰일 난다’ (한국·김수현)라고 느끼는 반면, ‘인류의 생존을 목표로 하고, 과학과 기술을 살릴 때라고 느꼈다’ (중국·구어쉬훙), ‘100년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 같이, 문제의 해결을 향해 과학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이정연) 등,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지적되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하여 ‘우주 태양 발전과 에너지의 무선송신의 연구가 진보되고 있는 것은 흥미 깊다’ (한국·김연심) 등, 우주에 자원을 요구할 가능성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극복하기 위해 ‘발전과 유지의

문제는 인류문명 최대의 난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 (중국·장위) ‘사람들이 환경의식을 가지고, 식량증산, 신에너지 등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중국·왕룽) 등, 지원의 필요성을 들 수 있었다. 동시에,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가 타국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의해 인류의 공존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일본·류성욱), ‘신에너지 기술이 산업화하면, 한중일의 제휴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일본·왕레이) 등, 국제협력에의 기대를 발언했다.

한편, 과학의 발전과 병행되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에 주의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주하이샤), ‘몇십억 명의 한사람 한사람이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인류의 수명은 자란다. 온 세계에서 환경 문제나 생존학의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야마모토 나오키) 등, 인류의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개혁을 추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日本7・8世紀の男帝と女帝  
 公元七・八世紀的日本男帝与女帝  
 일본 7・8세기의 황제와 여제

# 古代日本には時代を

纵观日本古代，曾有多位女天皇叱咤风云，独揽大权，回顾这段男女平等的历史，如今的我们该从中汲取什么样的经验呢？

# 動かした女帝たちがいた。

고대 일본에는 시대를 움직인 여제들이 있었다. 남녀평등 사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까?

# 男女平等社会の歴史を振り返り、

# 今、何を学ぶべきか。

飛鳥・奈良時代の日本では女性の天皇が8代即位している。それら女帝の下で国家的大事業が成し遂げられた歴史に着目し、女性の地位が高かった古代の日本について学習した。

明治時代に皇室典範で男性のみの皇位継承が定められる以前、日本には女性の天皇がいた。特に、飛鳥・奈良時代の17代の天皇のうち8代を女帝が占めている。その理由を、夫である天皇の崩御後、次の天皇までの中継ぎ等とする通説があるが、女帝たちの時代には遷都や法律制度の確立等の大事業が行われており、中継ぎとは思われない大きい政治が残されている。それらの歴史的事象から、多くの人々を率いた女帝の能力と、その背景にある、男女差別意識がなかった古代日本の社会の姿を推察した。また、推古天皇以前（飛鳥時代以前）にも数代の女性の最高統治者がいた可能性を強く示唆した。

在日本飞鸟・奈良时代，曾有8位女天皇登基继位。本课程着眼于女天皇执掌国家政权、成就治国大业的古代史，学习并研讨日本古代女性地位较高的历史现象。

在明治时代颁布《皇室典范》、规定仅男性可继承天皇皇位之前，日本曾出现多位名垂青史的女天皇。尤其在飞鸟・奈良时代，17位天皇中，女性占据8席。对于这一现象，最常见的推论认为，上一代天皇驾崩后，因皇子过于年幼，只能暂由皇后继位，属于过渡性执政。但事实上，女天皇治国期间，曾先后实施迁都及制订律法等诸多重要举措，其创造的丰功伟业远远超出“过渡执政”的范围。这一历史现象印证了女天皇治国平天下的卓越政治手腕，从中不难窥视出日本古代几乎不存在性别歧视的社会特征。另外，课程还强调论及了推古天皇（飞鸟时代）之前也曾涌现出数位女性最高统治者的可能性。

아스카·나라 시대의 일본에서는 여제가 8대 즉위했다. 그 여제 아래에서 국가의 대사업이 이룩된 역사에 착안하여,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고대 일본에 대해서 학습했다.

메이지 시대에 황실 전범으로 남성만의 황위계승이 정해지기 전에, 일본에는 여제가 있었다. 특히, 아스카·나라 시대의 17대의 천황 가운데 8대가 여제였다. 그 이유로는 남편인 천황이 붕어한 뒤, 그 다음 천황까지의 중계라고 하는 통설이 있지만, 여제들의 시대에는 천도나 법률제도의 확립 등의 대사업이 실시되어 있어, 중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큰 영향이 남겨져 있다. 그 역사적 현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인솔한 여제의 능력과 그 배경에 있는 남녀차별 의식이 없었던 고대 일본 사회의 모습을 추찰했다. 또한, 스이코 천황 이전 (아스카 시대 이전) 에도 몇대의 여성 최고 통치자가 있었던 가능성을 감하게 시사했다.

榎原考古学研究所 所長

**菅谷文則**

榎原考古学研究所 所長

**菅谷文則**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소장

**스가야 후미노리**

1942年奈良県生まれ。1968年から奈良県立榎原考古学研究所に勤務し、古墳と飛鳥・奈良時代の宮跡、寺跡の発掘調査に従事。ならシルクロード博覧会参画。1992～95年シルクロード学術センター研究主幹。1995～2008年滋賀県立大学教授、同名兼教授。この間、シルクロードの考古学を研究。2009年から奈良県立榎原考古学研究所所長に就任。

1942年出生于奈良县。1968年进入奈良县立榎原考古学研究所，主要从事古墓、及飞鸟・奈良时代皇宮与寺院遗址的考古挖掘工作。曾作为专业学艺官参与策划奈良丝绸之路博览会。1992年至1995年，成为丝绸之路学術研究中心骨干研究员。1995年至2008年，出任滋賀县立大学教授，并荣获该校名誉教授称号。在此期间，曾就丝绸之路开展考古学研究。2009年，出任奈良县立榎原考古学研究所所长。

1942년 나라현 출생. 1968년부터 나라현립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에 근무하고, 고분과 아스카·나라 시대의 궁적, 사적의 발굴 조사에 종사. 나라 실크로드 박람회 참회. 1992~1995년 실크로드학 연구센터 연구 주간. 1995~2008년 시가현립대학 교수, 동 명예교수. 최근에는 실크로드의 고고학을 연구. 2009년부터 나라현립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소장으로 취임.



**2011  
7/28**  
 猿沢荘  
 猿澤庄  
 사루사와소





**菅谷氏の講義を踏まえて「歴史から学べる、今社会に求められるリーダーシップとは?」というテーマで対話を行った。**

まず、女帝の存在について、「日本には男尊女卑のイメージがあったが、古代は女性の地位が高かったと知った」(中国・毛玉珩)、「125代の天皇の中で女帝が約10%を占め、大きな仕事をしたことがわかった」(中国・閻留強)など、認識を新たにしたいという意見が多く挙げられた。それにより、「仏教の礎、遷都の実現、律令政治の確立など、女帝の能力を認識した」(韓国・イム ヨン Chol)、「女帝は珍しい存在なので興味深い。卑弥呼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い」(韓国・キム ジュン)など、女帝のリーダーとしての能力が注目された。

一方では、「女帝時代に注目すると、日本古代史の新しい理解につながる」(韓国・キム ジュングオン)など、歴史に対する新たな視点が認められ、同時に、「現代の三国に女性の国家リーダーがいないのはおかしい。能力があれば男女差別があってはならない」(中国・蔡鑫)、「能力が優先されていたのはむしろ古代だったのではないか。今の日本も都市の再生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根本

的な方向性を歴史から吸収する姿勢が必要である」(日本・辻谷明代)、「歴史に学んで、現代も男女・年齢に関係なく優秀な人材を活用する仕組みが求められる」(日本・堀部暢一)など、現代に照らした考え方が提案された。

その中から、理想とするリーダー像が話し合われ、「リーダーは男女に関係なく、民衆の利益を考える人が一番である」(中国・李鑫)、「世界の平和と人々の幸せのために働く人が望ましい。柔らかな手段と強い手段のバランスが必要」(中国・華珊)、「世界に向けた政治家(リーダー)が望ましい」(中国・李梅)などの意見が出された。さらに、「今は男女平等の時代で、女性の能力とリーダー性も認められるので、有能な女性たちが活躍できる社会になってほしい」(中国・郭旭紅)、「女性の大統領は減多に出ないが、偏見を打ち砕いて男女の差別のないリーダーの登場が望まれる」(韓国・ファン ソユン)など、次の社会へ向けた期待も述べられた。

**学员们基于菅谷所长的授课内容,就“以史为鉴,思考当今社会所需的领导能力”这一话题展开了讨论。**

许多学员都表示,女天皇的存在让他们了解到了日本历史上鲜为人知的一面,他们纷纷表示,“原本一直以为日本是一个男尊女卑的国家,今天第一次知道日本古代女性的地位其实相当高” (中国学员·毛玉珩)，“通过这堂课,我知道了日本125位天皇中约有10%都是女性,她们成就了许多非常重要的历史功绩” (中国学员·闫留强)。在此基础上,学员们对女天皇出色的领导能力产生了浓厚的兴趣,他们表示,“从奠定佛教基础、完成迁都、到确立律令体制等,这些历史功绩让我认识到了女天皇卓越的执政能力” (韩国学员·LIM YEONG CHEOL)，“女天皇较为罕见,我对此很感兴趣,有机会很想了解一下女天皇卑弥呼的事迹” (韩国学员·KIM JI EUN)。

与此同时,也有学员认为女天皇将成为考证历史的新视角,他们表示,“如果重点考察女天皇执政的时代,完全有可能对日本古代史形成新的诠释” (韩国学员·KIM JUN KWON)。不少学员还就现代社会的性别歧视指出,“目前日中韩三国都没有女性领导人,这一点值得反省。只要能力相当,就不应该区别对待” (中国学员·蔡鑫)，“相比现代,反倒是古代人深知唯贤是举的道理。

如今日本正面临着都市重建的重要时期,我们有必要汲取历史经验,明确发展方向” (日本学员·辻谷明代)，“我们必须以史为鉴,现代社会更需要不分性别、不问年龄、唯才是用的聘任制度” (日本学员·堀部暢一)。

由此出发,学员们还探讨了现代社会最理想的领导人形象,他们表示,“无论男女,只有将民众利益放在首位的才是最佳人选” (中国学员·李鑫)，“我们需要能为世界和平和人类幸福而努力奋斗的领导人,他/她必须软硬兼具,能够掌握两者的平衡” (中国学员·华珊)，“我认为,胸怀世界的政治家才是最合适的人选” (中国学员·李梅)。另外,学员们还纷纷表达了对社会发展方向的期望,他们表示,“当今时代提倡男女平等,女性的能力与领导力均已得到认可,希望社会能为出类拔萃的女性提供一展身手的机会” (中国学员·郭旭红)，“女性总统极其罕见,希望未来能出现一位打破偏见、真正实现男女平等的领导人” (韩国学员·HWANG SO YUN)。

**스가야 소장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금 사회에 요구되는 리더십 이란?'을 테마로 대화를 나눴다.**

우선, 여제의 존재에 대해서 '일본에는 남존여비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고대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인식했다' (중국·마오위형), '125대의 천황 가운데 여제가 약10%를 차지하고, 큰 일을 한 것을 알았다' (중국·옌류우창) 등, 인식을 새롭게 했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것에 따라, '불교의 초석, 천도의 실현, 율령정치 확립 등, 여제의 능력을 인식했다' (한국·임영철), '여제는 진귀한 존재이므로 흥미 깊다. 히미코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 (한국·김지은) 등, 여제의 리더로서의 능력이 주목 받았다.

한편, '여제시대에 주목하면, 일본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연결된다' (한국·김준권) 등,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점이 인정을 받고, 동시에 '현대의 3국에 여성 국가 리더가 없는 것은 이상하다. 능력이 있으면 남녀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차이신), '능력이 우선되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고대이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의 일본도 도시의 재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방향성을 역사로부터 흡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쓰지타니

아키요), '역사로부터 배우고, 현대도 남녀연령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일본·호리베 요이치) 등, 현대에 비추어 본 사고방식이 제안되었다.

대화 중 이상적인 리더 상이 상의되어, '리더는 남녀에게 관계없이, 민중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이다' (중국·리이신), '세계의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부드러운 수단과 강한 수단의 밸런스가 필요' (중국·화아산), '세계를 향한 정치가(리더)가 바람직하다' (중국·리이메이) 등의 의견이 있었다. 게다가, '지금은 남녀평등의 시대이며, 여성의 능력과 리더성도 인정을 받으므로, 유능한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국·구어쉬홍), '여성의 대통령은 좀처럼 나오지 않지만, 편견을 없애고, 남녀차별이 없는 리더의 등장이 기대된다' (한국·황소운) 등, 다음 사회를 향한 기대도 제시되었다.



外来の文化と制度の受容～日本の流儀  
 外来文化与制度的吸收——日本的作风  
 외래문화와 제도의 수용～일본의 수용방법

# グローバル社会における

在全球化社会实现东亚发展树立全新的“东亚模式”

## 東アジアの

국제화사회에서 동아시아의 발전을 향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모델”의 확립

## 発展をめざす新しい

# 「東アジアモデル」の確立

日本は外来文明と伝統文化を併存させて国家を形成してきたが、グローバル社会では新たな流儀が必要とされる。欧米とは異なるモデルの確立をテーマに東アジアの可能性を探る。

奈良時代、日本は中国・韓半島から文化と制度を受容し、国家形成の基盤をつくり上げた。19～20世紀には西欧文明を受け入れ、近代国家を形成したが、その背景には、外来文明と伝統文化を併存（デュアルモード）させる受容、調整・融合、独自化の流儀があった。しかし、二元対立的思考の西欧文明を中心とするグローバル社会に対して、今後もこの流儀を通すことは難しい。東アジアの発展のために、若い人たちの知的な交流から多様な文化の相互尊敬を生み出す、新しい「東アジアモデル」の確立を提唱する。

日本素将外来文明与传统文化融汇贯通，发展至今。但现在，全球化社会却需要全新的发展方式。课程以树立有别于欧美的独特模式为主题，探讨了东亚地区发展的可能性。

在奈良时代，日本从中国及朝鲜半岛吸收文化、制度，为治理国政奠定了基石。其后，到19至20世纪，日本又接纳西方文明，建立起现代民主政体。在此发展过程中，日本始终对外来文明与传统文化给予同等重视，对其进行吸收、调整、融合，最终发展出独具特色的本国文化。然而，面对崇尚二元对立式思维的西方文明所主导的全球化社会，今后也要坚持这种方式绝非易事。为实现东亚地区的发展，本课程倡导年轻人增进智慧交流、学会尊重丰富多彩的异文化、进而树立全新的“东亚模式”。

日本은 외래문명과 전통문화를 병존시켜 국가를 형성해 왔지만, 국제화사회에서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 구미와는 다른 모델의 확립을 테마로 동아시아의 가능성을 찾는다.

나라시대, 일본은 중국·한 반도로부터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고, 국가형성의 기반을 만들어 냈다. 19~20세기에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근대 국가를 형성했지만, 그 배경으로는 외래문명과 전통문화를 병존(Dual Mode) 시키는 수용, 조정·융합과 같은 독자적인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2차원적 대립 사고인 서구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사회에 대하여 앞으로도 이방법을 관철하는 것은 어렵다.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지적인 교류로부터 다양한 문화의 상호 존경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동아시아 모델’의 확립을 제창한다.

奈良県知事

## 荒井正吾

奈良县知事

## 荒井正吾

나라현 지사

## 아라이 쇼고

東京大学法学部卒業、1968年運輸省入省、1972年米国シラキュース大学マックスウェル行政大学院卒業、同大学行政学修士取得。OECD日本政府代表部参事官、運輸省観光部長、運輸省鉄道局審議官、運輸省自動車交通局長、海上保安庁長官、参議院議員、外務大臣政務官、参議院文教科学委員長などを歴任し、2007年奈良県知事就任。

毕业于东京大学法学部。1968年进入运输省任职。1972年于美国雪城大学马克斯维尔学院修完行政管理硕士课程，获行政学硕士学位。后历任经济协力开发机构日本政府代表部参事官、运输省观光部部长、运输省铁道局审议官、运输省汽车交通局局长、海上保安厅长官等职位，并当选参议院议员，先后担任外务大臣政务官、参议院文教科学委员长等职务。2007年，就任奈良县知事。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68년 운수성에 입성, 1972년 미국 시라큐스대학 맥스웰 행정 대학원 졸업, 동 대학행정학 석사 취득. OECD일본정부대표부 참사관, 운수성 관광부장, 운수성 철도국 심의관, 운수성 자동차교통 국장, 해상보안청 장관, 참의원 의원, 외무 대신 정무관, 참의원 문교과학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7년 나라현 지사 취임.



2011  
7/29

猿沢荘  
 猿沢庄  
 사무사와소





## 荒井知事の講義のあと、「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NARASIA未来塾』のこれまでを振り返って」をテーマに対話を行った。

荒井知事の講義を踏まえた受講生のレポートによると、まず、外来文化に対する日本の流儀について、「先端技術など他国の良いところを取り入れるのは良いと思う」(中国・劉朴)という意見もあれば、「日本は外来文化の良い所取りをして、理念について争わないのが特徴」(韓国・イ カンヨル)、「心の中に異なる思想を併存するという日本の流儀は理解したが、意見を言い争わないのは気になる」(中国・毛玉珩)という意見もあり、日中韓の流儀の違いが認識された。

それに対して、「併存は学ぶ必要がある。白黒つけるのがすべてではないと思うので、互いに補い合えば良いと思う」(韓国・キム ソンホン)、「外来文化と伝統文化の衝突は常に存在している。日本はそれに対して折衷という形をとってきたが、そこには多文化・文明に対する深い理解と慎重な姿勢、調和の意識が必要である」(日本・森田修平)、「国境を越えて外の良い所を積極的に取り入れ、自分を高めることが大事である」(中国・呉欽)、「外来文化を安易に受け入れるのではなく、自分や自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活かした調和を考えて受け入れた

い」(韓国・キム ジウン)などの前向きな意見が述べられた。

具体的には、「互いの文化を尊重し合い、国際交流が一層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たい」(中国・劉婷)、「歴史を見つめ直し、若い人たちの知的な相互交流で互いを高め合うことが重要」(韓国・イ ナムジュ)、「東アジアが世界の中心になることを期待し、グローバル化に対して東アジアがどう協力し合う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韓国・イ ジョンウォン)など、交流による推進が挙げられ、さらには「東アジア共同体より、東アジアモデルの確立の方が現実的だと思う」(中国・李鑫)という意見も出された。そのために、「グローバル化への対応における地方政府の役割を考えたい」(中国・吉明)という意見も出された一方で、「三国間の民間レベルの文化共同モデルの構築は難しいと思うが、深層レベルの共同体構築は難しい」(日本・王磊)、「国情と経済発展、制度等が違う条件下で、どのように平等に文化の交流を進めるかが課題だ」(中国・蔡鑫)などの問題点も挙げられ、実現化に対して真摯に向き合う姿勢が示された。

## 基于荒井知事的授课内容,就回首东亚·暑期学校“NARASIA未来研讨会”的至今这一话题展开了讨论。

学员们基于荒井知事的授课内容,各自提交了一份小报告。在报告中,学员们先就日本吸纳外来文化的独特方式表示,“积极吸收先进技术等他国的长处,取长补短,这种做法值得称道”(中国学员·刘朴)。同时,他们还察觉到了日中韩三国在这方面的差异,有学员指出,“日本善于吸收外来文化的长处,而不拘泥于理念或原则,这是日本的特色”(韩国学员·LEE KANG LYUL)、“我知道日本人的心中同时容纳着不同的思想,但实在无法理解他们为什么不捍卫自己的观点”(中国学员·毛玉珩)。

另有学员表示,“我们应该学习日本这种多文化并重的作法,并非所有问题都非此即彼,只要能互补互惠,那就足够了”(韩国学员·GIM SEUN HONG)、“外来文化免不了会与传统文化发生冲突,日本通常都采取两者兼顾的态度,这需要对文化与文明的多样性给予理解,更需要审慎的姿态和协调的理念”(日本学员·森田修平)、“打破国境的限制,积极吸收外来文化的长处,以此改进本国文化,这一点至关重要”(中国学员·吴钦)、“我们不能按部就班地吸收外来文化,而必须融

入本国的理念,使其相辅相成,相得益彰”(韩国学员·KIM JI EUN)。

在此基础上,学员们还就增进异文化交流的具体措施指出,“希望各国都能尊重他国文化,进一步加强国际交流”(中国学员·刘婷)、“重要的是,必须重新审视历史,通过年轻人之间的智慧交流沟通相互促进,共同发展”(韩国学员·LEE NAM JU)、“期盼东亚地区能成为带动全球发展的核心力量,我希望与大家共同思考东亚面对全球化大潮时应如何携手合作的问题”(韩国学员·LEE JEONG EON)。另有学员提出,“通过东亚共同体来树立东亚模式,更具有现实意义”(中国学员·李鑫)、“应该研究在应对全球化浪潮时地方政府所能发挥的作用”(中国学员·吉明)。为实现树立全新东亚模式的目标,学员们展开了诚挚而深入的论证,并列举出可能面临的问题,他们指出,“日中韩三国建立民间层面的文化共同体并不困难,但要构筑更深层的共同体恐怕任重道远”(日本学员·王磊)、“在国情、经济发展程度、及政治体制都各不相同的情况下,各国应如何平等地开展文化交流,将成为亟待解决的课题”(中国学员·蔡鑫)。

## 아라이 지사의 강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서머스쿨‘NARASIA미래학원’의 지금까지를 회고한다는 테마로 대화를 나눴다.

아라이 쇼고 지사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 수강생의 리포트에 의하면, 우선, 외래문화에 대한 일본의 수용방법에 대하여 ‘첨단기술 등 타국이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중국·류우푸)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본은 외래문화의 좋은 점을 섭취하고, 이념에 대하여 경쟁하지 않는 것이 특징’ (한국·이강열), ‘마음 속에 다른 사상이 병존한다고 하는 일본의 양식은 이해했지만, 의견이 있어도 말다툼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국·마오위형) 라는 의견도 있어, 일중한의 양식의 차이가 인식되었다.

그것에 대하여, ‘병존은 배울 필요가 있다. 흑백 가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서로 보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김선홍),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충돌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그에 대해서 절충이라는 형식을 취해왔지만, 거기에는 다문화·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중한 자세, 조화의 의식이 필요하다’ (일본·모리타 슈헤이), ‘국경을 넘어 외국의 좋은 곳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자신의 소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우친), ‘외래문화를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나 자국의 정체성을 살린 조화를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싶다’ (한국·김지은) 등 적극적인

의견도 진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국제교류가 더 한층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중국·류우팅), ‘역사를 되돌아 보고, 젊은 세대가 지적교류를 통하여 서로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남주),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국제화시대에 동아시아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싶다’ (한국·이정연) 고하는 등, 교류를 통한 추진이 제안되었으며, ‘동아시아 공동체보다 동아시아 모델의 확립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리이신) 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에 상응하여, ‘국제화의 대응에 있어서의 지방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고 싶다’ (중국·지밍)라는 의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3국간의 민간 수준의 문화공동 모델의 구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심층 수준의 공동체 구축은 어렵다’ (일본·왕레이), ‘국정과 경제발전, 제도 등이 다른 조건하에서 어떻게 평등하게 문화 교류를 진척시킬지가 과제다’ (중국·차이신) 고하는 문제점도 제안되면서, 실현화를 진지하게 직면하는 자세가 보였다.



視察研修  
参观培训  
시찰연수

## あをによし

追忆奈良时代 那繁华的平城京

# 平城京が栄えた奈良時代へ、

아름다운 헤이조쿄가 번성했던 나라시대로 생각을 달린다.

## 思いをはせる。

この日の午後は、奈良市内の東大寺・唐招提寺・平城宮跡を訪れた。まずは、「奈良の大仏さん」（盧舎那仏：るしゃなぶつ）で知られる東大寺へ。奈良時代、像高15メートルに及ぶ巨大な仏像や世界最大の木造建築とされる大仏殿を造るのに尽力した行基は、渡来系の人物とされる。

次に向かったのは、西ノ京にある唐招提寺（とうしょうだいじ）。この寺は、奈良時代、正しい仏法を伝えるために、苦難を乗り越え、日本に渡ってきた中国の高僧・鑑真和尚が開いた。

这天下午，学员们参观了奈良市内的东大寺、唐招提寺和平城宫遗址。首先前往的是因“奈良大佛”（卢舍那佛）而享誉内外的东大寺。巨大佛像高15米，大佛殿据说为世界最大木制建筑。而在奈良时代为建造佛像与佛殿而倾尽心力的行基，据说是大陆移民。

然后，学员们来到位于西京的唐招提寺。在奈良时代，中国高僧鉴真和尚历经艰险，东渡日本，只为宣扬真正的佛法。唐招提寺就是鉴真和尚创建的。

이 날 오후에는 나라시내의 도다이지절·도쇼다이지절·헤이조궁터를 방문했다. 먼저 '나라노 다이부쓰상'(盧舎那仏:루샤나부쓰)으로 알려진 도다이지절을 방문했다. 높이 1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불상과 세계최대의 목조건축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불전을 만드는데 진력한 교기는 도래계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니시노쿄에 있는 도쇼다이지 절을 방문했다. 이 절은 나라시대 올바른 불법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극복하고 일본에 건너 온 중국의 고승 감진화상(鑑真和尚)이 개산하였다.

続いて、平城宮跡へ。平城宮が置かれた場所で、昨年2010年の平城遷都1300年祭のメイン会場としてにぎわった。復原した遣唐使船が飾られ、奈良時代の中国大陸・朝鮮半島との交流と、そこから発展した日本の国づくりについて紹介する平城京歴史館を見学した。

なお、この日訪れた3か所は、いずれも1998年に登録された世界遺産「古都奈良の文化財」（東大寺・興福寺・春日大社・元興寺・薬師寺・唐招提寺・平城宮跡・春日山原始林）の構成資産である。

学员们随后来到平城宫遗址。2010年，奈良举行了平城迁都1300年纪念典礼，平城宫所在地即为主会场。学员们参观了平城京遗址资料馆。这里展示有复制遣唐使船，并介绍奈良时代日本与中国大陆、朝鲜半岛之间的交流，以及在此基础上延伸发展的日本建国历史。这天参观的三处景点都于1998年入选了世界遗产“古都奈良的文化遗产群”（东大寺·兴福寺·春日大社·元兴寺·药师寺·唐招提寺·平城宫遗址·春日山原始森林）。

다음으로 헤이조궁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헤이조궁이 있었던 곳으로, 2010년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제의 주행사장이었다. 복원한 견당사선이 전시되어, 나라시대의 중국 및 한반도와 의 교류와 이를 토대로 발전하게 된 일본의 국가 조성에 대해 소개하는 헤이조쿄 역사관을 견학했다.

이날 방문한 세곳은 모두 1998년에 등록된 세계유산 '고도 나라의 문화재'(도다이지·고후쿠지·가스가다이샤·간고지·야쿠시지·도쇼다이지·헤이조궁터·가스가야마 원시림)의 구성 자산이다.





2011  
7/29<sup>일</sup>  
奈良市  
奈良市  
나라시





視察研修  
參觀培訓  
考察研修

2011  
7/30 Sat.

橿原市・明日香村  
橿原市・明日香村  
가시하라시・아스카무라

# 東アジアから

从东亚传来诸多文化与技术的飞鸟时代

# 多くの文化・技術が

동아시아에서 많은 문화와 기술이 전해진 아스카시대.

# 伝わった飛鳥時代。



この日は、平城京ができる前の飛鳥時代、都が置かれた地である橿原市・明日香村を訪れ、文化施設を見学した。

まず、奈良県内の都城跡や古墳などの埋蔵文化財の調査研究を行う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および、その成果などを展示する同研究所附属博物館を訪れた。

続いて橿原市に隣接する明日香村へ。飛鳥時代、有力豪族として権勢を振るった蘇我馬子の墓ともいわれる石舞台古墳を見学したあと、奈良県立万葉文化

館に向かった。

同館は、日本最古の歌集である「万葉集」を中心に、古代文化を総合的に楽しみ、学べるスポットである。中西進・同館長から、「万葉集」の歌が詠まれた時代や、その普遍的な魅力を知ってもらうために、「日本最古の富本銭などの「もの」の展示と、万葉集をテーマにした「絵画」の展示を行っている」との話がうかがった。

这天，学员们前往橿原市和明日香村，参观了当地的文化设施。在平城京建都之前的飞鸟时代，这里曾是当时的都城。

首先，学员们访问了奈良县橿原考古学研究所。这家研究所主要对奈良县境内的都城遗址、古墓等地下文物进行调查研究。学员们还参观了展示该研究所成果的附属博物馆。

学员们随后前往与橿原市毗邻的明日香村，参观了石舞台古墓。据说，这里是飞鸟时代权倾一时的豪族苏我马子的陵墓。其后，学员们又前往奈良县

立万叶文化馆参观。该文化馆是学习日本最古老的诗歌集《万叶集》，并综合体验日本古代文化的研习基地。该馆馆长中西进先生介绍说“这里除了展示日本最古老钱币富本钱等展品，还展示众多以《万叶集》为主题的绘画”，借助这些展示品，大家可以了解《万叶集》诗歌诞生的时代背景及其具有普遍性的魅力。

이 날은 헤이조쿄가 만들어지기 전인 아스카시대에, 수도가 자리했던 곳인 가시하라시 아스카무라를 방문해 문화시설을 견학했다.

먼저 나라현내의 도성터와 고분 등의 매장문화재를 조사 연구하고 있는 나라현립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와 연구 성과 등을 전시하고 있는 동 연구소의 부속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어서 가시하라 시에 인접하고 있는 아스카무라로 이동했다. 아스카시대의 유력 호족으로서 권세를 누렸던 소가노 우마코의 묘로 알려지고 있는 이시부타이

고분을 견학한 후 나라현립 만요문화관으로 향했다.

만요문화관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집인 '만요집'을 중심으로 고대문화를 종합적으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나카니시 스스무관장으로부터 '만요집'의 노래가 불려졌던 시대와 그 보편적인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일본 최고의 동전인 후혼센 과 만요집을 테마로 한 '회화'를 전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文化体験 ホームビジット

文化体験 家庭訪問

문화체험 가정방문

# 温かいおもてなしにリラックスし、

热情款待气氛轻松、主客谈笑其乐融融

# おしゃべりも弾む。

따뜻한 대접에 긴장감을 풀고 즐거운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奈良市国際交流ボランティア協会の協力により、グループに分かれ、同協会のメンバーなどの家庭を訪問した。各家庭では、昼食をはさんで、夕方まで過ごした。講義を受ける大学や宿泊しているホテルでは体験できない、日本の一般家庭の様子や、暮らしぶり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た。

在奈良市国际交流志愿协会提供的合作下，学员们分组访问了该协会会员等日本家庭。大家在各个家庭与日本人共进午餐，并一直交流到傍晚。大家借此了解到日本一般家庭的情景和生活样式。而这些是在大学讲堂和旅馆所无法体验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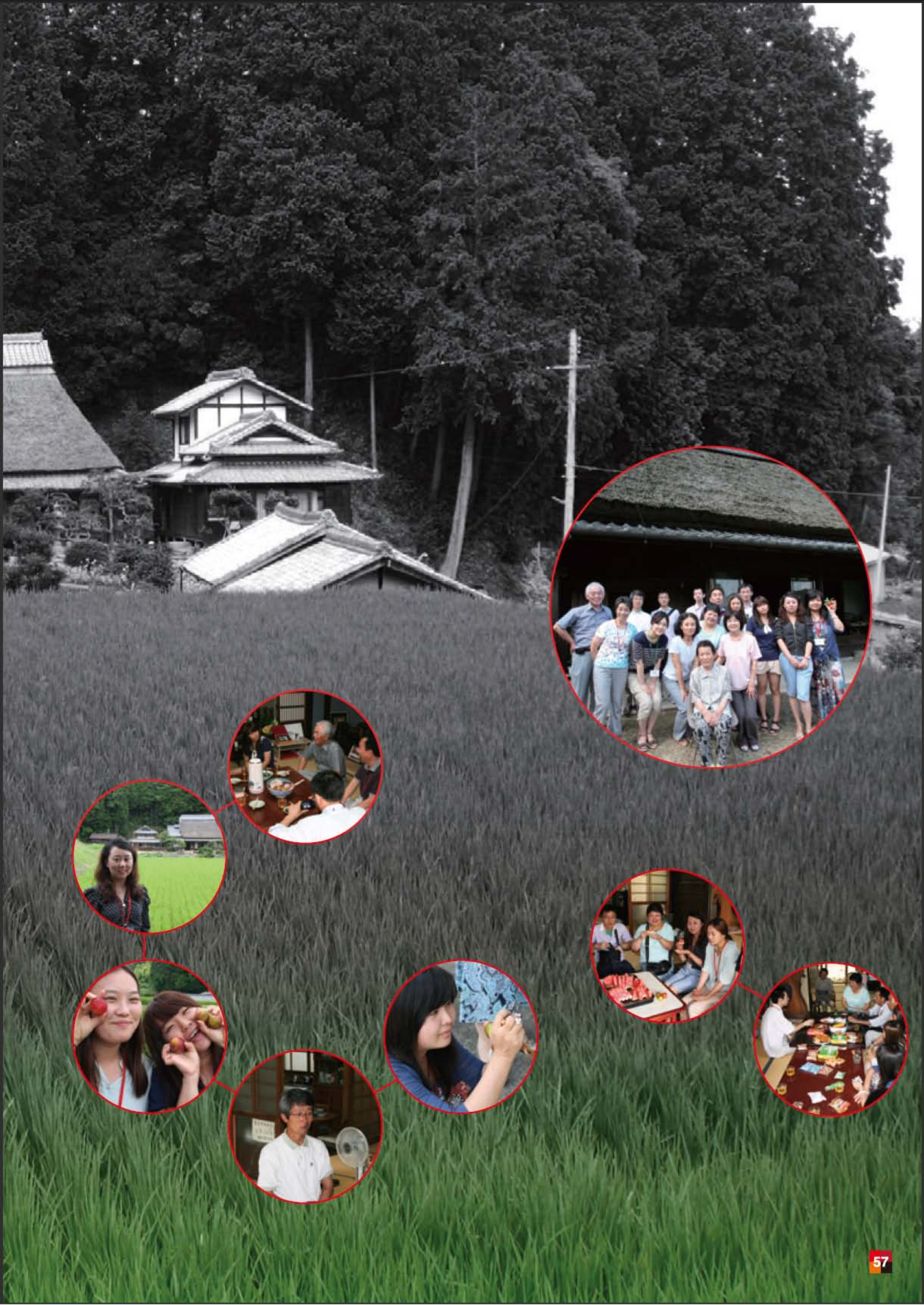
나라시 국제교류 자원봉사자협회의 협력으로 그룹으로 나뉘어 동협회 회원 등의 가정을 방문했다. 각 가정에서는 점심 식사에 이어 저녁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강의를 받았던 대학과 숙박했던 호텔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일본의 일반 가정의 모습과 생활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2011  
7/31<sup>SUN.</sup>

奈良市ほか  
奈良市等  
나라시 이외









フィールドワーク1日目  
田野調査第1天  
필드워크 1일 째

# 日本一大きな村が抱える

了解日本最大村庄的魅力与面临的问题

## 魅力と問題点を知る。

일본에서 가장 큰 마을이 안고 있는 매력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この日から十津川村に移動し、2泊3日のフィールドワークが始まった。

奈良市内から十津川村まではバスで約3時間半の長距離移動。到着後、十津川村の歴史をパネルなどでわかりやすく紹介する歴史民俗資料館を見学。

午後からは、十津川村役場で更谷慈禧村長、同村の増谷・観光振興課長、大玉・福祉事務所長、東・総務課長より、十津川村は日本一面積の大きな村で高齢

化・過疎化が進んでいる一方で、世界遺産の小辺路、温泉、吊り橋など多くの魅力を持つこと、現在取り組んでいる施策などについて説明を受けた。

夕方からは農家民宿のお宅や神納川ロッジに移動。それぞれがしいたけの収穫や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との団らんなどを体験した。

这天，学员们先乘车前往十津川村，启动了三天两夜的田野调查行程。

奈良市与十津川村距离较远，乘巴士费时约三个半小时。抵达后，学员们首先参观了当地的历史民俗资料馆。该馆主要利用展板等对十津川村历史进行介绍。

当天下午，十津川村村长更谷慈禧，偕同该村观光振兴科科长增谷、福利事务所所长大玉以及总务科科长东在村公所对学员们介绍了该村的情况。村长们介绍说，十津川村虽是日本面积最大的村庄，却同样面临着日益严重的

人口老龄化和人口过少的问题。同时，十津川村也是一个独具魅力的地方。这里有世界遗产小边路、温泉、吊桥等。村长们还向大家介绍了目前该村的各种村政措施。

傍晚之后，大家集体前往作为住宿地的各农民家庭和神纳川旅馆。大家还分别体验了采摘香菇，以及和当地老爷爷老奶奶聚会交流等活动。

이 날부터 도쓰카와무라로 이동해 2박3일간의 필드워크에 들어갔다.

나라 시내에서 도쓰카와무라까지는 버스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장거리 이동. 도착 후에 도쓰카와무라의 역사를 패널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역사민속 자료관을 견학했다. 오후부터는 도쓰카와무라 사무소에서 사라타니 요시키 촌장, 마쓰타니 관광진흥 과장, 오타마 복지사무 소장, 아즈마 총무과장으로부터 도쓰카와무라가 일본 제일의 면적을 자랑하는

마을이며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편으로 세계유산인 고헤치, 온천, 현수교 등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저녁에는 농가민박을 하고 있는 농가와 간노가와 룻지로 이동했다. 각자 버섯 수확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겨운 시간을 체험했다.

2011  
8/2 <sup>Tue</sup>

十津川村  
十津川村  
도쓰카와무라









# もっと多くの人に、 十津川村の魅力を 発信するために。

为了让十津川村的魅力更为人知

더 많은 사람에게 도쓰카와무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하여

2011  
 8/3<sup>wed.</sup>

十津川村  
 十津川村  
 도쓰카와무라



この日最初に訪れたのは、村内の特別養護老人ホーム「高森の郷」。深瀬施設長の概要説明の後、施設内を見学した。

続いて、十津川村の大きな観光資源である温泉を体験するために「ホテル昂」へ。源泉かけ流しの気持ちよさを実感した。

午後からは、神納川地区の「かんのがわHBP」を訪問。事務局の神谷さんから、「HBPとは、「Happy Bridge Project」の略で、奈良県、十津川村、神納川区、じゃらんリサーチセンターの協働事業。都市部と過疎地を結ぶため、農村体

験などのコーディネートを行っている」などの説明を受けた。

夕方からは、世界遺産で熊野古道のひとつ、小辺路の一部を歩いた。うっそうとした木々の中を歩く気持ちよさや、昔ながらの石畳が残っていることに感動の声が挙がっていた。

这天，大家首先访问了村里的特别养老院“高森之乡”。深瀬院长说明了概要之后，带领大家进行了参观。

然后，大家前往“旅馆昂”。这里有十津川村的主要观光资源—温泉浴。大家亲身体会了涌流式温泉浴带来的身心舒畅感受。

下午，大家访问了神纳川地区的“神纳川HBP”。该设施的神谷先生介绍说“HBP是Happy Bridge Project（幸福之桥项目）的简写。这是奈良县、十津川村、

神纳川区和旅行调查中心联手开展的项目。其目的在于将城市地区与人口稀少地区结合起来，为此开展着农村生活体验等各类协调活动”。

傍晚，大家前往世界遗产熊野古道之一小边路的部分路段漫步。穿行在蓊郁的密林间，心情极为愉快，大家一致惊叹于保存完好的古代石板路。

이 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마을 내의 특별양호노인홈. '다카모리노 사토' 후카세 시설장의 개요 설명후, 시설내를 견학했다.

이어 도쓰카와무라의 커다란 관광자원인 온천을 체험하기 위해 '호텔 스바루'로 이동. 원천수로 즐기는 온천을 체험했다.

오후에는 간노가와지구의 '간노가와 HBP'를 방문했다. 사무국의 가미야씨로부터 'HBP란 "Happy Bridge Project"의 약자로 나라현, 도쓰카와무라, 간노가와구 자란리서치센터의 협동사업으로, 도시부와

과소지를 연결하기 위해 농촌체험 등의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

저녁에는 세계유산이자 구마노고도의 하나인 고헤치의 일부를 걷는 체험을 했다. 울창한 나무 사이를 걸어가니 기분이 좋다거나 오래된 돌길이 남아 있는 것에 감동했다는 감상이 있었다.







成果発表作成準備  
成果发表的准备  
성공발표 준비

# ひとりひとりが感じたこと、

将每个人的感受与建议融汇成团队意见

# 提案したいことを

각자가 느낀 것과 제안하고 싶은 것을 그룹별로 정리해 간다.

# グループとしてまとめていく。

十津川村でのフィールドワークで、学んだこと、感じたこと、そして提案したいことをグループごとにまとめ、発表資料を作成した。

言葉も文化も環境も異なるメンバーの意見を集約する作業は大変だ。難航するグループの姿も見受けられた。

学员们将在十津川村田野调查中的所学、所感和建议汇总成团队意见，并整理成发表资料。

成员之间存在着语言、文化和生活环境的差异，集合众人的意见并非易事。有的小组为了为此着实费了一番功夫。

도쓰카와무라에서 실시된 필드워크를 통해 배운 것, 느낀 것,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을 그룹별로 정리해 발표자료를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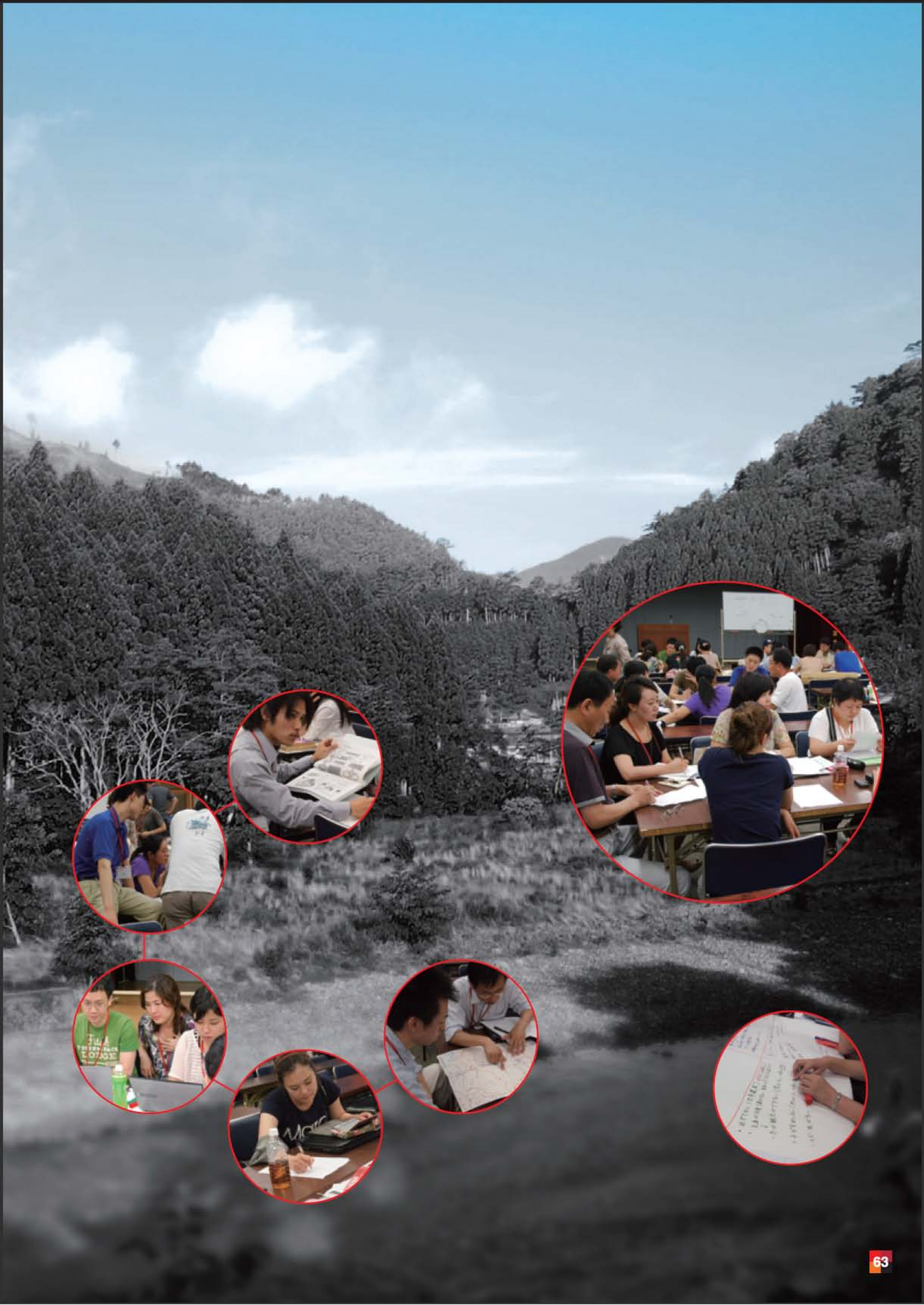
언어와 문화, 그리고 환경이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난항을 거듭하는 그룹도 있었다.

2011  
8/4<sup>수</sup>

奈良市内  
奈良市内  
나라시내









成果発表  
成果報告  
성과발표

# 準備の過程で、

筹备紧锣密鼓，气氛渐入高潮

# 高まっていく一体感を実感。

준비 과정에서 고조되어 가는 일체감을 실감.



2011  
8/5<sup>木</sup>

奈良県新公会堂  
奈良县新公会堂  
나라현 신공회당

これまでの集大成となる成果発表の日。朝からリハーサルが行われた。1グループにつき持ち時間は8分。フィールドワークで撮影した画像や、チームワークで集めたデータなどをたっぷりと盛り込んだグループが多く、画面を1ページずつい

这天，学员们迎来了检验进修成果的报告会。彩排活动自早晨开始，每组报告时间限8分钟。多个小组都使用野外实习拍摄的照片与组员分别收集的信息等，制成内容详实的报告资料，并就展示的每个页面一说明，结果

지금까지 활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발표일. 아침부터 리허설이 실시되었다. 그룹별 대기시간은 8분. 필드워크에서 촬영한 영상과 팀워크로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그룹이 많아 화면을 한 페이지씩 정성을 다해 설명을 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초과해 버린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면서

ねいに説明していると、どうしても時間がオーバーしてしまう。時間を守りつつ、しかも提案をうまく伝え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のか。グループごとに最後の調整が行われた。本番に向け、緊張感が高まる……。

难免超时。为此，各组成员绞尽脑汁，调整报告内容，力图在限定时间内简洁明晰地归总要点。为确保报告会取得圆满成功，现场洋溢着热烈而紧张的氛围。

자신들의 제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정이 계속되었다. 그룹별로 막바지 조정이 이루어졌다. 본 발표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



# 十津川村ポカポカツアー



十津川村温情之旅  
도쓰카와무라 포카포카투어

**三国ポカポカチーム** ■ 中国・閻留強、中国・蔡鑫、韓国・キム ジウン、韓国・イ ジョンウォン、日本・堀部暢一、日本・趙冰  
**三国温情組** ■ 中国学员・閻留強、中国学员・蔡鑫、韓国学员・KIM JI EUN、韓国学员・LEE JEONG EON、日本学员・堀部暢一、日本学员・趙冰  
**3국 포카포카팀** ■ 중국·엔류우창, 중국·차이신, 한국·김지은, 한국·이정언, 일본·호리베 요이치, 일본·조우빙

「十津川村の魅力は豊かな自然と温かい人々にある。しかし、現状では村の観光資源を活かしきれておらず、大人の観光客を誘致できるような、川を利用したレジャースポーツ等を開発すべきである。そこで、1泊2日のモデルコースを考案した。日本人以外の視点を取り入れ、村の自然が失われないような観光プランが必要だ」と発表した。

発表後、森下豊・橿原市長から、暖かい季節の温泉利用法について質問があり、「世界遺産を歩いた後に温泉に入れば気持ち良いのでは」との回答があった。また、伊藤忠通・奈良県立大学学長の「日中韓の相違点は?」の問いには、「韓国の農村部と違い世界遺産や温泉がある。中国の農村部は交通が不便で温泉もない」との意見が出た。

该组报告指出，“十津川村的自然风光秀丽多姿，村民淳朴热情，极富吸引力。但目前，村内的旅游资源并未得到充分利用。为吸引成年游客，可以考虑在河流上开发户外旅游项目等。我们特意为该村设计了2天1夜的旅游线路样本。我们认为，该村应从外国游客的角度出发，思考不会破坏自然风光的旅游项目”。

小组报告结束后，橿原市市长森下丰提问，该如何在气温较高的季节活用温泉。对此，组员回答称，“在漫步游览世界遗产之后，泡一泡温泉定会让人神清气爽”。另外，奈良县立大学校长伊藤忠通询问了日中韩三国农村的不同之处。对此，有组员指出，“十津川村拥有世界遗产和温泉，与韩国农村截然不同。而中国农村交通极为不便，也没有温泉”。

“도쓰카와무라의 매력은 풍요로운 자연과 인정미 넘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의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강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등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1박2일의 모델코스를 고안했다. 외국인의 시점을 수용해 마을의 자연이 손상되지 않는 관광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따뜻한 계절의 온천 이용법에 대한 질문에 모리시타 유타카(森下豊)가시하라 시장이 ‘세계유산을 산책한 후에 온천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또한, 이토 다다미치(伊藤忠通) 나라현립대학장의 ‘일·중·한 3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농촌부와 달리 세계유산과 온천이 있다거나 중국의 농촌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온천도 없다’는 의견에 나왔다.

- 具体的には**
- ・レポップ(レジャー+スポーツ)商品の開発
  - ・天然の温泉・(一)
  - ・会議の開発
  - ・都市部でのPR
  - 〔宅配温泉、おばあちゃんの出産料理〕
  - ・フォトコンテスト(写真を宣伝に利用)
  - ・地酒の開発

- ツアー(1泊2日)**
- ・出発 奈良市
  - ・到着 十津川温泉
  - ・昼飯 (めはり寿司)
  - ・野猿体験
  - ・山登り(世界遺産)
  - ・温泉(夕食)
  - ・民宿 (星の鑑賞、地酒)

- ツアー(1泊2日)**
- ・民宿の人と楽しいおごはん
  - ・レポップ体験
  - ・星ごはん(バーベキュー)
  - ・帰宅



野猿  
野生猿猴  
야생 원숭이



ウォーキング  
野外漫步  
워킹

具体案のリスト  
具体方案列表  
구체적인 안 리스트

1泊2日のツアーについて  
2天1夜旅游线路样本  
1박2일의 투어에 대하여



# 十津川村・林業活性化に向けて

～村と大学の連携、中学・高等教育への林学導入、中韓日連携から～



十津川村: 发展林业, 打造活力村庄——论村庄与大学联手、中高等教育引进林学课程、加强中韩日合作  
 도쓰카와무라·임업 활성화를 위하여~마을과 대학의 연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임학을 도입, 한·중·일 연대부터~

サムライチーム ■ 中国・李梅、中国・王容、韓国・キム ソンホン、韓国・キム ジュングォン、日本・王磊、日本・内山 怜和  
 武士組 ■ 中国学员・李梅、中国学员・王容、韓国学员・GIM SEUN HONG、韓国学员・KIM JUN KWON、日本学员・王磊、日本学员・内山 怜和  
 사무라이팀 ■ 중국·리이메이, 중국·왕룡, 한국·김선홍, 한국·김준권, 일본·왕레이, 일본·우치야마레이오

「十津川村の活性化には森林・林業の再生が必要であり、村と大学の連携、中学・高等教育への林学導入、中韓日連携の研修を提案したい。林学の学科を有する大学は、中韓日三国にある。これらの学生が村で研修・合宿を行える仕組みを作り、産官学の交流を行ってはどうか。また、村独自の教育として、子どもが林業に関心を持てるような工夫が必要だ。加えて、中韓日連携の研修

による活性化も検討の余地がある。十津川村を林業教育の場にする事で森林・林業を再生させ、活性化を図りたい」とまとめた。以上の発表を受けて更谷慈禧・十津川村長は「子どもたちが木や山に感謝するような教育を行う必要がある。提案を参考に実践していきたい」との感想を述べた。

该组汇总认为，“为给十津川村注入活力，必须植树造林，大力发展林业。我们建议村庄与大学携手合作，在中高等教育中引进林学课程，并开展中韩日联合研修活动。中韩日三国的大学都开设有林学专业，可以考虑组织这些专业的学生前来十津川村交流研修，推进产官学三方合作。同时，村内还应自行开展教育工作，让孩子们从小就对林业产生兴趣。促进中韩日联合

研修，不失为搞活村庄的一种途径。我们将十津川村建设为林业教育基地，实现森林与林业的复兴，从而将十津川村打造成极富活力的村庄”。小组报告结束后，十津川村更长谷慈禧表示，“确实应该教育孩子们对森林和山川心怀感激，今后我会参考这些建议，开展教育工作”。

‘도쓰카와무라의 활성화에는 삼림·임업의 재생이 필요하므로 마을과 대학의 연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임학 도입, 그리고중·일·한이 연대한 연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임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한·중·일 3국에 모두 있다. 이들 임학과 학생들이 마을에서 연수하고 합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산관학의 교류를 실시하면 어떨까? 또한, 마을의 독자적인 교육으로서 어린이가 임업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의 연대 연수를 통한

활성화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도쓰카와무라를 임업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삼림·임업을 재생시켜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정리했다. 상기 발표에 대해 사라타니 요시키(更谷慈禧) 도쓰카와 촌장은 “어린이들이 나무와 산에 감사할 수 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참고해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3. 十津川村・林業活性化のための策**

(1) 村と大学の連携による活性化  
 (2)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林業に関する専門知識を有する学生を、十津川村で研修・合宿させる。
- ・ 十津川村は林業に関する知識、技術、森林資源が豊富。
- ・ 学生にとっても、十津川村にとって互恵的な関係が期待できる。
- ・ 森林は、1つ1つの木を受け入れればはじまり、それを連鎖させていけば森林に、受け入れる大学の力を加えていく。
- ・ 中韓日三ヶ国大学の学生を呼び込むのもよくなる。それにより、関係構築も生まれる。
- ・ また、高層林、森林化が進む十津川村に若い世代が入ってくるようになる。
- ・ 十津川村の林業を更に発展させ、十津川村の行政、企業、大学の学生という産官学の交流で、村の林業活性化を目指す。

**3. 十津川村・林業活性化のための策**

(1)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2) 中学・高等教育への林学導入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3. 十津川村・林業活性化のための策**

(1)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2)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3. 十津川村・林業活性化のための策**

(1)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2)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 ・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村と大学の連携による活性化  
 村庄与大学携手, 共建活力村庄  
 마을과 대학의 연대를 통한 활성화

中学・高等教育への林学導入による活性化  
 中高等教育引进林学课程, 共建活力村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임학을 도입한 활성화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组织中韩日联合研修, 共建活力村庄  
 중·한·일의 연대 연수를 통한 활성화

中・韓・日連携の研修による活性化  
 组织中韩日联合研修, 共建活力村庄  
 중·한·일의 연대 연수를 통한 활성화



# よーおいで十津川村



欢迎来到十津川村  
요-오이데 도쓰카와무라

ビタミンCならグループ ■ 中国・朱海霞、中国・毛玉珩、中国・韓昇良、中国・吉明、韓国・イ カンヨル、日本・山本直樹  
 維C奈良組 ■ 中国学员・朱海霞、中国学员・毛玉珩、中国学员・韓昇良、中国学员・吉明、韓国学员・LEE KANG LYUL、日本学员・山本直樹  
 비타민C 나라그룹 ■ 중국・주하이샤, 중국・마오위형, 중국・한성량, 중국・지밍, 한국・이강열, 일본・야마모토나오키

「東アジア共通文化の一つである漢字を用いて十津川村をPRしたい。十津川村の魅力は、途(みち)、通(かよう)、家(いえ)、和(わ)の四つの漢字で表わすことができる。世界遺産の途、吊り橋という田舎ならではの途、村に行くまでの途。そして、民泊で体験した温かいもてなしと心の通う人間関係。古い伝統的な家。家に泊まるだけでなく、家を建てる体験もできればより素晴らしい。さ

らには、人と自然の調和・共存。和の精神はアジア文化の特徴でもある。つまり十津川村は、途を通じて家に和がある村、『途通家(ととけ)和(わ)村』だ」とまとめた。以上の発表を受け、田中敏彦・奈良県地域振興部長から「ぜひ十津川村のキャッチコピーに使ってもらいましょう!」との提案に、メンバーもうれしそうな表情になった。

该组汇总认为，“可以考虑充分活用在东亚地区广为流传的汉字文化宣传十津川村，其魅力可概括为‘途’、‘通’、‘家’、‘和’四个字。‘途’，涵盖世界遗产之路、吊桥这一极富乡野气息的沿途景观、以及通往村庄的道路。‘通’，指入住民宿时便能体会到的宾至如归的款待与心灵相通的人际关系。‘家’，则指当地历史悠久的传统民宅。如果不仅是入住，还能开发共建传

统住宅的体验型游乐项目，将会更富吸引力。而‘和’，则指人与自然和谐共处。以和为贵的精神，也正是亚洲文化的特色之一。将这四个字与十津川村归纳到一起，即为‘途通家(ととけ)和(わ)村’，也就是：沿此路途便可通往家和之村”。小组报告结束后，奈良县地区振兴部部长田中敏彦表示，“一定要把这句话说作十津川村的广告语”，小组成员听后都欣喜万分。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 가운데 하나인 한자를 활용해 도쓰카와무라를 PR하고 싶다. 도쓰카와무라의 매력은 ‘途(길), 通(통하다), 家(집), 和(화)’의 4개의 한자로 표현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길’, 현수교라는 시골 정취가 가득한 ‘길’, 마을에 도착하기까지의 ‘길’. 그리고 민박에서 체험한 친절한 대접과 마음이 통하는 인간관계, 즉 ‘통’. 오랜 전통이 가득한 집. 집에서 숙박을 할 뿐만 아니라 집을 건축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이라는 ‘화’의 정신은 아시아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즉 도쓰카와무라는 ‘길’을 통해 집에 ‘화’가 이루어지는 마을, ‘途通家(ととけ)和(わ)村’라고 정리했다. 상기 발표에 대해 다나카 도시히코(田中敏彦) 나라현 지역진흥부장이 ‘이 4개의 한자를 반드시 도쓰카와무라의 캐치코피로 사용하도록 합시다!’라고 제안했으며, 멤버들도 매우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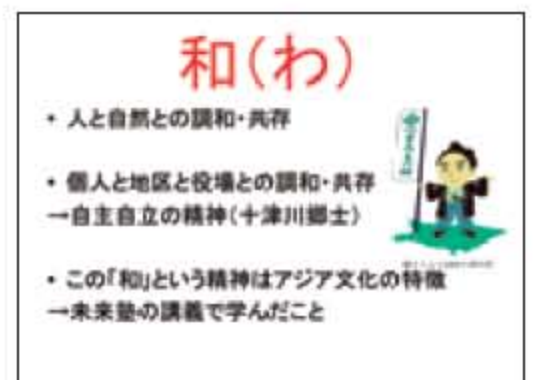
「途」について  
途  
에 대하여



「通」について  
通  
에 대하여



「家」について  
家  
에 대하여



「和」について  
和  
에 대하여



# 山間部地域の産業振興について

## 论山区产业振兴 산간부 지역의 산업진흥에 대하여

ハチの組 ■ 中国・李鑫、中国・華珊、中国・濮兆桂、中国・宋璐、韓国・イム ヨン Chol、日本・辻谷明代  
 蜂之組 ■ 中国学员・李鑫、中国学员・華珊、中国学员・濮兆桂、中国学员・宋璐、韓国学员・LIM YEONG CHEOL、日本学员・辻谷明代  
 하치노구미 ■ 중국・리이신, 중국・화아산, 중국・푸자우구이, 중국・송루, 한국・임영철, 일본・쓰지타니아키요

「産業振興には、特産品のブランド化や観光振興、企業の投資環境整備が必要だ。企業の研修旅行を誘致できる施設を作ってはどうか。中韓の事例を参考に、現代的なものを一切排除した大人の原始生活体験教室を設けても面白い。体験を通して歴史・文化をより深く理解し、現代文明の有り難さが実感できる。そこから歴史遺産や大自然への尊敬心が生まれ、資源を大切にす

る考えも生まれるだろう」と発表した。  
 発表後、石原潤・奈良大学学長から、「都市部と農村部の子ども交換留学が日本でも一般化すればよい」との感想が、安村克己・奈良県立大学教授からは、「企業の投資についてもう少し詳しく」との要望があり、CO<sub>2</sub>排出量取引について補足説明があった。


该组报告指出，“为振兴地区产业，必须将当地土特产品牌化，并大力发展旅游业，同时改善企业投资环境。可以考虑针对企业客户建造适合员工研修的旅游设施。另外，也可参考中韩两国的案例，拒绝所有现代化设备，开设面向成年人的原始生活体验基地，从而打造旅游新热点。游客们将通过亲身体验，加深对历史、文化的理解，并切身感受到现代文明的便捷与可贵。同时，这还有助于培养人们保护历史遗产的意识，催生出对自然的敬畏之情，并让他们懂得必

须珍惜宝贵的地球资源”。  
 小组报告结束后，奈良大学校长石原润表示，“日本也应该考虑广泛开展城乡学生之间的交流与互换体验活动”。另外，奈良县立大学教授安村克己提出，“希望详细阐述一下关于企业投资方面的设想”。对此，该组成员就碳排放交易等问题进行了补充说明。

‘산업진흥에는 특산품의 브랜드화와 관광진흥, 그리고 기업의 투자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의 연수여행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로 현대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한 성인의 원시생활체험교실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체험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현대문명의 고마움을 실감할 수 있게되면 역사유산과 대자연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고도 형성될 것이라’

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발표 후, 이시하라 준(石原潤) 나라대학 학장이 ‘도시부와 농촌부 어린이의 교환유학이 일본에서도 일반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야스무라 가쓰미(安村克己) 나라현립대학 교수가 ‘기업의 투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CO<sub>2</sub>배출량 거래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었다.

**現状の分析**  
 自然資源が豊富  
 世界遺産を有している  
 資金源(国や県から補助金)  
 交通・通信インフラの不備  
 地元の人がないと行くのが難しい  
 産業(林業)の衰退  
 →自然の資源がある  
 産業の復興が必要



現状の分析  
 现状分析  
 현상의 분석

**行われている対策**  
 産業復興  
 ・林業 第六次産業(加工品の販売)  
 二酸化炭素排出量削減  
 ・観光 HBPプロジェクト  
 かけ流し温泉  
 特産品の商品化・ブランド化  
 世界遺産



行われている対策  
 现行对策  
 실시하고 있는 대책

**産業振興に必要と思われること**  
 特産品のブランド化  
 土産品だけのものを作る  
 農作物を商品化・加工する(農家の収入にする)  
 観光振興  
 まずは日本国内の客を誘導する。(仁徳堂と呼ぶ、青少年センターのようなものを建設したり、企業の研修旅行などにも利用してもらおう。)  
 投資環境を作る。企業との協力  
 官からの資金に頼りすぎる体制からの脱却

産業振興に必要と思われること  
 振兴产业的必要举措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大人向け昔の生活体験教室  
 (現代的なものを一切排除する)**  
 →資金が足りない、交通の便が悪い、通信の不備、地元の人がないと行けない点を生かす  
 ・通信機器、テレビ、電気を使わない  
 ・今の施設、環境をそのまま使う  
 ・必要最低限のもので生活してみる  
 ・自然体験、農作業などをする  
 ・現代生活で出来ない体験をする  
 →小径路、温泉、野営などやあるものを最大限に生かす

大人向け昔の生活体験教室  
 面向成年人的原始生活体验基地  
 성인용 옛날 생활체험교실



# 星のふるさと・十津川村



星之乡・十津川村  
호시노 후루사토・도쓰카와무라

チーム「きらきら」 ■ 中国・郭旭紅、韓国・김 용심、韓国・ジョン 미ヨン、日本・リュウ ソンウク、中国・劉朴、日本・若杉真紀子  
 “閃耀”之組 ■ 中国学员・郭旭紅、韓国学员・KIM YEON SHIM、韓国学员・JEOUNG MI YOUNG、日本学员・柳成煜、中国学员・刘朴、日本学员・若杉真紀子  
 ‘キラキラ’팀 ■ 중국・구어쉬홍, 중국・류우푸, 한국・김연심, 한국・정미영, 일본・류성욱, 일본・와카스기마키코

「民泊体験では、小辺路や美しい星空に感動し、人の温かさとながりの大切さを感じた。もっと星空を見たかったが、ママシヤムカデが出て危険だと言われ、もったいないと感じた。小辺路について分かりにくかったのも残念である。観光客のために、景観を壊さないような案内板の設置、語り部の育成、茶店や休憩所の設置が必要では」とまとめ、神納川に宿泊する人、暮らす人、十津

川村のほかの集落に暮らす人たちが集まり、天体観測ができる場所「きらきらHBP」の設置を提案した。

以上の発表を受け、田中敏彦・奈良県地域振興部長からは、「空全体を見るには天体望遠鏡がないほうが良いのでは。大塔コスミックパークとの違いもある」との意見が出された。

该组汇总认为，“在十津川村的民宿体验活动中，小边路秀丽的风光与星空的璀璨之美深深打动了组员的心。同时，他们还从村民身上感受到了人与人之间的温情与牵绊。不过，当组员们希望继续观赏浩瀚无垠的星空时，却被告知有蝮蛇和蜈蚣出没、非常危险，这让组员们备感遗憾。而且，小边路周围路况错综复杂，极易迷路。基于上述问题，我们建议多为游客着想，在不破坏周围景观的情况下设置路标，培养讲解员，并

建造一些茶馆及休息场所”。该组还提议开设天体观测站“群星闪耀HBP”，为居住和投宿于神纳川地区的人们、以及十津川村与周边村落的村民提供交流畅谈的场所。

小组报告结束后，奈良县地区振兴部部长田中敏彦表示，“为了博览群星，可以考虑不设置天体望远镜，这样也能凸显出不同于大塔宇宙公园的特色”。

‘민박체험에서는 고해치와 별들이 가득한 하늘에 감동했고, 사람들의 따스한 온정과 관계성의 소중함을 느꼈다.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좀더 보고 싶었지만 살무사나 지네가 나와 위험하다는 말에 아쉬움을 느꼈다. 고해치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았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관광객을 위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휴게소와 찻집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리하고, 간노가와에 숙박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도쓰카와무라 이외의 취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장소로서 ‘キラキラHBP’의 설치를 제안했다.

상기 발표에 대하여 다나카 도시히코(田中敏彦) 나라현 지역진흥 부장으로부터 ‘하늘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천체망원경이 없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小辺路」を訪れる人たちのために

- 景観を壊さないような案内板の設置
- 語り部の育成
- 人が住まなくなった民家を利用した茶店・休憩所の設置

小辺路を訪れる人たちのために  
为到访小边路的游客所应采取的措施  
고해치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きらきらHBP」の開設

「きらきらHBP」とは・・・  
神納川に宿泊する人・神納川に暮らす人・十津川村のほかの集落に暮らす人たちが集まってみんなで星を見ることのできる場所

きらきらHBPの開設  
开设“群星闪耀HBP”  
キラキラHBP의 개설

中国、韓国の事例  
中韩两国参考案例  
중국, 한국의 사례

中国、韓国の事例  
中韩两国参考案例  
중국, 한국의 사례

「きらきらHBP」では・・・

- 「神納川に暮らす人」と「都会から来た人」「こどもプロジェクト」と「十津川のこども」「民泊に来た人」と「民泊に来た人」が、天体観測を通じて、交流を深める
- 星を見るためには暗闇が必要  
→ 経済的効果が期待できる

きらきらHBPについて  
“群星闪耀HBP”设想  
キラキラHBP에 대하여



# 観光と地域振興

～資源としての川の活用～



旅游与地区复兴 —— 发挥河流资源优势  
관광과 지역진흥 —— 자원으로서의 강의 활용

F8グループ ■ 中国・呉欽、中国・黄清清、中国・劉婷、中国・張瑜、韓国・キム スヒョン、韓国・ファン ソユン、韓国・イ ナムジュ、日本・森田修平  
F8小组 ■ 中国学员・呉欽、中国学员・黄清清、中国学员・刘婷、中国学员・张瑜、韩国学员・KIM SOO HYEON、韩国学员・HWANG SO YUN、韩国学员・LEE NAM JU、日本学员・森田修平  
F8그룹 ■ 중국・우친, 중국・황칭칭, 중국・류우팅, 중국・장위, 한국・김수현, 한국・황소운, 한국・이남주, 일본・모리타슈헤이

「十津川村への交通手段は自動車しかないが、川を新しい交通路、地域交流の懸け橋として利用できないか。例えば、中国の福建省武夷山では竹の筏で川下りを楽しむことができ、湖南省鳳凰古城では川沿いの飲食店が遅くまで営業している。十津川村でも川を利用して、舟で温泉に行ったり、郷土料理やお酒、星空を楽しんだりできれば、観光振興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とまとめた。

以上の発表を受け、石原潤・奈良大学学長からは「(ここまでうまくつながるかは)少し苦しい面もありそう」とのコメントがあり、中島敬介・奈良県東アジア連携課長からは「奈良県は産業集積がないので、お金を地元にとす方法が加われば、行政が使いやすいアイデアになるだろう」との意見が出た。

该组汇总认为，“前往十津川村的交通手段非常单一，只能乘坐汽车，可以考虑利用河流开拓水路交通，为地区交流架起新桥梁。事实上，开发河流资源有诸多成功的先例，比如，中国福建省的武夷山开设有竹筏漂流的旅游项目，而湖南省的凤凰古城则拥有许多沿河而建的餐厅，一直营业至深夜。所以，十津川村也应该充分利用河流资源，为游客们创造泛舟泡温泉、或边品尝乡土菜肴

边饮酒赏星的机会，相信这将成为振兴当地旅游业的一大契机”。  
小组报告结束后，奈良大学校长石原润评论指出，“该设想的具体效果难以预测，略显牵强”。而奈良县东亚合作课课长中岛敬介则表示，“奈良县的产业集聚较弱，如能加入为当地创收的具体办法，这份方案会更容易被行政机构所采纳”。

‘도쓰카와무라로 가는 교통수단은 자동차 밖에 없는데, 강을 새로운 교통수단이자 지역교류의 가교로서 이용하면 좋겠다. 예를들어 중국의 후젠성(福建省) 우이산(武夷山)에서는 대나무 뗏목을 이용해 강의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등 자연을 활용하고 있으며, 후난성(湖南省) 평항고성(鳳凰古城)에서는 강가의 음식점이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도쓰카와무라에서도 강을 이용해 배로 온천에 가거나 향토요리나 술, 그리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즐길 수 있다면 관광진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상기 발표에 대하여 이시하라 준(石原潤) 나라대학 학장으로부터 ‘약간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나카지마 게이스케(中島敬介) 나라현 동아시아 연대과장으로부터는 ‘나라현은 산업집적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소비를 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부가된다면 행정 차원에서도 이용하기 쉬운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観光と地域振興—資源としての川の活用—

①観光資源

- 源泉掛け流し温泉
- 世界遺産
- 郷土料理
- あたたかい人々
- 星空

観光資源  
旅游资源  
관광자원

観光と地域振興—資源としての川の活用—

②交通

- 道路での長時間の移動が必要
- 長時間の移動も旅行の一部に組み込めないか?

⇒ 川を新しい交通路・地域振興・外との交流の資源として使う

単純な交通手段ではなく地域交流の架け橋として川を利用

交通について  
交通問題  
교통에 대하여

中国の例① 福建省武夷山(世界遺産)

福建省武夷山  
福建省武夷山案例  
후젠성 우이산

中国の例②

湖南省鳳凰古城

湖南省鳳凰古城  
湖南省鳳凰古城案例  
후난성 평항고성



# キーワードは「交流」、

重在“交流”，心怀“感激”

# そして「感謝」。

키워드는 ‘교류’, 그리고 ‘감사’.

受講者の熱意とチームワークが伝わってくる6グループの成果発表について、伊藤忠通・奈良県立大学学長から「全グループに共通し、今回の塾にも関わるキーワードとして『交流』という言葉挙げたい。会わなくても簡単に情報交換できるIT社会だが、直接会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ことの大切さを、私自身も実感した。これからも、『創発的』『共創的』という姿勢を大切にしながら、新しい価値や資源を発見し、新しい東アジア、ひいては世界の未来の創造に生かして欲しい」との講評が述べられた。

更谷慈禧・十津川村長からは「『途通家和村(とつかわむら)』(ビタミンCならグループ)、『人と人、人と宇宙のつながり』(チーム「きらきら」)など、今度ぜひ使わせていただきたい言葉や提案をいただき、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観光・産業振興も森に感謝する、歴史に感謝する…そんな思いを忘れず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の感謝あふれる言葉が贈られた。

6个小组的成果报告传达出学员们旺盛的求知欲望与注重合作的团队精神。就此，奈良县立大学校长伊藤忠通点评道，“我认为，本次研讨会的关键词是‘交流’，所有小组的报告都印证了这一点。虽然IT技术的发展让人们无需会面即可进行简单的信息交换，但本次研讨会却让我切身感受到面对面交流所无可比拟的重要意义。今后，希望所有学员继续秉持‘创造’与‘共创’的理念，不断发掘全新的价值与资源，为开创东亚、乃至世界的未来作出卓越的贡献”。另外，十津川村村长更谷慈禧则满怀感激地表示，“今天得到了许多极具启示意义的广告语和提议，如‘途通家和村’（维C奈良组）、‘人与人、人与宇宙的联系’（‘闪耀’之组）等，我们会将其付诸实施，对此我深表感谢。另外，在发展旅游等各大产业的同时，不能忘记对森林与历史的感激之情……我们会铭记这一点，努力实现本地区的复兴”。

수강자의 열의와 팀워크가 느껴지는 6개 그룹의 성과 발표에 대하여, 이토 다다미치(伊藤忠通) 나라현립대학 학장으로부터 ‘전 그룹에 관련이 있고, 이번 미래학원에도 관련이 있는 키워드로서 ‘교류’라는 단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IT사회이지만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도 실감했다. 앞으로도 ‘창발적(創發的)’ 이고 ‘공창적(共創的)’인 자세를 소중한 자산으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발견해, 새로운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미래를 창조하는데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강평을 했다.

사라타니 요시키 도쓰카와무라 촌장으로부터는 ‘(途通家和村(도쓰카와 무라):비타민 C나라 그룹),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의 연결:키라키라 그룹) 등 꼭 활용해 보고 싶은 좋은 말과 제안을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관광과 산업진흥에 대해서도 삼림에 감사하고 역사에 감사하는…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대응해 가겠다’는 감사하는 말씀이 있었다.





# 「来てよかった!」

“很有收获!” 回音彰显珍贵的相遇相知

# 数え切れない出合いを

‘와서 좋았다!’, 수 많은 만남을 되돌아 보며,

# 振り返って。

まず、受講生が大きなひとつの輪を作り、順番に全カリキュラムを通じての「個人的な成果」について振り返った。事前に作成したシートをもとに、全員が発言した。次に、ゲストも交え、グループでも対話が行われた。「今まで生きてきた中で、そしておそらくこれからの人生の中でも、得がたい貴重な時間」(日本・若杉真紀子)、「交流を通じて、三国の事情をもっと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た。日本人のまじめな仕事ぶり、韓国人のすごいパワーと積極的な態度、中国人の豊かな知識と優れた見解が印象的」(中国・毛玉珩)、「最初は軽い気持ちで参加したが、日がたつにつれ、だんだん心構えが変わってきたような気がする」(韓国・ジョン ミヨン)、「日本と韓国の友人の優しさが大変うれしい」(中国・濮兆桂)といった感想が次々に発表された。日本や奈良を初めて訪れた受講者もあり、「初めて日本に来て、奈良の古い雰囲気や人間と自然の調和などにとっても心を惹かれました」(中国・朱海霞)、「初めての日本が「NARASIA未来塾」でよかったと思う」(韓国・イ ジョンウォン)という声もあった。

首先,学员们围成一圈,一一回顾了听完所有课程之后的“个人收获”。每个人都依照事先准备的讲稿发表了自己的感想。其后,学员们与来宾自由交流,并分组畅谈。他们纷纷表示,“无论过去还是未来,这都将是我人生中难以忘怀的经历”(日本学员·若杉真纪子)，“通过本次交流,我对中日韩三国有了更深的了解。尤其是日本人一丝不苟的工作态度、韩国人积极热情的参与精神、以及中国人博学的知识和独到的观点,让我印象深刻”(中国学员·毛玉珩)，“刚开始的时候,我并不是特别认真,但时间一天天过去,我觉得自己越来越投入了”(韩国学员·JEOUNG MI YOUNG)，“日本和韩国的朋友都非常友善,与他们相处很开心”(中国学员·濮兆桂)。另外,也有学员是首次到访日本或奈良,他们表示,“这是我第一次来日本,奈良古朴的氛围、人与自然和谐共处的环境非常吸引我”(中国学员·朱海霞)，“第一次来日本就能参加“NARASIA未来亚洲研讨会”,真是太幸运了”(韩国学员·LEE JEONG EON)。

먼저, 수강생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 순서대로 각 커리큘럼 별로 얻어진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 되돌아 봤다. 사전에 작성한 시트를 토대로 참가자 전원이 발언을 했다. 이어서 게스트도 참여한 가운데 그룹별로도 대화를 가졌다. '지금까지의 인생,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체험하기 어려운 귀중한 시간'(일본·와카스기 마키코), '교류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사정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의 성실한 업무처리, 한국인의 강력한 파워와 적극적인 태도, 중국인의 풍요로운 지식과 뛰어난 견해가 인상적이었다'(중국·마오위험),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다'(한국·정미영), '일본과 한국 친구의 친절함이 매우 인상적이었다'(중국·푸자우구이)는 감상이 잇따랐다. 일본과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수강생에게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와서 역사가 깊은 고도 나라의 분위기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에 큰 매력을 느꼈다'(중국·주하이샤), '처음 방문한 일본이 "NARASIA미래학원" 이어서 좋았다고 생각한다'(한국·이정연) 라는 의견이 나왔다.



2011  
8/5  
奈良県新公会堂  
奈良県新公会堂  
나라현 신공회당









閉校式・フェアウェルレセプション

閉幕式・欢送招待会

폐교식·페어웰 리셉션

# 閉校式では、

在閉幕式上，研讨会会长，奈良县知事荒井正吾向每位学员颁发了结业证书与纪念品。

# 塾長の荒井正吾・奈良県知事から

폐교식에서는 학원장인 아라이 쇼고(荒井正吾) 나라현 지사로부터 수료증과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 修了証と記念品が渡された。

最後をしめくくるフェアウェルレセプションでは、荒井知事のあいさつに続き、来賓の仲川げん・奈良市長、更谷慈禧・十津川村長のあいさつがあった。レセプションのクライマックスでは、まつぼっくり少年少女合唱団による合唱披露と、中国からの受講生による「ティリティリ」、韓国からの受講生による「アリラン」、日本からの受講生に中国・韓国からの受講生も加わって「ふるさと」と合唱が続き、会場は和やかな雰囲気包まれた。

在欢送学员的招待会上，荒井知事率先致辞，随后来宾、奈良市市长仲川GEN与十津川村长更谷慈禧也纷纷致辞。其后，松果青少年合唱团现场表演，中国学员则献上一曲《春天在哪里》，韩国学员演唱了民谣《阿里郎》，日本学员与中韩两国学员一起合唱了《故乡》。欢乐的歌声将气氛推向高潮，整个会场沉浸在一片欢欣祥和的氛围之中。

폐회식에서는 학원장인 아라이 쇼고(荒井正吾) 나라현 지사로부터 수료증과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페어웰 리셉션에서는 아라이 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내빈으로 참석한 나카가와 겐(仲川げん) 나라시 시장, 사라타니 요시키(更谷) 도쓰카와무라 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파티가クライ막스에 다달았을 때는 마쓰봇쿠리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과 중국에서 온 수강생의 '봄은 어디있나', 한국에서 온 수강생의 '아리랑'이 울려퍼졌고 이어 일본에서 참가한 수강생과 한국과 중국에서 온 수강생이 참가하는 형태로 '후루사토'를 합창해 행사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2011  
8/5

奈良県新公会堂  
奈良县新公会堂  
나라현 신공회당









受講者リスト ①地方政府②所属③今回参加したきっかけ④今回学んだことでこれから生かしていきたいと思うこと⑤感想など  
 学员名单 ①所属地方政府②所在部门③参与本次研讨会的契机④参与本次研讨会的收获及对实际工作的启示⑤感想感言  
 수강자 리스트①지방정부 ②소속 ③참가 동기 ④이번에 배운 것 가운데 앞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⑤감상 등



**宋 璐** SONG LU China

①中国安徽省 ②安徽省外事弁公室 ③日韓の人と知り合い、共に学び探求したい。 ④他国の人と共通の課題に面する国際心が重要。 ⑤主催側の完璧な仕事振りに感心し、学んだ。

①中国安徽省政府 ②安徽省外事办公室 ③希望结识日韩友人，共同学习，共同探索。 ④让我认识到，培养国际意识、与他国携手应对共同面临的课题至关重要。 ⑤主办方一丝不苟的工作态度令人钦佩，值得学习。

①중국 안후이성 ②안후이성외사반공실 ③일본인과 한국인을 만나서 함께 배우고 탐구하고 싶다. ④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공통적인 과제에 도전하는 국제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⑤주최측의 완벽한 업무처리에 감동했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濮 兆桂** PU ZHAOGUI China

①中国安徽省 ②安徽省外事僑務弁公室 ③十津川村の豊かな自然と田舎生活を体験したい。 ④日本の知識と外国の文化を学び、日韓の友人もできた。 ⑤スタッフが親切で、環境も先生も素晴らしかった。

①中国安徽省政府 ②安徽省外事侨务办公室 ③希望亲身体验十津川村秀丽的自然风光及田园般的淳朴生活。 ④了解了日本及其他国家的文化、知识，并结交了许多日韩朋友。 ⑤工作人员非常友善，环境十分优美，教师们也都很优秀。

①중국 안후이성 ②안후이성교무반공실 ③도쓰카와무라의 풍요로운 자연과 시골생활을 체험하고 싶다. ④일본의 지식과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일·한 양국의 친구도 만들었다. ⑤스태프가 친절했으며 환경도, 교수진도 훌륭했다.



**李 梅** LI MEI China

①中国江苏省 ②江苏省徐州市睢寧県外事弁公室 ③現代日本の漢字文化の発展状況を知りたい。 ④日韓の友人を架け橋とした地域交流への期待。 ⑤言葉が分からなくても、歌が心をつなぐとわかった。

①中国江苏省政府 ②江苏省徐州市睢宁县外事办公室 ③希望了解汉字文化在现代日本的发展情况。 ④期待与日韩友人架起友谊的桥梁，深化地区交流。 ⑤第一次认识到，即使语言不通，也能通过歌曲让彼此心意相通。

①중국 장쑤성 ②장쑤성쉬저우시쑤이닝현외사반공실 ③현대 일본 한자문화의 발전상황을 알고 싶다. ④일·한 양국의 친구를 가교로 한 지역교류를 기대. ⑤언어를 몰라도 노래가 마음을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王 容** WANG RONG China

①中国江苏省 ②江苏省連雲港市商務局 ③皆と友達になり、物事に対する考えを交換したい。 ④友好交流の歴史、言葉の共通点を知った。 ⑤知識を得るだけでなく、多くの友達ができる。

①中国江苏省政府 ②江苏省连云港市商务局 ③希望结交更多朋友，交流各自的看法及观点。 ④了解了中日韩三国友好交流的历史，以及语言中的相通之处。 ⑤不仅学到许多知识，还结交了不少朋友。

①중국 장쑤성 ②장쑤성쉬저우시쑤원강시상무국 ③참가자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생각을 교환하고 싶다. ④우호교류의 역사와 언어의 공통점을 알았다. ⑤지식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를 얻었다.





吴 钦

WU QIN China

①中国安徽省 ②安徽省外事办公室 ③十津川村の生活体験で、日本人と交流を深めたい。 ④三国間の交流史と、先端を走る日本の課題。 ⑤充実した講義、スタッフの配慮も行き届いていた。

①中国安徽省政府 ②安徽省外事办公室 ③希望通过十津川村的民宿体验活动，与日本人加深交流。 ④了解了中日韩三国之间源远流长的交流史、及日本率先面临的课题。⑤课程内容非常充实，工作人员的照顾无微不至。

①중국 안후이성 ②안후이성의사반공실 ③도쓰카와무라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해 일본인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싶다. ④일·중·한 3국간 교류사와 첨단을 달리는 일본의 과제 ⑤강의도 충실했고, 스태프의 섬세한 배려도 인상적이었다.



蔡 鑫

CAI XIN China

①中国江苏省扬州市 ②扬州大学日本語科 ③多分野に関わる素晴らしい授業に期待している。 ④三国は異文化もあるが、同じ文化圏だと認識した。 ⑤講義は難しかったが、じっくり研究して理解したい。

①中国江苏省扬州市政府 ②扬州大学外语学院 日语专业 ③希望聆听内容涉及多个领域、丰富多彩的课程。 ④让我认识到，虽然中日韩三国文化各不相同，但却属于同一文化圈。 ⑤课程内容博大精深，今后要好好研究，加深理解。

①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②양저우대학일본어학과 ③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강의를 기대하고 있다. ④일·중·한 3국은 다른 문화도 있지만 같은 문화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⑤강의 내용은 어려웠지만 자세히 연구해 이해하고자 한다.



黄 清清

HUANG QINGQING China

①中国安徽省 ②安徽三联学院日本語科(教師) ③各専門家の各領域でのすばらしい論述に期待。 ④日中文化のつながり、自然環境への意識の強化。 ⑤講義と対話を合わせた学習は教育のヒントになった。

①中国安徽省政府 ②安徽省三联学院 外语学院 日语系(教师) ③希望聆听各领域专家的精彩论述。 ④加深了对一脉相承的中日文化的认识，并提升了环保意识。 ⑤课程与讨论相结合的授课方式很有启发。

①중국 안후이성 ②안후이산관학원외국어학원 일본어계(교사) ③각 분야 전문가들의 훌륭한 강의가 기대된다. ④일·중 양국문화의 관련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의 강화. ⑤강의와 대화가 조합된 학습은 교육의 힌트가 되었다.



华 珊

HUA SHAN China

①中国江苏省扬州市 ②扬州大学日本語科 ③奈良の現地の風土と人情を見学すること。 ④日中韓が共通する歴史、文化を持つことを知った。 ⑤授業は素晴らしくて、視野が広がったと思う。

①中国江苏省政府 ②扬州大学外语学院日语专业 ③希望亲身体验奈良的风土人情。 ④了解到中日韩三国的历史与文化有着许多共通之处。 ⑤课程非常精彩，拓宽了我的视野。

①중국 장쑤성 ②양저우대학외국어학원일본어학과 ③나라(奈良)의 현지 풍토와 인정을 체험하고자 한다. ④일·중·한 세나라가 공통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⑤훌륭한 수업을 통해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受講者リスト ①地方政府②所属③今回参加したきっかけ④今回学んだことでこれから生かしていきたいと思うこと⑤感想など  
 学员名单 ①所属地方政府②所在部门③参与本次研讨会的契机④参与本次研讨会的收获及对实际工作的启示⑤感想感言  
 수강자 리스트①지방정부 ②소속 ③참가 동기 ④이번에 배운 것 가운데 앞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⑤감상 등



**刘 朴** LIU PU China

①中国山东省 ②山东省济南市外事办公室 济南市人民对外友好协会 ③環境等の知識を学び、異文化を体験して視野を広げたい。 ④他人の長所を見る事が自分にプラスになると知った。 ⑤皆が温かい、奈良の良さを友達や家族に伝えたい。

①中国山东省政府 ②山东省济南市外事办公室 济南市人民对外友好协会 ③希望学习环保等知识,亲身体验异文化,拓宽自己的视野。 ④让我认识到,了解他人的长处能让自己取长补短。 ⑤大家都非常热情,我会告诉朋友和家人,奈良是一个很不错的地方。

①중국 산둥성 ②산둥성자연시외사반공실자연시민대외 우호협회 ③환경분야 등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문화를 체험해 시야를 넓히고 싶다. ④타인의 장점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⑤모두가 따스하게 대해 주었다. 나라(奈良)의 좋은 점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하고자 한다.



**李 鑫** LI XIN China

①中国山东省 ②山东省东营市外事与侨务办公室 ③日本各界の専門家の授業と日本の文化生活の体験。 ④日本の公益事業、歴史、三国の交流史を学んだ。 ⑤奈良県以外の各地に行ける時間もあれば良いと思う。

①中国山东省政府 ②山东省东营市外事与侨务办公室 ③希望聆听日本各界专家的课程,并体验日本文化生活。 ④了解了日本的公益事业、历史、及中日韩三国的交流史。 ⑤如能安排时间让学员前往奈良以外的地区实地考察,将会更有收获。

①중국 산둥성 ②산둥성동영시외사여교무반공실 ③일본 각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일본의 문화생활 체험. ④일본의 공익사업과 역사, 그리고 일·중·한 세나라의 교류사를 배웠다. ⑤나라현 이외의 지역에도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韩 升良** HAN SHENGLIANG China

①中国河南省 ②河南省开封市外事侨务办公室 ③様々な議論を通じて国際交流の意識を高めたい。 ④東アジアに関する多くの問題を考えるようになった。 ⑤未来塾で得たものをこれからの仕事に活かしたい。

①中国河南省政府 ②河南省开封市外事侨务办公室 ③希望通过各种讨论提高国际交流的意识。 ④让我开始思考东亚所面临的许多问题。 ⑤我会把在本次研讨会上学到的东西活用到今后的工作当中。

①중국 허난성 ②허난성카이펑시외사교무반공실 ③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제교류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싶다. ④동아시아에 관한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⑤미래학원에서 얻은 것을 앞으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한다.



**闫 留强** YAN LIUQIANG China

①中国河南省洛阳市 ②河南科技大学外事处 ③有名な教授の授業と、農村のフィールドワーク。 ④資本主義と社会主義には一致する点があると感じた。 ⑤対話を通して日本語力を高め、日韓の国情を理解できた。

①中国河南省洛阳市政府 ②河南科技大学外事处 ③知名教授授课与农村野外实习,对我很有吸引力。 ④我感到,资本主义与社会主义也存在相通之处。 ⑤通过对话切实提高了自己的日语水平,并了解了日韩两国的国情。

①중국 허난성 ②허난과학대학 외사처 ③유명한 교수의 수업과 농촌 필드워크. ④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는 일치되는 점이 있다고 느꼈다. ⑤대화를 통해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한 양국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朱 海霞

ZHU HAIXIA China

①中国山東省濰坊市 ②濰坊学院外国語学院 ③多くの知識を学び、日本の文化を理解できること。 ④三国は求同存異、共に発展していき、共存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⑤奈良の古い雰囲気や人と自然の調和にひかれた。

①中国山东省濰坊市政府 ②濰坊学院外语学院 ③希望学到更多知识,了解日本文化。 ④中日韩三国必须求同存异,相互了解,共存共荣。 ⑤奈良古朴的氛围、以及人与自然和谐共处的环境极富吸引力。

①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②웨이팡학원외국어학원 ③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 ④일·중·한 3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 함께 발전해 가면서 공존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고도 나라(奈良)의 분위기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매력을 느꼈다.



毛 玉珩

MAO YUHENG China

①中国山東省濰坊市 ②濰坊学院外国語学院 ③講義への期待と、奈良で日本文化を経験したい。 ④三国の人と交流し、各国の事情を詳しく知った。 ⑤学び、経験し、貴重で楽しい体験だった。

①中国山东省濰坊市政府 ②濰坊学院外语学院 ③希望聆听讲师的授课,并在奈良体验日本文化。 ④与中日韩三国朋友交流沟通,对各国情况有了更具体的认识。 ⑤既能学习,又能体验,这段经历很快乐,也很宝贵。

①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②웨이팡학원외국어학원 ③강의가 기대되며 나라에서 일본문화를 체험하고 싶다. ④일·중·한 3국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각국의 사정을 알았다. ⑤배우고 경험하는 귀중하고 즐거운 체험이었다.



郭 旭红

GUO XUHONG China

①中国河南省 ②洛陽理工学院外国語科日本語学科(教師) ③特になし ④国籍は違っても「共生」していることを学んだ。 ⑤語り合う心が明るい未来を創造すると実感した。

①中国河南省政府 ②洛陽理工学院外语系日语专业(教师) ③并无特别的契机。 ④让我认识到,人们即使国籍不同,也能够和睦相处,共同发展。 ⑤我感到,交流沟通的强烈意愿必能为世界创造一个光明的未来。

①중국 허난성 ②뤄양이공학원외국어학부 일본어학과(교사) ③특별히 없음 ④국적이 달라도 서로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⑤서로 대화하는 마음이 밝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刘 婷

LIU TING China

①中国陕西省 ②陕西省外事办公室 ③豊富な講義項目、国内外の人と知り合うこと。 ④外国の長所、文化風習を尊敬すること。 ⑤充実した3週間で、日韓の人や文化に親しみが増した。

①中国陕西省政府 ②陕西省外事办公室 ③希望聆听丰富多彩的课程,并结识国内外的友人。 ④必须尊重他国的长处与民俗文化。 ⑤这3个星期过得非常充实,对日韩两国的民众和文化更有亲切感了。

①중국 섬서성 ②섬서성의사반공실 ③풍부한 강의 내용과 국내외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④외국의 장점과 문화, 그리고 풍습을 존경하는 것. ⑤충실한 3주일간이었으며, 일본 및 한국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受講者リスト ①地方政府②所属③今回参加したきっかけ④今回学んだことでこれから生かしていきたいと思うこと⑤感想など  
 学员名单 ①所属地方政府②所在部门③参与本次研讨会的契机④参与本次研讨会的收获及对实际工作的启示⑤感想感言  
 수강자 리스트①지방정부 ②소속 ③참가 동기 ④이번에 배운 것 가운데 앞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⑤감상 등



**吉 明** JI MING China

①中国陕西省 ②陕西省外事弁公室 ③日本文化史とアジアの関連授業で理解を深めたい。④歌を通じて相手国への理解を深めること。⑤関係者の温かいもてなしに感謝している。

①中国陕西省政府 ②陕西省外事办公室 ③希望聆听有关日本文化史及亚洲现状的课程，加深理解。④歌曲能让人对他国文化拥有全新的认识。⑤非常感谢工作人员热情周到的款待。

①중국 심서성 ②심서성의사반공실 ③일본문화사와 아시아 관련 강의를 통해 이해를 심화시키고 싶다. ④노래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 ⑤관계자의 친절한 대응에 감사하고 있다.



**张 瑜** ZHANG YU China

①中国陕西省西安市 ②西安市外事侨務弁公室 ③フィールドワークで現地の生活を理解したい。④異文化の理解と、東アジアの発展への期待。⑤先進的な物を共有することで互いが結び付くことを感じた。

①中国陕西省西安市政府 ②西安市外事侨务办公室 ③希望通过野外实习了解当地人的生活方式。④让我了解了异文化，并对东亚未来的发展给予更多期待。⑤我感到，共享先进的事物会让彼此联系得更紧密。

①중국 심서성 시안시 ②시안시 외사교무반공실 ③필드워크를 통해 현지 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④이문화의 이해와 동아시아의 발전에 대한 기대. ⑤선진적인 것을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임 영철** LIM YEONG CHEOL Korea

①韓国扶余郡 ②扶余郡古都文化事業所 ③三国の相互交流に寄与する知識育成を学びたい。④急速に変化する世界の政勢を感じられた。⑤三国の研修生と人間関係で付き合うことができた。

①韩国扶余郡政府 ②扶余郡古都文化事业所 ③希望学习有助于增进韩日中三国交流的相关知识。④感受到世界局势瞬息万变。⑤与三国研修生建立起了宝贵的友情。

①한국 부여군 ②부여군고도문화사업소 ③한·중·일 3국의 상호교류에 기여하는 지식육성에 대해 배우고 싶다. ④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느낄 수 있었다. ⑤한·중·일 3국의 연수생과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김 지은** KIM JI EUN Korea

①韓国慶尙北道 ②嶺南大学ドイツ語文学 ③十津川村のフィールドワークで日本人の生活の体験。④皆で三国について考え、視野が広がった。⑤不安と期待があったが、多くの経験ができて良かった。

①韩国庆尚北道政府 ②岭南大学德语德国文学 ③希望通过十津川村的野外实习亲身体验日本人的日常生活。④与大家一同思考三国所面临的课题，拓宽了自己的视野。⑤刚开始既担心又期待，但后来收获良多，很有意义。

①한국 경상북도 ②영남대학교독일어문학 ③도쓰카와무라 필드워크에서 일본인의 생활 체험 ④한·중·일 3국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⑤불안과 기대가 공존했지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김 수현

KIM SOO HYEON Korea

①韓国忠清南道 ②青陽大学警察行政科 ③現代日本の漢字文化、日本語、日本の文化を学びたい。④日本語をもっと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⑤良いプログラムだったが、日程はハードだった。

①韩国忠清南道政府 ②青阳大学警察行政学科 ③希望了解现代日本的汉字文化、日语、及日本文化。④让我认识到自身的不足，必须加倍努力学习日语。⑤课程非常丰富，但日程过于紧凑。

①한국 충청남도 ②청양대학경찰행정학과 ③현대 일본의 한자문화, 일본어, 일본문화를 배우고 싶다. ④일본어를 더욱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⑤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일정이 타이트했다.



이 정언

LEE JEONG EON Korea

①韓国慶尚北道 ②嶺南大学国語国文学 ③特になし ④広い世界と出会い、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った。⑤韓中日の良い人たちと会えて交流できて良かった。

①韩国庆尚北道政府 ②岭南大学韩国语言文学 ③并无特别的契机。④见识到了更广阔的世界，这将成为自己人生的转折点。⑤结识了韩中日三国友人，并与他们交流畅谈，很有意义。

①한국 경상북도 ②영남대학교국어국문학(한국) ③특별히 없음 ④넓은 세계를 만나 전환점이 되었다. ⑤한·중·일 세나라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강열

LEE KANG LYUL Korea

①韓国瑞山市 ②忠清南道瑞山市文化観光課 ③奈良県の文化財に関するシステムを現場で見学したい。④日本の情報と新しい学問を学び、やる気が出た。⑤三国が集まって国際交流ができて嬉しかった。

①韩国瑞山市政府 ②忠清南道瑞山市文化观光科 ③希望实地考察奈良县与文物相关的体制。④了解到日本的最新情况，也接触到不少新学问，从中获得了向前迈进的动力。⑤很高兴能与韩日中三国的年轻人聚在一起，进行跨国交流。

①한국 서산시 ②충청남도서산시문화관광과 ③나라현의 문화재에 관한 시스템을 견학하고 싶다. ④일본의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면서 의욕이 생겼다. ⑤한·중·일 세나라 사람들이 모여 국제교류를 할 수 있어서 기뻐다.



김 연심

KIM YEON SHIM Korea

①韓国慶州市 ②慶州市役所市民生活局税制課 ③特になし ④三国は昔から影響し合い、未来も続くと感じた。⑤文化や歴史以外の分野をもっと学んでみたい。

①韩国庆州市政府 ②庆州市政府市民生活局税制科 ③并无特别的契机。④韩日中三国自古以来就相互学习、相互影响，将来必定也是如此。⑤如有机会，很想学习一些历史、文化以外的东西。

①한국 경주시 ②경주시시민생활국세제과 ③특별히 없음 ④일·중·한 3국은 옛날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왔으며 그러한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⑤문화와 역사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고 싶다.



受講者リスト ①地方政府②所属③今回参加したきっかけ④今回学んだことでこれから生かしていきたいと思うこと⑤感想など  
 学员名单 ①所属地方政府②所在部门③参与本次研讨会的契机④参与本次研讨会的收获及对实际工作的启示⑤感想感言  
 수강자 리스트①지방정부 ②소속 ③참가 동기 ④이번에 배운 것 가운데 앞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⑤감상 등



**정 미영** JEOUNG MI YOUNG Korea

①韓国慶州市 ②慶州市役所文化観光課 ③東アジア三国についてたくさん  
 のことを学びたい。 ④東アジアが世界の中心になる時代の到来。 ⑤多くのこと  
 を学び、心構えが変わったように思う。

①韩国庆州市政府 ②庆州市政府文化观光科 ③希望学习许多有关韩日中三国  
 的知识。 ④让我认识到, 东亚成为世界发展核心的新时代即将到来。 ⑤学到  
 许多东西, 思想观念也随之产生了变化。

①한국 경주시 ②경주시문화관광과 ③동아시아 3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④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의 도래. ⑤많은 것을 배우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김 선홍** GIM SEON HONG Korea

①韓国全羅南道 ②童身大学文化観光部観光日本語学科 ③新しい経験、各国  
 との交流、自分の糧になる事。 ④色々な分野の講義を聴き、多様な考え方がで  
 きた。 ⑤素晴らしい人間関係ができたことが嬉しい。

①韩国全罗南道政府 ②童身大学文化观光系观光日语专业 ③希望获得全新的  
 体验, 与外国学员交流畅谈, 从而充实自我。 ④聆听各领域课程, 学会了更多样  
 化的思考方式。 ⑤很高兴能与各国学员进行面对面的交流。

①한국 전라남도 ②동신대학문화관광학부관광일본어과 ③새로운 경험, 각국과의  
 교류, 자신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 ④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다양하게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⑤멋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기뻐다.



**이 남주** LEE NAM JU Korea

①韓国京畿道 ②京畿道人材開発院 ③日中韓の地方政府の共同発展に向けた  
 地方公務員の交流。 ④古代文化や東アジアの現在の姿を学んだ。 ⑤東アジア  
 の未来のために重要な研修だと信じている。

①韩国京畿道政府 ②京畿道人才开发院 ③希望与韩日中三国地方政府的公  
 务员进行交流, 增进合作, 共同发展。 ④了解了古代文化, 以及东亚的现状。  
 ⑤我相信, 本次研讨会对开创东亚的未来具有深远的意义。

①한국 경기도 ②경기도인재개발원 ③한·중·일 3국 지방정부의  
 공동발전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류. ④고대문화와 동아시아의 현황에 대해  
 배웠다. ⑤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森田 修平** MORITA SHUHEI Japan

①日本奈良県 ②奈良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前期課程 ③各界の専門家  
 による講義で自らの見識を広げたい。 ④様々な国の価値観に触れ、視野を広げ  
 たいと感じた。 ⑤十津川村は普段は行く機会がなく、貴重な体験ができた。

①日本奈良县政府 ②奈良大学研究生院文学研究科硕士生 ③希望聆听各界专家  
 的课程, 增长自身见识。 ④有幸接触到不同国家的价值观, 拓宽了视野。 ⑤通常  
 很少有机会前往十津川村, 这段经历值得珍惜。

①일본 나라현 ②나라대학 대학원문학연구과박사전기과정 ③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자신의 견식을 넓히고 싶다. ④다양한 나라의 가치관을 접하고 시야를 넓혀야겠다고  
 생각했다. ⑤도쓰카와우라는 평상시 갈 기회가 없는데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황 소윤

HWANG SO YUN Korea

① 한국 전라남도 ② 목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③ 특になし ④ 대화や出会いを通して、自分の足りなさを感じた。 ⑤ ここで学んだことは今後の大切な資産になると思う。

① 한국 전라남도政府 ② 목포大学日本与日本文学专业 ③ 并无特别的契机。 ④ 在与其他学员交流的过程中，感受到了自身的欠缺与不足。 ⑤ 在本次研讨会上学到的东西将成为我人生中的宝贵财富。

① 한국 전라남도 ② 목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③ 특별히 없음 ④ 대화와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⑤ 여기서 배운 것이 앞으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 준권

KIM JUN KWON Korea

① 한국 경기도 ②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③ 三国の違う所と同じ所のバランスが取れる見解を持つこと ④ 韓中日の歴史・文化の特徴を知ることができた。 ⑤ 奈良の歴史文化的資源は印象的。研究に活用したい。

① 한국 경기도政府 ② 경기文化財團京畿道博物館 ③ 希望学习客观对待韩日中三国异同点的思考方式。 ④ 了解了三国历史、文化的特征。 ⑤ 奈良的历史文化资源令人印象深刻，希望能活用于今后的研究工作。

① 한국 경기도 ②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③ 한·중·일 3국의 다른점과 같은점에 대한 균형잡힌 견해를 갖는 것. ④ 한·중·일 세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⑤ 나라의 역사·문화적 자원이 인상적이었다.



류 성욱

RYU SUNG WOOK Japan

① 日本奈良県 ② 奈良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前期課程 ③ 研究者と現場で働く人が互いを知る機会になってほしい。 ④ 歴史ある東アジアの文化の全体を把握する目が必要。 ⑤ 三国が互いの偏見をなくす良い機会になった。

① 日本奈良县政府 ② 奈良大学研究生院文学研究科硕士生 ③ 希望这能为研究人员与普通工作者提供相互了解的机会。 ④ 今后，有必要从历史的角度出发，全盘了解整个东亚地区的文化。 ⑤ 这为日中韩三国相互消除偏见提供了良机。

① 일본 나라현 ② 나라대학대학원문학연구과박사전기과정 ③ 연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④ 역사가 깊은 동아시아의 문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⑤ 한·중·일 3국이 서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山本 直樹

YAMAMOTO NAOKI Japan

① 日本奈良県 ② 奈良県医療政策部医療管理課 ③ 対話を通して三国の類似点、相違点を実感したい。 ④ 日々の学習でも外国語を十分に学べると感じた。 ⑤ スポーツで交流を深める時間もあると面白いと思う。

① 日本奈良县政府 ② 奈良县医疗政策部医疗管理课县立医院企划员 ③ 希望通过面对面的交流，亲身体验日中韩三国的异同之处。 ④ 我感到，日常会话也是学习外语的理想途径之一。 ⑤ 如能安排学员一同参与体育运动交流，将会更有趣。

① 일본 나라현 ② 나라현의료정책부의료관리과현립병원기획계원 ③ 대화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실감해 보고자 한다. ④ 하루 하루의 학습을 통해서도 외국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⑤ 스포츠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受講者リスト ①地方政府②所属③今回参加したきっかけ④今回学んだことでこれから生かしていきたいと思うこと⑤感想など  
 学员名单 ①所属地方政府②所在部门③参与本次研讨会的契机④参与本次研讨会的收获及对实际工作的启示⑤感想感言  
 수강자 리스트①지방정부 ②소속 ③참가 동기 ④이번에 배운 것 가운데 앞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⑤감상 등



**辻谷 明代** TSUJITANI AKIYO Japan

①日本奈良県 ②奈良女子大学文学部言語文化学科中文専攻 ③色々な見解を吸収して自らの視点を広くしたい。 ④出会いを通して自分を見直す機会になった。 ⑤中韓の方が日本の問題を議論され、身の引き締まる思いだった。

①日本奈良县政府 ②奈良女子大学文学部语言文化系中文专业 ③希望接触不同的观点, 拓宽思考问题的视角。 ④通过与其他学员的交流, 促使自己重新审视自我。 ⑤中韩两国学员讨论有关日本的问题时, 觉得很有压力。

①일본 나라현 ②나라여자대학문학부언어문화학과중문전공 ③다양한 견해를 흡수해 자신의 시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④이번 만남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⑤중국과 한국 참가자가 일본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인식을 새롭게 했다.



**若杉 真紀子** WAKASUGI MAKIKO Japan

①日本奈良県奈良市 ②奈良県奈良市役所学務課 ③交流で互いを理解し、自身の資質向上に活かしたい。 ④国ごとの考え方の違いを多くの人が自覚していないと感じた。 ⑤これからの人生の中でも得難い貴重な時間だった。

①日本奈良县奈良市政府 ②奈良县奈良市政府 教育委员会学务课 ③希望通过交流增进相互了解, 并提高自身素质。 ④我感到, 许多人没有认识到各国的思考方式截然不同。 ⑤这将成为我人生中的一段宝贵经历。

①일본 나라현 나라시 ②나라현 나라시교육위원회 학무과 ③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겠다. ④나라마다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⑤평생동안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赵 冰** ZHAO BING Japan

①日本島根県 ②島根県立大学大学院北東アジア開発研究科博士後期課程 ③東アジア地域の発展に寄与する意欲、能力の向上。 ④三国の歴史・文化、社会事情への理解が深まった。 ⑤人間同士が直接触れ合うことの大切さを認識した。

①日本岛根县政府 ②岛根县立大学研究生院东北亚开发研究科博士生 ③希望提高自己为东亚发展作贡献的意愿及能力。 ④对日中韩三国的历史、文化、及社会状况有了更深入的了解。 ⑤让我认识到人与人之间面对面交流的重要意义。

①일본 시마네현 ②시마네현립대학대학원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박사후기과정 ③동아시아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욕과 능력 향상. ④한·중·일 3국의 역사·문화, 그리고 사회사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⑤인간이 서로 직접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内山 怜和** UCHIYAMA REO Japan

①日本福井県 ②福井県立大学大学院経済経営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③研究者として知見を増やし、相互理解を深めたい。 ④受講生のネットワークが作られ、拡がることへの期待。 ⑤日程等を改善し、段々と良いプロジェクトにしてほしい。

①日本福井县政府 ②福井县立大学研究生院经济·经营学研究科博士生 ③身为一名研究人员, 希望能增长见识, 深化理解。 ④期待与其他学员保持联系, 拓宽人际网络。 ⑤希望主办方能改进日程安排, 将研讨会越办越好。

①일본 후쿠이현 ②후쿠이현립대학대학원경제·경영학연구과박사후기과정 ③연구자로서 지견을 넓히고 상호이해를 돈독히 했다. ④수강생의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를 기대한다. ⑤일정 등을 개선해 점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 堀部 暢一

HORIBE YOUICHI Japan

①日本奈良県橿原市 ②奈良県橿原市役所企画政策課 ③韓国、中国の文化に触れ地域の国際交流に活かしたい。 ④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意見を聴き、新たな発見もあった。 ⑤講義の内容を理解するのは日本人でも難しいと思う。

①日本奈良县橿原市政府 ②奈良县橿原市政府企画政策课 ③希望接触韩国与中国的文化，并推动本地区的国际交流。④专家们的观点带给了我全新的启示。 ⑤课程内容较深，即使是日本人恐怕也很难完全听懂。

①일본 나라현 가시하라시 ②나라현가시하라시기획정책과 ③한국, 중국의 문화를 접하고 지역의 국제교류에 활용하겠다. ④프로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것도 발견했다. ⑤강의 내용은 일본인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 王 磊

WANG LEI Japan

①日本島根県 ②島根県立大学大学院北東アジア開発研究科博士後期課程 ③国際的視点から東アジアについて学ぶ貴重な機会。 ④三国間の交流は表層と深層の区別が必要だと感じた。 ⑤将来の東アジアの架け橋になりたいと思う。

①日本岛根县政府 ②岛根县立大学研究生院东北亚开发研究科博士生 ③这是一个立足国际、思考东亚问题的宝贵机会。 ④我感到，日中韩三国的交流有必要区分为表层与深层两个层面。 ⑤希望将来能为推动东亚协作贡献力量。

①일본 시마네현 ②시마네현립대학대학원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박사후기과정 ③국제적인 시점에서 동아시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④한·중·일 3국의 교류는 외적측면과 내적측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⑤장래 동아시아의 가교가 되고자 한다.



2011  
SUMMER



主催 奈良県

協力 NPO法人音楽の森

まつぼっくり少年少女合唱団

かんのがわHBP

十津川村特別養護老人ホーム 高森の郷

奈良市国際交流ボランティア協会

十津川村

十津川村長  
総務課長  
福祉事務所長  
観光振興課長  
観光振興課長補佐

更谷 慈禧  
東 武  
大玉 和行  
増谷 良一  
馬場 健一

十津川村特別養護老人ホーム

所長

深瀬 佳英

かんのがわHBP

理事長  
事務局長  
事務局員

岡田 亥早夫  
神谷 明成  
山崎 浩一

農家民宿山本

中南 太一

農家民宿泉の森

中南 佐栄子

農家民宿岡村

伊葉 為利

農家民宿吉村

伊葉 まち子

民宿岡田

松葉 良久

農家民宿阪口

松葉 俊子

農家民宿政所

中南 重計

中南 百合子

岡田 喜久男

岡田 哲代

阪口 泰行

阪口 初美

辻伊 久子

辻伊 成晃

奈良市国際交流ボランティア協会

事務局長  
事務局スタッフ

佐野 純子

矢追 泰子

清水 道江

木村 幸子

事務局学生スタッフ

西尾 美香

伊藤 美香

会員

シギナシ ミハエル

孟 凡卓

阿部 康子

磯貝 美知子

奥田 恵子

西井 義典

西井 八恵美

高田 嘉昭

ホームビジット

西井 義典

西井 八恵美

小松 純一

小松 三岐子

川村 敬子

阿部 康  
大江 和美  
森 克容  
森 洋子  
瀬川 雅数  
瀬川 ゆり  
梅岡 裕子  
南浦 芳子  
南浦 祥登  
南浦 陽子  
南浦 映子  
南浦 純一郎

まつぼっくり少年少女合唱団

川村 優香  
川村 愛  
木村 朱里  
駒谷 帆波  
阪本 晴香  
阪本 麻理子  
杉中 陽菜  
鈴木 泰葉  
瀧上 沙良  
竹原 美紗貴  
竹原 悠羽香  
竹原 聖司  
竹村 華奈  
田村 風子  
中野 可央利  
中村 采子  
西澤 華子  
廣瀬 莉子  
松本 有貴  
光畑 瑠夏  
森 あずさ  
森 美穂  
山口 航平  
吉田 淳美

指揮者 荒井 敦子

ピアニスト 大山 理保  
副指揮者 古河 幸子  
指導助手 金澤 朋子  
中野 雅世  
光橋 詩生  
村尾 藍



事務局 奈良県  
地域振興部東アジア連携課  
中島 敬介  
原田 徳義  
伊藤 克隆  
通山 智子  
豊田 光啓  
藤井 菜穂未  
劉 蓮蘭  
加藤 遥

運営 (株)アサツー ディ・ケイ  
二宮 謙  
川田 すなほ  
降矢 治彦  
金 英華  
古川 毅  
渡瀬 次郎  
高市 英人

運営補助 (株)A A B  
中野 聖二  
関谷 真司  
松谷 弘和  
大平 ひろみ

カリキュラム運営 シムラカズヒロ計画工房  
チーフファシリテーター ダイアログBar  
志村 和浩  
西村 勇也

報告書制作 川田 すなほ  
渡瀬 次郎

PHOTO 川田 すなほ  
渡瀬 次郎  
高市 英人  
志村 和浩(シムラカズヒロ計画工房)  
平林 直人(bricolage)

編集 倉橋 みどり(スタジオ・チャイヴ)  
AD&D 平林 直人(bricolage)

印刷 (株)天理時報社



## 終わりは、始まり。

终点，亦是起点。  
끝은 시작이다.

蒸し暑い夏の奈良に、期待と不安を抱え、受講者が集まってきた。幅広い分野にわたる熱気あふれる講義、温かいもてなしに迎えられた交流やフィールドワークなど、多彩なメニューがぎっしりと詰め込まれた19日間。多くの知識や発想のヒントをつかんだだけでなく、数多く取り入れられた「対話」の時間や「グループ発表」の準備を通じ、お互いの歴史や文化、生活習慣の違いを超え、ひとり対ひとりの出会いが生まれ、やがて、かけがえのないつながりが残った。夏は終わった。でも、ここで得たすべてのことは、きっと、東アジアの新しい未来を拓く力になっていくことだろう。



炎炎夏日，来自不同国家的学员们怀抱期许与不安，在闷热的酷暑中汇集至奈良。

本次研讨会课程内容涉猎其广，气氛热烈；交流活动与野外实习洋溢着温馨与温情.....短短19天的会期，充实丰富，多姿多彩。在这里，学员们不仅收获了丰厚的学识与充满创意的启示，还通过频繁的交流沟通和筹备成果报告的小组活动，超越历史、文化、及生活习俗的差异，催生出一段段难能可贵的友情，谱写下铭刻心底的美好回忆。

夏季虽已逝去，但这里结出的累累硕果，必将成为开拓东亚未来的新力量。

무더운 여름, 기대감과 불안감을 안고 이 나라에 각국에서 수강자들이 모였다.

폭넓은 분야에 걸쳐 강렬한 강의, 온정어린 대접으로 맞이해 준 교류와 필드워크 등 다채로운 메뉴가 가득한 19일간, 많은 지식과 발상에 필요한 힌트를 얻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의 시간과 '그룹 발표' 준비를 통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습관의 차이를 초월해 일대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만남은 소중한 인연으로 남았다.

여름은 끝났다. 그러나 여기서 얻은 모든 것은 반드시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2011

**NARASIA 未来塾**

NARASIA 未来塾研究社 / NARASIA 미래학원

